朝鮮日報

三日夕刊十二面

發行人 申錫雨
編輯人 韓光烈
印刷人 朴昌根

京城府堅志洞壹壹壹番地
發行所 朝鮮日報社
代表番號光(光)二三〇〇番

社說

總結에서 總檢察에!

右翼進出의 今一年

一

各府各方面의 그 處地와 立場을 따라서 各小與로 된 사람들이 각각 自己들의 處地에서 出發한 最善 및 最强大한 打開의 意志로써 同一目標를 向하야 前進하고나아가는 몃 울기의 各길에서 同志的 또는 政略的의 呼應과 協同의 進出으로 할것을 承認 및 具現하지 아니하면 아니될것을 主張하엿다 그러나 그는 全然 分散的인 自然放任的인 形態로는 結局의 아름다운 觀念으로 밧게 아니될것임을 指摘하엿섯다. 隱然또 現然히 一種의 基本的 權威를 把握하고 一種의 基本力量으로써 社會的으로 主義的으로 眞正確固한 陣營을 樹立하고서의 일인것을 所言하엿섯다 이것은 分離 決裂의 갈팡대는 過程에 沈滯되어잇는 人民으로서 가장 必要한 各層各方面의 部門的인 諸力量을 昂揚進用 및 集中케하야 全的으로 協同的인 强固한 總力量을 맨드는데서 비로소 生存의 序曲이 그 압헤서 眞正하게 行進될것을 豫想함이 잇섯다 이러한 政策에서 當然히 延長되는것은 遺然히 同志的 또는 政略的 協同의 圈內에 들어오지 못할 現實의 政治的인 어떠한 分野에 向하야서는 隱然 또 現然히 檢察 警醒의 날카로운 눈과 및 嚴正 또 老練한 손을 가진 實踐的인 審判의 先驅者들이 대히 지어 놀수 잇는것이다 여기 至極留意할 點일것이다

二

勞働者 農民 鬪爭的 結成 浮遊的 小『부르』 擴大 強化 協同鬪爭 等의 主張은 적은 만다 그러나 그의 希望과 主張에서는 어써든 勞働者 農民을 完全한 基本으로 勢力化하고 당장으로 明實한 鬪爭的 結成으로 適進한다는 것은 外部의 諸形勢가 그것을 頑强하게 許치 안는다 그럼으로 勞働者 農民의 漸層的 或은 鬪爭的 意的 結成이라는것이 進行되어 되는 한편 浮遊的 小『부르』란 者로 外交的 또는 道德的의 結合에로 나아가게 하는것이 當面에 잇서 매우 必要한 바이오 더욱히 그들의 相互間의 懷疑의 泥濘이나 不安의 決裂이나 或은 失望的 乖離 脫을 오게하는것만이 매우 急燥한 失策일것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現下 情勢에 考慮하야 協同을 爲한 友誼的 信義的인 善處와 한거름 나아가서 共同한 現下의 政策을 樹立 및 具現할 이 오히려 緊要할것이다

三

새로운 世界는 우리의 입헤 接近되고 또 展開되려고 한다 觀望者가 離脫도 돌아서고 迎合으로 因한 反動에도 趨進者는 多分으로 나올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朝鮮의 울타리에서 그로 因하야 적거나 크거나 現實─그로 因하야 變動은 朝鮮을 하게 把握하는 者로서는 無關心 放任 冷笑 嘲罵으로 할바는 아니오 동시에 또 嚴正한 檢察 或은 警醒이 자못 必要한 바이다 비록 또 局限된 範圍에서일지라도 그들의 言動은 더욱 反動的일수도 잇고 또 그 處地에 依한 最善 및 最强大한 行動으로도 될수잇는 것이다 吾人은 이에 比하야 一層더 저들의 政治的이든 어떠한 時代의 事件에 關하야서도 그들의 殊常한 言動에 關하야는 퍽은 만히 關心 干與 및 操作하엿섯다 하엿며 今年부터서의 그것은 이에 比할者 아니며 人民層의 反感과 質과 量이 아울러 그보담 걱정될것임에 對해서랴? 總檢察은 매우 緊切하다 總檢察을 爲하야는 總出 및 總結이 先決要件이어야 하는것이다 이미 總結의 途程이 열린지 오래이지만 지라 어찌 紛紛히 理論의 末節에만 拘泥할것이냐? 論者와 先驅者와 및 其他有心人들은 먼저 그 方策 樹立하고 그 同志的 協同에 依한 統制的 並進의 分野를 整理 또 强調하하면서 이러한 檢察의 길을 準備하시아 나갈것이 아닌가? 이 問題는 더욱 더 檢討 論議 및 樹立의 節次를 지내어야 할것이다

英印圓卓會議 前途에 重大難關

『암』氏의 論難이 導火線으로 階級的 反感猛烈

【倫敦一日發】 印度問題討議의 圓卓會議는 去十一月十二日 開會되어서 이미 五十餘日을 經過하야 一月中旬에는 무선 會議를 終了할 豫定인데도 不拘하고 아즉도 大綱의 決定도 보지 못한 狀態인데 中央議會의 戰鬪에 關한 『힌두』教徒와 回回教徒와의 紛爭, 會議의 進行을 益益 停滯시켜 一日에 일으러 兩教徒代表 共이 英吉利政府의 妥協案을 一蹴하얏슴으로 會議는 全然 暗礁에 걸엿다 『맥』首相은 狼狽하야 急速히 少數派小委員會의 特別委員會를 開하고 難局打開의 途를 講究하기로 하얏나 그리고 該問題外에 印度의 最下層階級을 代表한 『암벳드카』氏는 將來의 憲法은 最下層階級의 制度를 廢하고 此等 被壓迫階級을 『힌두』教徒로부터 分離시킬것을 要求하야 『힌두』教徒는 最下層階級을 單只 政治的 道具로 使하고잇다 論難하얏슴으로 印度代表間의 階級的 反感은 一層 强調하야 會議의 前途로 하야금 益益 困難시킨다

南方웰쓰炭坑서 十六萬坑夫大罷業

三日解決案을 討議할 豫定

一日一齊히 斷行

【倫敦一日發】 드되어 炭坑側과의 協定에 達치 못한 『싸우쓰웰쓰』의 炭坑夫十六萬은 드되어 一日부터 一齊히 罷業을 開始하얏는데 此罷業은 적어도 今後三日間은 繼續될것이 確實한바 目下의 形勢로 唯一한 希望은 來三日 解決案을 討議할 協定委員會를 開催하기로 한 것으로 勞主, 坑夫 雙方이 다 同意할 것이니 其結果如何에 달려잇다

英歲入不足 二十二億磅

『스노-덴』藏相 本年度의 歲計를 자못 悲觀

【倫敦一日發】 四月一日부터 十二月卅一日에 일으는 九個月間의 英國大藏省 歲入不足額은 實로 二十二億八千萬磅의 巨額에 達하야 前年同期의 不足額 一億六千九百萬磅에 比하면 十一億三千百萬磅의 增加를 보혓슴 뿐아니라 藏相 『스노-덴』氏는 最初 現會計年度末에는 剩餘增額 二千萬磅에 達할 希望이 잇다고 豫期하엿섯슴으로 現會計年度의 歲計는 자못 悲觀하고잇다

德田等釋放歸國

【敦賀三日發】 敦賀連絡船 天草丸은 二日午後 敦賀에 入港하얏는데 同船으로의 昨年夏 『블라디보스톡』 市勢抛棄로 拘留處分을 바든 函館市 德田寬一 新潟縣 中頸城郡 板倉村 島田信次 外三名은 證據無罪의 判決을 바더 釋放되어 歸朝하얏다

布哇에 航空隊增設

航空五個年計劃의 一部로 米國陸軍省서 發表

【華府發】 最近 米國陸軍省의 布哇航空部隊中 非實在部隊인 發表에 依하면 陸軍側에서는 在來 一攻擊第二十六中隊及第七十五勤務中隊를 새로히 編成增加키로 決定하얏다는바 今回의 增設은 所謂 航空五個年計劃에 依한것으로 그 結果 在布哇實在兵力은 驅逐二中隊, 爆擊二中隊, 偵察攻擊各一中隊, 勤務二中隊及寫眞의 一小隊로 되엇다

『베』會社와 『영』會社 合同을 禁止

法律上違法이라고

【영스타운二十九日發】 當地裁判所는 本日 『베들레헴』鋼鐵會社와 『영스타운』鋼板鋼管會社와의 合同은 違法이라고 此를 禁止할 旨를 發表하얏다 右兩社는 『유나이텟드·스테-쓰·스틸·코-포레-쉰』과 對抗하려고 合同을 計劃하야 兩社合同은 去四月 『영스타운』鋼板鋼管會社 株式總會의 承認을 得한것이다

뭇쏘리니首相 米國에 放送

『팟씨슴』의 世界的誤解를 一掃키爲하야

【羅馬一日發】 伊太利首相 『뭇쏘리-니』氏는 本日午前 亞米利加에 向하야 左와 如한 無電放送을 하얏다 希望에 빗나는 一九三一年을 마즘에 잇서 『팟씨슴』에 關한 世界의 誤解를 一掃하고 십나 我 『팟씨슴』의 態度에 關하야 外國에는 荒唐無稽의 宣傳이 流布되어 마치 『팟씨슴』이 世界平和의 騷亂인것가티 말을 하나 이러한 宣傳은 全然 根據업는 者로 余自身도 伊太利政府도 國民도 戰爭의 原因을 希望하고 잇지 아니하다

一九三一年과 東洋國際情勢展望【三】

蔣張兩勢力對峙事情

安在鴻

◇蔣張關係가 드른것은 一般人에 거의 常識化한 바임으로 長提할 必要를 늣기지 안는다 다만 昨年九月八日 北平에서 閻錫山을 首席으로 北方政府가 形成되엇슬때 北方派의 勢力은 山西軍이 濟南에서 大敗한뒤 늘이어 極히 不利하엿슴에 不計하고 一旦組織하엿든 것인데 張學良이 決然 中央擁護의 態度로 나온 外에 北方派는 그 決定的 崩壞를 보게되어 九月十七日로 閻이 敗退 撤退 및 中央歸服의 態로 三省을 讓하고 되드어 各路軍이 되엇든것이다 이제 張學良이 東北四省과 河北 山東外지도 그 勢力을 연고 山西 綏遠에 集中되어 잇는 閻 馮軍을 收拾하야 平津 靑島 營口 葫蘆島 等海關의 收入으로 그 資源을 보태며 早晩에 反蔣의 一幕을 벌는지를 興味잇게 注目하는 이니와 이는 그대로 쉽게 判斷할 바 못된다

◇첫재 張으로서 만일 蔣氏中心의 統一集中을 猜疑 反對하고 地方政權으로서의 安全한 割據를 熱望한다면 그 意味는 일우지 못할 傳統的 旗幟 馮派 西北軍에 對한 心 汪兆銘의 改組派와 合流하야 左傾色彩가 濃厚하여지는 對 蔣 戒懼心 南方의 共產軍 活動 그들과 一脈相通하는 흔로 依한 敵愾心 陸接 逼迫한 에서 閻 馮 數人이 勢力을 伸張하면 全然 意味업는 그들의 侵蝕 倂吞의 근심에 다닥드리게 되는것 等等이 張으로 하야금 反蔣中央擁護의 方針으로 도기우려진것이다 이제 張으로서의 處地를 忖度하건대

一、大體로 黃河以北에서 一定한 地盤을 차지하여 中央으로서 自己의 存在를 確保하는 外에 스스로 天下를 取하려는 野心을 가지기는 不利한 條件이 만다 乃父張作霖이 大元帥로 北京政局에 出하야 失敗한 經驗은 쓰라리도록 가젓슬것이다

二、張作霖以來 二代 十五六年의 根據를 닥근것은 滿洲에 對한 日本의 特殊權益과 結托利用하며 줄잡어 그그를 多大하엿섯다 張學良으로서 和平統一과 國權回收의 潮流에 거슬린가 中央政權에 反抗하야 日本의 勢力에 기대기는 거의 不可能할것이다

三、乃父張作霖의 橫死以來 張學良은 더욱 外國勢力에 합부루기 어려운 冷靜한 行爲는 感情으로도 어려운것이다

四、赤化의 威脅과 並進하는 露國의 滿蒙政策과 日本과의 關係가 困難한 것이 이 兩國의 兩極的 勢力에 聯結하지 안코서는 張으로서 全力을 中央反抗하기가 매우 不利하다

五、閻 馮의 反蔣戰은 結局 無名의 師이엇고 또 그의 決定的 敗退는 蔣氏의 中央政權으로 一層 鞏固케 되어 地方勢力으로 容易히 平地에 波瀾을 닐으킬수 업슬것이다

六、石友三의 五萬軍 山西系의 十五萬軍을 自己의 힘으로 길드리기 어렵고 馮軍七、八萬도 그러하며 裁兵政策이 다시 斷行되려는 이째 마구 私兵으로 養成하기는 거북한 事情이 만흔것이다

七、中央政府의 關稅自主가 든것은 民族的 商工資本閥과 아즉은 그들 鋼窯資源으로 依存하는 新興金融資本閥에게 매우 歡迎될 뿐 아니라 中央政權으로도 一億圓의 新財源을 每年掌握하게 되는 金力上의 優勢가 생긴다

八、더욱히 南北이 다시 對峙한다하면 그름에 共產軍의 勢力이 急速成長되는 것이 共通한 不安이 되는데 東北各省에서의 共產勢力의 擡頭 赤露의 南下는 그로서 根本的 恐怖를 품지아니할수 업슬것이다

九、昨年 閻馮과의 反蔣戰에서와 가티 今後의 南北對峙에 잇슬 境遇에는 그 規模 技術 等이 자못 宏大하여서 慘禍도 커야 하려니와 容易히 擧事할 勢力가 안날것이다

十、中央歸服은 巧妙히 함으로 그의 表面 實際의 排除는 자못 달음한 바만흘것이다

우선 上述한 바 가지는 張으로서 容易히 中央反抗을 斷行하지 못할것이다 ◇

八面

○『팟시즘』은, 戰爭을 高調한다든가, 그原因을 짓고저하는것이 아니라고, 『뭇소리니』首相의 『라디오』放送!
○勞農, 府極東放送局의, 宣傳과, 몃寸間이나 될고?
○米國陸軍省에서, 『하와이』에다가 航空隊를 增設
○海軍軍縮後의 太平洋問題는, 바다에서 空中으로 옴기는 模樣
○英印圓卓會議 停頓!、炭坑爭議 再大擴大!
○해가 밧귀여도, 大英帝國의 不安은, 增大만 될뿐

印度獨立宣言紀念日 各地에 暴動勃起

負傷者警官二十一名 ◇…民衆百五十名

【봄베이一日發】 一日은 全印度國民議會의 印度獨立宣言紀念日에 當함으로 各地에 暴動이 일어나 民衆百五十名 警官二十一名의 負傷者를 내엇다

貴族院副議長問題 政府苦境에 들어

將來가 자못 注目되어

【東京電】 霧社事件以來 政府의 對貴族院은 자못 硬化로 豫想케 되는 現內閣의 對貴族院 政府方面은 中心으로하야 休會後 議會에서는 거듭 協議後 任命議長으로 으로 누러 注目되여잇는 此際 貴族院副議長 問題에 依하야 又復 政府는 火事會와 研究會와의 間에 서 將來는 지금에 貴族院 各派間에 重視되고잇다 卽現 副議長 蜂須賀正韶侯는 一月十一日로써 任期 滿了가 됨으로 研究會 首腦部間에서는 特히 伯爵 黑田 松平伯을 推薦하기로 決定하고 首相 ... 前에 이미 首相의 諒解를 得하얏는바 德川議長 歸朝後 議長은 德川一門으로부터 正副議長을 내는것을 不好하야 松平伯을 不好하얏슴으로 政府는 새로히 近衛文麿公을 後任으로하야 任命할것에 議長의 內諾을 得하얏든바 此에 對하야 研究會 首腦部는 憤慨하야 特히 伯爵側에서 松平伯을 黑田長에 推薦 具體的 運動을 起하야 原總代理 副議長에 推薦하기에 至하얏슴으로 研究會의 申請에 依하야 德川議長에게 對하야서는 近衛公 推擧의 撤回에 對하야 極力 諒解를 求할것으로 되엿다 그런데 一方으로 火曜會 公正會의 一部에서는 政府는 如斯한 態度에 不滿의 色을 나타내이고잇다 ...

新關稅實施後 其影響

◇…上海奉天兩處

上海 【奉天一日發】 上海海關稅務司로부터 三十一日在滿各海關에 對하야 一月一日부터 新關稅를 實施하라고 命令이 잇서 各海關은 卽時 其手續을 取하얏는데 日本商에 對하야 影響은 甚大한 模樣으로 此打擊은 一層不況을 深刻하게 만들것이다

奉天 【東京電】 在上海 橫竹商務參事官發 外務省入電에 依하면 中華民國 新關稅는 드되어 一月一日부터 實施되얏는데 當地 日本商으로서는 綿布 砂糖 紙 其他 先約定品에 對하야서는 從稅하야 賣方이 負擔키로 되어잇슴으로 直接의 損失은 業하는 일은 스리라고 보는 便이다

一九三一年에 日中諸交涉

重光代理公使談

【上海三十一日發】 重光代理公使는 上海滯在中의 蔣主席 王外交部長等과의 會見을 맞친後 二十九日夜十一時發 南京으로 向하얏는바 公使는 今年 二月前後 三十八回의 會見을 거듭한 後에 調印된 關稅協定을 始하야 十一月의 內外債務整理會議와 十二月의 電信交涉에 至하기까지 酷暑와 嚴寒을 不拘하고 汽車或은 飛行機로 南京 上海間을 往復하기 四十八回에 達하도록 非常한 苦心을 거듭하고잇섯다 二十九日 夜深하야 上海北停車場에서 外套의 『에리』를 치올닌 重光氏는 一種의 感慨에 넘치는 顔色으로 一年間의 對中外交를 回想하며 말하기를 今夜(二十九日)의 南京行은 一九三〇年의 最終의 南京訪問이오 또한 一九三一年 最初의 南京訪問이다 電信交涉, 南京 其他의 暗償問題等 年來로 解決하려는 懸件은 一, 二가 아니다 外交에는 『크리쓰마쓰』도 업고 正月도 업다 中國側의 蔣主席도 王外交部長도 그他의 要人도 한사람이라도 安逸을 貪하는者가 업고 우리와 가티 誠實하게 折衝하야 주고잇다 誠意만 잇스면 中에 또한 歷次의 會見하는 동안에 서로 서생각지 안흔 誤解를 激起하기도하고 感情의 相違를 이르키기도 하야 意外의 新聞電報材料도 되나 그것은 中國과의 交涉에 限하야 生하는것은 아니다 차라리 雙方에 接近하는 機會가 만코 利害가 接하는 으로도 生하는것이다 一九三一年에는 中國에 內政도 漸次 整頓될것이요 統一도 될것입으로 우리의 交涉도 只今外지 보나도 더욱 順調로 解決이 될것이라고 期待하고 希望하고잇다

힘이것는아 배워야산다

本社新年事業

◇◇◇

『文字普及班』開設

本社支局員總出動·한글原本二十萬部配布 (開設時期는 舊曆正初)

『書堂先生講習』開設

한글綴字法과 農事常識 (時期는 放學期를 利用)

『農村朝鮮』發行

初級讀者의 好伴侶·農村常識의 好讀物 (每年四季發行 二月中創刊號發行)

『小册子』刊行

科學·趣味·實用等常識의 寶筏 (年中隨時刊行 實費提供)

朝鮮日報社

000025

謹賀新年

車掌募集
志望者는 本人來社하시오
南大門前
京仁バス株式會社
電本一二一九番

京城

京城府漢江通
合資會社 盛陽社
支配人 浦田多喜人

旅行中欠禮
曹偰鉉

鎭海

慶南鎭海慶和洞
鎭海金融組合

慶南鎭海日出通
活版石版業 金子弘
電話二一一番 振替釜山五四六番

慶南鎭海慶和洞五條通
綢緞綿布고무靴商 鄭龍甲

慶南鎭海慶和洞
綢緞綿布고무靴商 張命道

慶南鎭海慶和洞
洪祐仲醸造所

慶南昌原郡熊川
三光醫院
院長 金顯文

慶南昌原郡上南面佛母山
聖住寺

慶南鎭海慶和洞五條通
內外米穀綿布料商 崔南岐
電話一〇二番

昌原郡上南面
面長 梁泰煥

昌原郡上南面盤松里
李碩琫

鎭海聖住寺驛前
林春玉

昌原郡熊南面外洞里
彭鍾敎

慶南鎭海慶和洞五條通
司法代書人 梁星煥

昌原郡鎭海面
副長 金時煥

慶南鎭海慶和洞
金永祚

慶南鎭海慶和洞
鎭海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昌原郡熊南面貴谷里
孫成泰

昌原郡熊南面貴谷里
熊南醸造所 洪希守

昌原郡熊川城內
熊川旅館 金相玉

昌原郡熊川城內
熊川醸造所

慶南鎭海
戊辰會

昌原郡熊川面水島里
區長 鄭龍甲

昌原郡熊川面水島里
水島醸造所 鄭呂根

昌原郡熊川面水島里
鄭萬洪

昌原郡熊川面
面長 梁濟煥

昌原郡天加面東仙里
加德醸造所 李相潤

昌原郡熊東面馬川里
雜貨商 崔太鳳

昌原郡熊東面頭洞里
穀物商 裵舜基

昌原郡熊川面
熊川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昌原郡天加面訥次里
中川回漕店

昌原郡天加面訥次里
訥次漁業組合

昌原郡熊東面蘭院里
熊東漁業組合

昌原郡熊南面貴谷里
孫琪泰

慶南鎭海大平通
穀物商 劉昌浩

昌原郡熊川面椽島里
三計義塾

昌原郡熊東面蘭院里
面協議員 崔太元

昌原郡熊東面蘭院里
面協議員 金桂斗

昌原郡天加面東仙里
加德醫院 金善培

昌原郡熊川面椽島里
醸造所 金明五

昌原郡熊東面頭洞里
朱柄注

昌原郡熊東面馬川里
馬川醸造所

昌原郡熊東面
面長 李甲祥

昌原郡鎭海面豊湖里
豊湖醸造所

昌原郡上南面驛前
金敬文

昌原郡上南面驛前
精米所 委托販賣 朴鳳甲

昌原郡上南面三丁子里
金鍾吉

昌原郡熊南面
面長 金丙坤

昌原郡大山面
大成旅館 具在衡

昌原郡上南面退村里
安承達

鎭海聖住寺驛前
聖住寺醸造所 曹喜誠

慶南鎭海慶和洞
崔鶴皐

慶南鎭海慶和洞
殷守鎔

慶南鎭海慶和洞
朴泰璨

昌原郡上南面龍池里
朴乙漢

昌原郡熊南面安民里
面協議員 李康儀

昌原郡鎭海面狩川里
周時泰

慶南鎭海慶和洞
李基然醸造場

慶南鎭海慶和洞
駐在所職員一同

漆原

咸安郡漆原面事務所
面長 黃鎔奎
外職員一同

咸安郡漆原面龜城里
周翻洪

咸安郡
漆原金融組合

漆原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咸安郡漆西面漢內里
孫壽一

咸安郡
漆西面職員一同

治維法改正以來 違反者一千二百
◇일본전국의통계여차◇
改正精神과背馳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은국체(國體)의변혁(變革)을목적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자를 처벌하기위하야 대정십사년 사월이십일에 제정하고 다시중형(重刑)으로써위협(威脅)하기위하야 긴급칙령(緊急勅令)으로 개정하야 실시한것인데 이래동법의 적용을보면 개정후의 동법위반자수는 개정전의 동법위반자수의 몃배를 초월하야 개정하든 당시의 취지에 배치되어가는 형세라는바 지난십이월십일까지의 일본전국의통계를 보면개정법시행이래의동법위반자총수는일천이백삼인에달한다는데 이를다시 개정전으로보면 다음과갓다한다

◇治維法適用以來違反者數

昭和三年(改正前)	四八四
昭和三年(改正後)	四六
昭和四年	三三四
昭和五年(十二月十日現在)	四二三
合計	一六八七

◇改正後總數 一二〇三

治維法違反― 學徒層最多
관사립대학졸업자최다 ◇勞働者는少數

동법의적용이래의 총수는 이상과갓거니와 검거수의 내용을보면소화사년까지는 공산당 동맹원(共產黨同盟員)의검거수(檢擧數)가 제일위이든것이 소화오년에와서는 소위『크미니스트글룹』에 대한검거로관사립대학졸업자 또는중도퇴학자 혹은중등학교졸업생으로지방농촌에서독서회(讀書會)등을조직하고목적수행(目的遂行)을위하야여러가지획책을 한자에대한 검거가극히만타하며 검거는 도회(都會)에서부터지방적(地方的)으로되엇다 하겟스며 노동자의검거수가적은것이 특색으로 작년일년동안의검거자를류별하야보면 다음과갓다한다

共產黨員	一三三
共產青年同盟	五二
目的遂行劃企者	二〇五
資金供與者	二八
其他	六
計	四二三

朝鮮은日本보다 數培를超過
두년의통계는알수업스나 再昨年에만千餘名

이상과가티 정치적사상범(政治的思想犯)이 격증하고치안유지법위반자가 해마다 증가하야가는경향이라하나 이것을 조선의그것과 비교하야보면 동법이조선에 실시된이후의 전조선통계는아즉알수업스나긔보한바와가티 작년일년동안에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취급한사건만이 륙십여건과 관계인수륙백여명에달하며 제일차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조직된이래 동당위반자로 검거된것이 구백륙십여명에 긔소(起訴)된 자가사백사십칠명이며 소화사년중의전선통계만 으로도 천여명에 달한다는것으로 보아 조선의동범위반자는 일본전국의 그것보다 몃배를 초과하고잇는 현상인것을알수잇다한다

二層洋館全燒
스토부의失火

삼일 오전일곱시경에 시내평동(平洞) 이십칠번지의 체신국관리(遞信局官吏)인 동경구평(前江久平)의집에출화(出火)하야 이층양관일동이전소되고 여덜시반경에야 진화(鎭火)되엇다는데 손해는 약이천원가량이라하며 인축의 사상은업고 출화의원인은 아직미상이나 『스토-부』에서 실화(失火)한것이라 한다

損害四千圓
西山病院燒失

지난일일 오전두시반경에 시내의주통(義州通)일정목서산병원(西山病院)은 난로(煖爐)에서출화하야 전소하엿다는데 손해는약사천원 이라한다

靴工作業部 犧牲的製品

루보한바와가티 세창양화점(世昌洋靴店)에서해고(解雇)당한 이십칠인의 직공(職工)들은시내공평동(公平洞)삼백십사번지에서직공작업부(職工作業部)를 개설하고 희생적으로 시대에합리한대가(代價)와 견실한제작품을일반고객(顧客)에게공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하는중인데동작업부에서 맨든양화는 다음과가튼 가격으로 다른양화점에비교하야 평균일할오부(一割五分) 이상인 가로 판매하는수잇스리라한다

◇價格表

깃도短靴	最上	十圓
同	中品	九圓
깃도編上	最上	十二圓
同	中品	十一圓
복수短靴	最上	八圓
同	中品	七圓五十錢
복수編上	最上	九圓
同	中品	八圓
學生編上		六圓으로六圓五十錢

朝鮮各少年軍 團結을計劃
일월오일에창립대회 少年軍指導者會議

작년말을긔하야 조선에는 종교계와 상공업계에서 련합, 통일, 대동단결의 큰사업이완성된이래 신년을당하야 더욱대동단결의 사조가 조선각방면에풍미되는중인데 조선소년군에서도조선에 소년군이 창립된지는 그력사가 이미오래나 단체가통일되지못하고 각자분산(分散)됨은 크게유감이라하야 작년말부터 경성시내 각소년단체의지도자(指導者)들이소년군련합에관한 협의를하여오든바 래오일오후여섯시시내련건동명진소년군본부(蓮建洞明進少年軍本部)에서 조선소년군련합단(少年軍聯合團)창립대회를 개최한다고한다

今年中休日 日曜만五十二日
샐라리멘에게반가운― ◇이를겸후노는날

월급쟁이에게 가장실거운 일요일과축제일이 닥쳐온 일천구백삼십일년에는 몃칠이나 되는가 ―금년 일년을 통하야 일요일만 오십이일이나 되여서 일요일이 다섯번식되는 달이 넉달이나 된다 그리고 축제일과 일요일과 겹친일은 한번도 업고 그우에 련해서노는날이 나흘이된다 실로 월급쟁이에게는 축복바든해다 더세밀하게 조사하면 제일(祭日)이 십이일인데 일요일까지 합하면 회사원의휴일(休日)이 륙십사일이 잇서서 두달이상을쉬는세음인데 이틀식 겹쳐쉬게되는날을조사하면아래와갓다

一月＝四日(日) 五日(祭)
三月＝廿一日(祭) 廿二日(日)
十月＝十七日(祭) 十八日(日)
十一月廿二日(日) 廿三日(祭)

그리고 하로건너 쉬게되는날을 조사하면대개아래와갓다

四月＝三日(祭) 五日(日)
十一月＝一日(日) 三日(祭)
十二月廿五日(祭) 廿七日(日)

鐵筆續刊
방금인쇄중

시내 관진동(館津洞)백삼십삼번지에잇는 철필사(鐵筆社)에서발행하는 월간잡지 신조평론(新潮評論)『철필(鐵筆)』은그동안 낫호를휴간케되엿든바 저간다시 내용과진용을 혁신하야 가지고 계속출간케되어 본월내에 발간케될터인데 정가는 이십전식이며 각지에 지분사(支分社)도모집한다더라

無機物을適當配合 生物創造의新說
미국에유명한크라일박사제창 인공으로생물창조하는신학설
宇宙의秘密은解決?

【紐育特信】 인공적(人工的)으로생신(生新)한세포(細胞)를맨들어낼수잇다는학설은마츰내성공을 하게되어 일반과학계에위대한센세이순을일으키고잇다 미국에우수한 학자『조지크라일』박사는지난이십구일미국일류(一流)의과학자들수백명압헤서 지금까지 비밀리에연구하든 자긔의 학설을설명하야직접현미경(顯微鏡)으로실험하엿는데 그내용인즉 동물(動物)의 생명인세포(細胞)를취하야이것을 지방(脂肪)류사의단백질(蛋白質)과기타 모든것분으로분해하야 그생명의 원소(元素)인모든흔적(痕跡)을드러버리고약일개월 량 그대로 방치하엿다가전해물(電解物)가온대 혼입하면그물질이일단위물(一單位物)로형성되어 중심핵(中心核)과 모발상(毛髮狀)을발사하는형체가세포가된다 그리하야 이세포는성장을하야 어느때에는분렬하는싹이트고 어느때에는미바-와가티 분렬하야그수효를증가하고잇다 이가티무긔물(無機物)을적당하게배합하면 생명을창조할수잇다는것을 창조할수잇다는것이라는바 이것은 죽어도생물혹은 무생물(無生物)의경계를훨씬버서나 생명을 창조한다는 획긔적(劃期的)인것으로 인류의 상상이 과거긔만년간 이우주의커다란의혹은이로서현실적케일보가될것이라고한다

精進의新春 (三)
주림을참으며 晝夜交代作業
하로에열두시간정진노력 그대가최고가이원삼십전
發電所안의勞働者들

▽……△

핑! 핑! 핑! 일분동안에 삼천륙백번식! 경성시외 당인리발전소(唐人里發電所)의 『타-빈』은 천지가문허질듯한굉장한 음향을 내이면서 핑! 핑! 핑! 돌아간다 날이칠든지 더울든지 눈이오고 비가오든지 구변이가고 새해가오든지 돌아가고돌아가고 자꾸만도라간다(타-빈이 헐니돌기만하면 전긔는 자연히 닐어나는것이다) 그리하야사십만인이사는 경성시내에는 가가호호에 전등불이켜지고 전차는 달아나며 모-든공장의『모-타-』는부터 활동사진관의『필님』이르면 선풍긔과저울이면 전란노 일용각반의 전긔는통하여지는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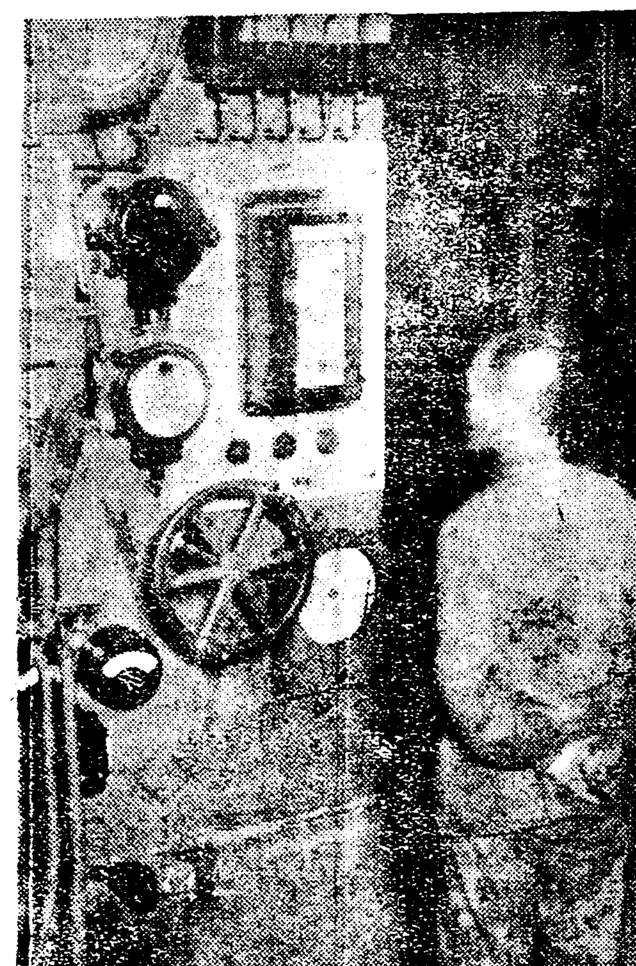
이타-빈을 돌니기 위하야는 첫재 한강물을 쓸어올려다가 수원지(水源池)에 담아서려과(濾過)를 한후에그물은『보이라』에넛코 그다음 그물을끌이기위하야 석탄을 운반하는것인데 석탄을 운반키위하야설비된 긔계는 실로놀내일만콤굉장하다 그리하야 보이라의증긔는 발전실로 넘어가『타-빈』은 도라가고 식은증긔는응긔실(凝氣室)로드러가 증류수(蒸溜水)가되며 증류수는 다시도라보이라로 들어 가게되엇다이발전소 문안에 드러서면 석탄을운반하는 크기진재가는『탕크』가굽거 사오십척되는 공중으로 부터괴상한 음향을 내이며긔게로쉬왕래하며권양긔(捲揚機)는공중으로부터 흉악한 맹수와가티큰입을벌니려도 벌니고 이따금벽력가튼소리를 질으며 웅축이는데 보기에도 소름이 끼칠만큼무서울뿐안이라 저긔저장치(貯氣裝置)배전긔(配電器)등에는 멧천멧만『키로』는고압전긔(高壓電線)이 거미줄가티 느리어 잇는것으로사람의 생명이 엇태만 하나씩노동안에가숨으로사라진다

○

지난달십구일에도손은덕(孫恩德(三)이란직공이 놉기사오십척되는곳에서석탄탕크에석탄을옴기다가 발이밋그러저 그탕크에빠저죽은일(긔위보도)도잇거니와 이와가티무서웁고 위험한 속에서도정진노력(精進努力)하는직공은이 발전소안에모다오십명가량이잇다 오십인중에서도 십여명은석탄운반에 종사하는데 이부분의직공은 겨우사십명가량박게 되지안는데 이십명식 대를난호아 주야로 교대케된다 주간(晝間)에 작업하는 직공은 아츰여덜시로 커녁여덜시까지 야간(夜間)에 작업하는직공은 커녁여덜시로부터 그잇흔날 아츰여덜시까지 공포! 전률을늣기는 긔계바퀴도라가는 음향때문에 피차말을하여도 통하지못하며 몸짓손짓으로 의사를통하여가면서 매일열두시간식 로동을하고잇다 커녁여덜시부터 그잇흔날아츰 여덜시까지 열두시간이라는 긴시간을 음침한공작속에서 거츠른벤또한그릇으로 주림을참으며 엇태하면 생명의위협을밧는 그들의참담한광경은 보기에도 딱하리만큼 얼굴은모다 창백색이오 사지는 느른하얏스며 의복은 기름과석탄재에 절엇다 그러나 그들은졸리는눈을부비며 느른한사지에 최후의 힘을다하야 주린배를 움켜쥐고 정진노력! 새해의 갓붐도자긔네에게는 아모상관이 업는것가티 긔계를 붓들고 악을쓸뿐이다

○

그들의 정신노력한 보수는 하루(열두시간로동)에구십전가량으로부터일원 이삼십전이 보통이오최고 이원삼십전 가량을 밧는사람도 잇는데 이공장은금년십일월부터 새로히 개설된공장이나그직공들은 마포발전소(麻浦發電所)에서부터이십년동안근속(勤續)한사람이세사람 십년이상근속한 사람이 칠팔인이나되다고하는바 이십년 십년이 하루가티 일분동안에 삼천륙백번식 『타-빈』을돌리기위하야 그들은눈이오나 비가오나 주년이가고새해가왓스나 쉬지안코 괴롭음다하야 정신노력을 계속하고 잇슬뿐이다 (사진은발전소의로동자)



雪路에木材運搬타가 一名卽死、三名重傷
눈길로목재를운반타 平北慈城에慘事

【慈城】 평북 자성군(平北慈城郡)니평면하죽암동이란곳은 수목(樹木)이 울창한 산골작이라 지나간해부터 목재를채벌하

에 중국인한명는 나무에서떠러져 장에서즉사하고 또한명은 팔이 불어지고 조선사람연명은 다리가 부러젓다고한다

日曜講話
(一月四日)

▲三新洞敎會
午前十一時
新年의決心 金明性氏
午後七時
丹心은無所不能 金明性氏
▲中央禮拜堂
午前十一時
예수는우리生活의中心 金昌俊牧師
午後七時
唯一한길터 元興均先生
▲中央基督敎青年會館(午後三時)
新年에는 吳謙英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成功의基礎 辛怡官牧師
午後七時
團體의힘 金永燮牧師
▲覺皇寺(午前十一時)
眞理의王國 金泰洽氏
▲向上會館(午後二時)
새해마지 李智先氏

鯨六百餘頭 漁夫들이捕獲
고래륙백마리를잡어 銚子海邊은大混雜

【銚子電報】 신년벽두일본 조자(銚子)라는 해변에는 약일천의 고래떼가나타나 록도(鹿島)해상에서 바다물을 공중으로 뿜어올니며정렬한 행진을 하엿다는데 이것을 발견한 그곳어부들은 천여척의 어선에 호과라하야 발동선이십여척을동원식혀가지고 해상에서 약삼백마리를 잡엇다 그가운데 약삼만원이상 어치에 달하리라는바 록도탄해상에서 고래의 피로인하야 일시바다물이 붉게되엇다하며 이것을 구경코저 각처로부터 모혀드는사람이 싸여 조자근에서 큰혼잡을 일우는중이라고한다

賃金引下로 七十名이盟罷
임금을사할이나인하하여 釜山福島製網詳報

【釜山】 부산복도에잇는복도망공장(牧島網工場)녀직공(女職工)일백사십명중 본목긔계부직공(本目機械部職工)륙십팔명이지난 삼십일일 오전열시반부터 동맹파업(同盟罷業)을단행하엿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바를듯건대 금년 오월에도 임금이할인을 하엿슬때에도 동맹파업을 단행한바잇섯는데 그당시 공장측으로부터 구시월이후면 다시직공들에게 통지하여 종전대로지불하겟다 하엿슴으로 파업한직공들은대다수가 복업하야 오든바 금료지불일인 지난삼십일일

다하엿슴으로 파업한 직공들은 대다수가 십일월일일부터 복업하려하든바 지난삼십일일은 임금지불날에이르러 돌연히 이할이나인하한 거긔다 또사회비이나인하되엿슴으로 종래의 임금표준을보아 보통임금이 이십전내지 사십전이요 그중십년간이나 근속한직공이 불과오십전 이란법금에지나지 못하든바 거긔에다 이할이나 인하를당케되면하로열시간이상로동으로이십전내외의표준이 됨으로 이로서는생활할수없다는 리유하에그와가티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는바 공장측의태도도역시 강경함으로 형세는점점 험악하여간다고한다

『貳十錢內外의 日給으론못산다』
◇罷業한某女職工談

【釜山】 본래부터재망공장의 임금이란 참혹하엿슴니다 매일 열시간이상을 로동하고 불과이십전 더구나 십년이상이나 된 직공도겨우오십전이란 일금에지나지못합니다 수년래로 우리직공사이에 공장의 횡포를 비난하며 또임금에대한 말청이 만혀왓슴니다 금번오월에도 임금을 인하하기로하야 일제히 지안혓든바 로출러이니일을하여달라하기로 일하엿드니 종전대로주기는커녕도로혀이할인하한거긔에다가 또사회이나 인하를 보게되면아모리하여도 살아갈수가 업습니다 신발도되지못하니 차라리 그만두는것이 나흘것 갓습니다 고한다

賃金세음하라고 六十餘名이殺到
삼십일일에공장으로 雇主의態度도强硬

벽항보도와가티 직공측은 그동안공장장에게 진정을하고 호의로 교섭을하야오든바 여태까지 강경한태도로 조금도 양보치안코 공장측은 더욱굿세게 대하야오는중 아모리하야도 원만해결을보지못할것을 예상한 파업단은지난삼십일일 오후한시에 륙십여명이악오리나되는곳인부산남빈정(釜山南濱町)에잇는복도공장본점(福島工場本店)에쇄도하야 종전대로임금을 주지안흐면 퇴직할터이니 그간의 일급을 계산하는동시에 오늘라고온도선비(渡船費)까지지불하여달라고 륙박하자 고주측으로부터수일정식으로통지하겟다함으로 무목이동여섯시경에야모다도라갓다한다

스피드競爭

【倫敦一日發】 영국비행구락부(英國飛行俱樂部)에서는금년도『슈나이다-컵』쟁탈비행경기(爭奪飛行競技)에불국수상긔(佛國水上機)삼척이참가하겟다는 통지를밧엇다는바 이로써이번경기에 출전할비행긔는 이태리(伊太利)의삼긔 영국의 사긔 불국의삼긔로써 바로영불이(英佛伊)삼국이 세계최대의『스피-드』경쟁에 공전의 백열전(白熱戰)을연출 하리라는바경기는작년의 경기장이든『쏠렌트』에서거행되리라한다

핀셋트

▲미국의『쏘-지、크라일』박사는죽은세포(細胞)와무생물(無生物)에게생명을주는비법(秘法)에성공하얏다 ▲만일그의학설이현실적으로응용되어 이간이생각하는바와가티생물을 마음대로 맨들수잇다면▲종래의우주의비밀은봄눈녹듯이 녹어버릴것 ▲누구보다도이학설에 공포를 늣길사람은각처에 쎄쭉쎄쭉 서잇는례배당의주인들이 아닐지 ▲일본『쏘시』해변에서는고래륙백마리를잡기에뷰에 바다人물이 새빨개젓다고▲돈도조치만새해부터살생은 그야말로 례배당의주공들이란실일볼이야!

二萬圓豫算으로 開城에博物館
송도의고적유물을보존 新春부터工事着手

시금의개성부(開城府)는 사백칠십여년동안 고려(高麗)의수도(首都)로 명소구적이 풍부할뿐아니라 고래의미술품이 도처에산재한데 금년에는 그귀중한미술품이하나식둘식다른곳으로빠저어나갈뿐아니라그곳에잇는미술품이라도 여긔저긔 헛터저잇슴으로 그진가(眞價)를 발휘할수업는형편이라는바 개성부에서는고려조문화(高麗朝文化)의산일(散逸)을 막기위하야 [illegible]이만원으로박물관을 건설하기로설정하고금춘해빙을기다려공사에 착수하기로 되엇다는데 이공사가 준공되면각방면에산재한고려시대의물품들이 곳에수집될계획임으로고적문화연구가에는 비상한편리를 엇게되리라고한다

뉴-욕에怪盜 二萬弗을奪去
白晝『쎌딩』에出現

【뉴-욕電】 새해마지에분망한뉴-욕의 대극장、大劇場、에 괴도사건(怪盜事件)이잇섯다 위치는 일본은행(日本銀行)정금은행(正金銀行) 등의일본의은행회사가 만흔 유명한『월』가(街)의『에퀴다불『쏄딩』안에어복상하기와이업섯는데 동『쏄딩』안에 잇는일주식점(株式店)의점원이 약이만불(弗)(약사만원)의증권을가지고 캐칙층、서도내려오는 층계를 통행중에등뒤에서 하명의괴한이 나라나서 그를 넘어트리고 증권이들어잇는가방을 탈취도주하얏는데 긔중험은만분의일이 고명(無記名)으로 즉시처분할수잇는것 이

病衰者와 虛弱者의 補材藥은 眼鏡印肝油
안 경 표 간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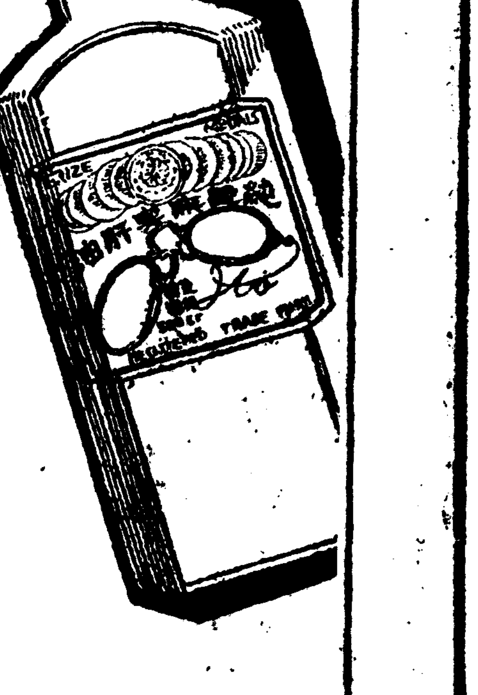
藥書申込者에게効能說明書贈呈함

特히眼鏡印肝油를推選
(특 히 안 경 표 간 유 추 천)

황공히 안경표간유(眼鏡印肝油)는 특히 텬람(天覽)의 광영(光榮)을입은 그품질이극히 순량(純良)하고인공(人工)을가(加)하지아니한 텬연으로 풍부한영양(榮養)「비타민」A와 D를 함유(含有)하며 큰규모의공장에서 정선「精選」한순량품이고 또여러 십년동안의 귀중한경험과제품의 신용으로인하야 특히 광도시학교위생의회(廣島市學校衛生醫會) 삼전곡치료교육원장삼전곡게박사(三田谷治療教育院長三田谷啓博士) 동경시사회국아동게장광뢰흥박사(東京市社會局兒童係長廣瀨興博士) 동경시교의 강전박사(東京市校醫岡田博士) 조취적십자병원중야박사(鳥取赤十字病院中野博士) 들을비롯하야 전국 전문의가의추상(推賞)을 엇게되엇습니다

肝油의効力
(간 유 효 력)

사람의 몸에업지못할 영양소「비타민」D는 태양의 자외선(紫外線)에서 구하는 외에사람의 몸에서엇기는 도저히불가능한 일이엇스나 간유는텬연적으로 극히 만흔「비타민」D를 함유(含有)하얏는 동시에 풍부한「비타민」A를 가지고잇는고로 쇠약한사람 중병후항상 허약한사람 산전산후에 쇠약하야가는 부인과어린아해의 모든경증에 매일족음식 속복용하면 근본적으로 그테질이 일변하야 속히건강테(健康體)가되는것입니다



適應症(적응증)

(慢性貧血)(몸에피가적어지는병)
(病後虛弱症)(병알은후에몸이허약한데)
(榮養不良)(영양이조치못한데)
(惡性流行感氣豫防)(독성유행감긔의예방에)
(神經衰弱)(신경과민되고심긔가울울하게되는병)
(心身過勞)(정신과몸이너머피로한데)
(肺結核)(결핵청페병)
(産前産後의衰弱症)(산전과산후에산모의몸쇠약한데)
(小兒의諸衰症)(어린아해의모든경각증)

大阪市道修町
發賣元 伊藤千太郎商會

「松岳水組設置反對決議」

地主大會열고서

관개수원이풍부함으로 수리공사가필요업다고

【牙山】 충남아산군송악면온양(松岳, 溫陽, 排芳, 湯井)등사면에 홍리구역으로하는 송악수리(松岳水利)조합을창립키위하야 당국으로부터 착수하엿슴으로 해동리다 몰후역 내외지주들은 지난삼십일일오전시부터 상평(上坪)지주오십여명은 동군송악면역촌리권분(驛村里權分)의집에회합하고 하청(不耶)지주들은 동온양면좌부리리종락(溫陽面左部里李鍾洛)의집에회합하여 동수조창립을 절대반대키로 하고군(郡)에 반대키위하야관계당국에진정키위하야 전정위원까지선정하엿다는데 반대리유는 해지방은본래토지가비옥할뿐만아니라 산고곡심(山高谷深)하야 수원이풍부함으로 재작년가튼한발에도 하등의지장이업시관개하엿슴으로 수리조합이필요가업다는데 권리유는 반대한다는데 권리진정위원의씨명은다음과갓다한다

◇陳情員 李熙相 李衡永 李俊鍾 李用瑜 安炳都

仁川勞組大會

의안은금지

【仁川】 긔보한바인천로동조합(仁川勞働組合)에서는지난일일오후두시부터시내금곡리(金谷里)복영루(復永樓)에서 정긔대회가열이엇는데출석회원은백여명의 대만원으로 정각에권중일(權重一)씨의의미심장한개회사가잇슨후 의안을 진행하게되바 본조합으로서의원래진행하랴든 의안은 대내대외(對內對外) 정세보고와미조직대중의흡수(未組織大衆의吸收)의건과 또는긔타중요사항 츨분축사등 순서가잇섯스나 이것은 인천경찰의검지로삭제되당하고 (一)재정보고 (二)예산편성 (三)규약개정 (四)위원개선등의안만으로권중일사회아래 의사를 진행하엿는바 제사안인위원개선에 들어가서 …

金泉電氣賠償

五千圓用途報告

상공회에서세밀히

【金泉】 경북김천(慶北金泉)에서작년 팔월경부터 전긔쟁의사건(電氣爭議事件)이일어나서 약오개월간을 두고쟁의가 계속되여나오든바 거년 십이월십일에이르러서 드듸어 해결이되엿다함은 그당시보도한바와 갓거니와이제 수일전에 김천상공회(金泉商工會)에서전긔회사로부터바다드린 배상금 오천원의용도(用途)를분반전긔수용자에게 밀일히 보고한바에 의하면다음과갓다고한다

一金五千五百十圓也 決算報告書

內譯

一金五百十圓 借入金

金一千圓 大興電氣株式會社로부터受入金

金四千圓 大興電氣株式會社로부터受入費用의一部

割金 金泉運動場建設費에支當額을金泉運動場建設費로부터受入費用을控除하고殘額

支出之部

一金五千五百十圓也

內譯

金三千六百十五圓二十六錢 金泉運動場建設費指定寄附金

金百十六圓十三錢 會議費

金七十四圓三十錢 大會費

金八圓四十八錢 通信費

金五十六圓二十錢 旅費

金五百十圓 借入金返濟

金八百五十圓 …殘高

金北郡內에

毒感이蔓延

【金化】 금년겨울에들긔는온화하엿는데봄과가타서 간간히 비가나리다가도돌변하야 혹독한 치위를보게되엿는지 김화지방 일대에는혹독한류행감긔가만연되여집집마다환자가업는집이업는데 일반은크게우려중에잇다고한다

●大新市婦女夜學=【端川】 함남단천군대신시리선익(李先翼) 리경태(李京泰)김동종(金東鍾)씨가 …

▲執行委員長 崔思一 ▲書記長 李應洙 ▲組織宣傳部 朴浩謙 李斗翮 崔昌淳 ▲教養研究部 李昌輔 安文植 金炳山 ▲爭議調査部 李弘淳 金好果 金小成 ▲財政部 尹千爵 宋元燮 李化燦 ▲靑年部 權文容 孫千萬 金應燦 ▲救護施設部 金內化 崔順鳳 宮櫃 ▲常務委員 尹千爵 權文容 金內化 ▲檢查委員 金聖奎 盧天命 李光植

陝川記者同盟

創立總會

합천서 긔자동맹을 발긔하엿다함은긔보에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창립총회를 삼십일 오후두시에 당지중외일보 지국에서리서의장으로정순영(鄭淳永)씨가 피선되야 다음과가티 규약과의안통과와 임원선거가 잇섯스며 동넘우최로 송변회를 개최하려든것은 사정에의하야 당분간중지하기로하엿다한다

任員

委員長 鄭淳永 庶務兼財政部 李周洪 調査研究部 盧光祚 卞勳 主 盧暎淳

規約(略)

議案決議事項

一、言論에關한件

二、現行新聞紙法出版法에件

三、郡內朝鮮人經濟狀況調査件

四、地主對小作人爭議의件

五、郡行政에關한件

六、事業에關한件

七、教育問題에關한件

濟州에怪靑年

警察이檢擧

【제주】 지난이십사일경에제주서에서는 자동차편으로 시내수사에 나갓든 신사가 잇섯는데 그놈은 일본으로부터온 독지사람이엇스며 그날후현국에서 조선경제요로사람에게 건강을빈다는 안부전보를 부친사람이잇섯는데 그날경찰서에 이삼인이검거되고 이래조사중인노양인데 그는박동완(朴東燦)이란젊은청년으로 자긔는부산에 산다하며방금동경에서 영주회(瀛洲會)를조직하고 고문으로두산분등 십여명사들과열하고 회의회지는제주도 사람이 만히을가하고잇는데 불온긔로 널어나는실상을방시하고 호상친에 사상경향을선도 하다는의미의 것인데 제주에둘어와서 지방으로 얼마도 다니다모양이고 구구한 풍설이돌아다니나 아즉 내용은확실히알수업다 한다

郷約所問題로

縣民大會開催

◇……이주민대표들은 長白縣長에게陳情

【惠山鎭】 국경대안둔대령창장백현(長白縣)내에재주하는동포는만삼천 륙십호명에라는만흔사람을 가지고잇는관계로중국당국의장백현(長白縣)에서는 금년륙월까지 장백현을칠개구로분하고조선면장(朝鮮面長)과 구장을두고 동포에사무를대행코자향약소(郷約所)를둔후 월체사무를 보아오든중 수개월이 지나도록면장들의 횡령(橫領)사건이 발생하야 현민대회(縣民大會)를소집하는등 일대파란이 잇슴으로 현당국으로부터 향약소를 폐지하는동시 학교도현립교학교(縣立小學校)에편입하얏든바 그후 동포에 불편한점이잇다하야 약소를 복구하자고 수차현는데 히를개최하고 현장에게 진정하얏스나 하등의효과를 보지못하야 일반재주동포들은 현당국에 커처를 주목하든중 지난십일월일부로 장백현 제일구향약소(長白縣第一區郷約所)장으로 잇든 탁창규(卓昌奎)씨를 장백현도향약소장(長白縣都郷約所長)으로 임명하얏슴으로 동포는 은 일만사천여명을 커리할수업는이를이라하야일반의몰론이자자하든중지난십이월이십이일오정에 장백현민대표이십여명이 권그면장 탁창규씨집에모여 현장을방문하고 긴정하는동시 잡방공동관현들 포섭을들여 금후철대모장하야줄것을 요구하고 오후네시경에 퇴칭하고 밤팔시반부터 면장탁창규씨집에서 현민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일체는커 는 다시현민대회를개최하고 동과하기로하고 동심이시에 폐회하얏다고한다

차에傷한女子

四日만에死亡

제주도에서

【濟州】 타고가든 나차가권복되며 타고잇든녀자삼 이 중상을당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심하게다친 홍경운(洪慶雲)(三三)은 신음한지나흘만에 다친것이 원인으로 급성폐염을 일으키 지난이십구일 오후누시 반에절,했다는데그녀자는자식이란녀석들뿐이고 객지인청년도립병원에서 죽게되여 그날밤고향인금청으로 운구했다는데 일반은 차의 위험을 여간비난치아니하며 이에대한 회사측의태도를 주목한다더라

西井勞組紀念

변한보도한바와가티 정긔대회가 잇나자당시래회관(泰和館)에서 제일주년긔념축하식을집행위원남상환(南相煥)씨의개회사를비롯하여 개최하고 보회연혁보고와운동전개방침급후정세보고의 당이잇슨후 조합원의 열렬한감상이 잇슨후 다 십삼일오전 엿시십습에 박수로폐회하고 만찬회가잇섯다 한다

執行委員長 南相煥 庶務財政 部 朴炳喆 吉順龍 組織宣傳部 金學峰 金昌培 教養出版部 關庶基 南相煥 教育部 部 昇玉 盧利根 爭議部李 南龍 盧相岱 檢查委員 孫長榮 峰 金學敬

●養豚部落觀察=【三陟】 지난 이십삼일 삼척공립보통학교 생도(三陟公立普通學校生徒)오십명과 동교직원이오십명이 도변교장과 이동기수인솔로 삼척면우지 리북삼번다안리 송정리(北三面羅隱里松亭里)양돈부락 (養豚部落)을시찰(視察)하엿는데 정적이라안리(羅隱里)가 량오하엿다고한다

◇議案

一、未組織大衆獲得에關한件

一、本會維持方針에關한件 一、會館革新의件 一、規約修正의件

一、會費徵收의件 一、會館問題에關한件 一、自治勸誘의件 一、運動方針樹立의件

執行委員

상환(南相煥)씨개회사장 김영상(金永祥)씨의 정과보고가 잇나자 축전축문을 랑독하고 수원장변한후각 (南州)씨의 정긔대회를 아개최하고 서기장 집행위원 조명제 동명오산시부 집행위원 고남상환씨의 국내국제 정세보고는 팅실히 보고하엿는데 국제정세보고는 리석 통당하고 의안토의에 드러가야 렴외가튼 계반사항을 토의하 후 위원선거가 잇나자 다섯시삼 십분에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엿 다한다

結婚問題로

靑年自殺

부모가약혼한데와 불합하여서

【醴泉】 경북례천읍내 노상동 (醴泉邑路上洞)황영수 (黃泳洙)의맛아들 인영한(永漢) (三)이란 청년이 지난삼십일 새벽에 쥐가 고요한 때를 타서 리방에서 잠들어게도 자긔의허리끈으로 목을매고 자살을하였다는데 그가티 젊은청년으로써 사살하게된원인을 듯건데 그는지 금으로부터 한달전에 권긔영한 을 안동군 풍산면 (安東郡豐山面)로처녀와 약혼을그아버지가하엿는데 영한은 그보다나흔것을구해달라는 요구를 수차 하엿다

남에주물오정목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에잇는 매화광업주식회사(大和鑛業株式會社)가경산군 (慶山郡)을하거더야 외선동면오이는 호명시장(湖山市場)으로부터 풍과리의외사이의 이십리되는 도로를개수하고 동회사에서는 사천원을들여 되인면당국 (面當局)과 무역을통부터 회사에서는 불응하고로인하야 공(公)을 위하여 잔칙하였는데 연은비몰사(沒收)하고잇다한다 사월경에는 계속발굴하엿 고한다

리집으로도 다 단이아니 하는 것이 여간다 지도지 아니하든 아버지에게 하엿스나 종 집안 사람들이 한탄하는 나 자긔의 전신에게 들어 혼인하라는 것 다 가진은 로 그가라고 한다 자꾸 우겨 말도나 고 하여 고 한 것이라고 한다

大邱癩病者

相助會總會

【大邱】 조선리병자상조회대구본부(朝鮮癩病者相助會大邱本部)에서는지난삼십일일오후두시경 경북달성군 (慶北達城郡)의 면내당동본회관(本會館)에서 각지로부터온집한다수 회원의 참석으로 회원장리명용(李孟龍)씨의사회하에계십 회원장리명용 제반사항을 토론하고 맛진후금의사항과위원개선을 장끗서로 가결하고 동시삼분에 부사페회하엿는데 금의사항과 임원선정은아래와가다

一、會員新入에關한件

一、會員除名에關한件

一、會員治療豫定에關한件

一、會員中重病者救濟에關한件

一、各支部勵結에關한件

一、各支部長會及巡廻의件

一、地方宣傳에關한件

一、本會維持에關한件

九、委員長 鄭其南 內務委員 金澤 外務委員 李孟龍 衛生委員 林鍾治 宣傳委員 金善宗 地方委員 金萬龍

범의어금니 (116)

苑洞人 譯 駱山生 畫

절망 (六)

이러케 되고보죽 부렬라의 머리속에는 다시 쌔우쳐지는 것이 잇섯든것이다 그것은죽 뇌히 생각하야 나가는가온데 그녯날 왼부속에 숨어잇든명 윤석배작의 조상이 엇더케하야 살어잇섯든가 하는리유가 스사로 명백하야지는 것이엿다 즉 그녯날은 그비밀통로와 현재의진화실(秘室)과 의사이에 련락이되야잇섯든것 이 돌팀 날셋든것이다 사람이 통하야다니기에는 넘어나좁으나 공긔의류통에는 충분하얏든것이다 그리하야 만일 그 비밀통로가 발견되는때에는큰 돌을가지고 교묘히 장치하야 노흔 이굴이으로 몸을감추게 되야잇섯든것이다

그럼으로 경찰의그물을 버서나려고 초조하는 한마음에 서 그는우연히 벽가온데도뛰여들어가지고 이곳에 갓치게 된것이다

이가려하야 또다시 몃시간은 지나처갓다

그러는사히 괴갈은 컴컴심하야젓다 그러하야 이우에더 울죽읽고운을 일흔그는 맛참내 깁이 잠이드러버리고말엇다 멧번이나 악몽에쌋기여눈을쏀이려하엿스나 심한굼주림과 피곤으로발미아마 극도로 원긔를일흔 그는 마음대로몸을 운전하지못하고 밤여덜시경쓰지나 그대로 내치어자버리고말엇다

눈이 쌔엿슬째에도 피곤과 권태는 여전하얏다 아니 오히려 더한것가텃다 그와동시에 그의머리속에는 별안간번개가티 나붓기는 그무엇이잇섯다 그는 흰신을 응답하는 공포에 몸서리를쳣다 그러하야 그는 빌렁 경찰의손에잡히는한이 잇더라도 이곳으로부터 빼커나가야겟다고 결심하얏다 엇더한일이 잇다할지라도 몃시간동안을두고 그의몸과마음을 짓눌은 고통과위협보다는 나흐리라고 생각하얏든것이엿다

이러한 생각을가지고 그는 몸을일으키며 런커지리를 탐구하야 보앗스나 그러나 어다집어넛든 몸을쑥이여보앗다 그러나 태산가티 박히인그돌는 조곰도 움죽쥐줄을 몰넛다

『이것큰일낫고나! 엇더케하얏스면조흘가?』 고쳐면서 그는다시 여러가지로 시험하야보앗스나 역시실패하얏다 심지어 그돌틈을주이는 긔계장치까지도 그근처에서 발견할수업섯다 그는초조하는남어에 다시한번 전력을다하야 그돌을 밀치어보앗다 그러나 모든것이허사에돌아가버리고 말엇다 돌은 의연히 움죽일줄을몰넛든것이다 오죽 힘쏠쓰면 쓸수록 위에서인벽돌이 힘으러지내려와 굴만 컴컴 좁어주다름이엿다 그는 가슴에 복밧쳐올으는 울분을 엇제하기위하야 전신의용긔를 다하야가지고 한번 열렬우섯다

『못타! 이럭케 된다음에야 별수가업나 구원을 청하는수밧게업다 이나―루반에라는사름이 경찰에게머하야 구원을 청하는것이다 그럿치아니하면 나는 생매장을당하야버리고 말것이다 그러니 야버리고말것이다』

그순간 그는 무의식적으로주먹을쥐며 다시불으지젓나

『무엇 그러나 나의힘으로나 가톨러이다! 구원을칫하다니? 세상업서도 그럿케할수는업다』

그와동시에 그는 전신의용과를 다하얏다 그러나 피로와 괴갈이 극도에달한그는 무엇 하나 완전한생각을 머리속에 그릴수가업섯다

그의눈압헤는 화실의얼굴이 나타나보이엿다 그리고 마리아의얼골도……

『두사람을 구하지아니하면안될섯가는 오롯커녀을 놋치고는 업는것이다 오나! 나는 작정코 그돌을 구하야 내어고야 말터이다 나는 그돌의 무죄한것을 알고잇다 그리고 진범이누가지 도알고잇다……그러나 석공인것인가?』

忘年會席上의

感想談이不穩타고

靑年等檢束、解散命令

길주경찰당국의처치

【吉州】 함북길주(咸北吉州)에서는 길주청년동맹 덕산지부(吉州靑年同盟德山支部) 주최로 금천시(錦川市)에서 망년회(忘年會)를개최한바 각우의단체(各友誼團體)대표다수의 참석으로도 머청황리에 개최되엿스며 감상담에 일으러홍금을 토한불평은 림석정관이 불온타고 인정코 즉석에서 수명의청년을 검속하게되엿스며 공가가 험악하게된 일인중한 경관들은 본서에응원을청하고 다수경속자를 내이게 되자 림석경관은 즉시해산명령을명하엿스며 리북률(李北律)외한명은 그의일에 길주본서로호송하엿다 더라

西井里勞靑을

組合으로革新

【平澤】 평택군서정리(西井里)로단결은 우리의진정한 무긔이라다 리스토기 는움컷고지난이십구일오후 여덜시경에 정부선서 정긔역건에잇는서정리로동조합회관에서는 제일회 정긔총회를남

洞民들이

區長을亂打

비행을결책코

【鍾城】 평북자성군장토면룡암동(龍岩洞)에서는지난십이월십칠일 오전십일시부터 당지개량숙내에 동민다수가 회집하야당지구장김봉○(金鳳○)을구타한바 동일오후십시경에 컨긔구장은 못구려움을 이기지못하야 야간노주를하얏슴으로 그의가족는 각방으로 탐지하엿스나 간곳을알수업서 소활경찰관주재소에 동민을상대로하야 고소김수색원을 제출하얏든바 그자세한원인을탐문한바에의하면당지개량숙교사개집의건에대하야동숙장리의○(李儀○)씨와수장이필의하야 보숙에 아직도채살미만의 청도를 교사로채용하얏다는 말이회중의 자긔의아들되는 열다섯야 사흘동안이나 교수까지하여오던중 을반하부형은 말하기를이는우리학부형을 무시하고가인의사정에만 쏠리운다는리유하에 숙장과 구장을 한곳에모우고부한히질책타가맛참내동민회정호리하기리찬양(崔京鎬李昌慕)씨는 단지 자긔의 대가리는 뭇질을하고 심지 박사가그리우드라는 말을 하여지로 구타하얏습니다

生活難으로

飮毒自殺

대전에서

【大田】 지난십이월이십륙일 충남대전군 유성면봉명리(大田郡儒城面鳳鳴里)에서송홍준(宋欽俊)(四)이라는사람이양재를 마시고 무참히도 이세상을떠나고말앗다는바 그자세한 원인을조사하야 보건니 금년의대풍작과곡가가 폭락은그에게 무근채무와 소작료를 지주에게납입을 여유를주지못하야 포악한 채권자와 지주들의 빗밧가든독측에 참을내야 참을수업섯스며 먹고살내야 컥을것이업슴을 비관하고이를밥엿든 세상에서 고생으로지나기보담 차라리 죽는것이 편하다는 생각으로써 이세상을 떠나버리고만것이라한다

停電頻發로

市民非難沸騰

김천전긔회사

【金泉】 경북김천(慶北金泉)에서는 지난이일 오후륙시오십분경에 돌연전등이 써저서약 세게로변하여 버리고 말엇다는 데 이로인하야 각상점과일반권등수용자 집에서는 일시대혼잡을일우엇다는데 근간에 자조정 전됨으로도 일반 수용자측에서는 손해가만타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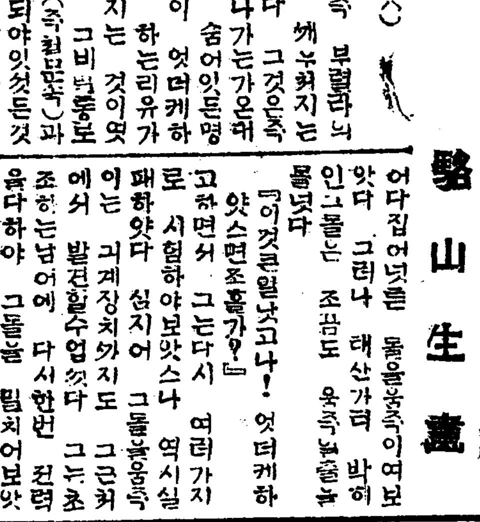
遠德面豐谷里

亞鉛鑛發見

品質良好

【三陟】 삼척군원덕면풍곡리(三陟郡遠德面豐谷里)에근아연광산(亞鉛鑛山)을발견한후각컨문가와긔업자(專門家企業者)들이모여들어 시험한 여본결과 질(質)도나량(量)으로나가장우량하다는데 지난사월경에 정형부희에서는 …

石 封切
꿈을이저버린사람
京城 朝鮮劇場 特選



新年號 三千里

激感한作品

『三人』과復活……崔曙海
女子의一生……崔獨鵑
石油와唐詩……朱耀翰
即興詩人……金岸曙
실렐의월니암텔…파인

人世의悲慘! 銀姬哀史
비련극자다가죽지도못하고칸페의女給으로잇는銀姬의눈물의記錄
畵家白南舜女史
街頭의藝術家 舞踊家崔承喜孃
裵龜子의푸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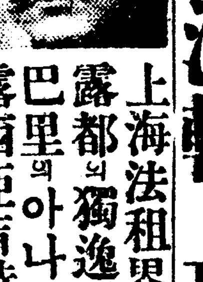
▲樂壇女王 尹心德孃不遠歸國說……金乙漢
(五年前愛人으로더부러情死한尹心德孃이方今西洋留學中으로不遠에錦衣還鄕하려한다는古의風說에對한長文!)

新刊好評
李光洙作 革命家의안해 定價三十二錢
朴英熙著 小說評論集 定價三十二錢
春園요한파인 詩歌集 定價六十四錢

近刊豫告
崔曙海作 紅焰 定價三十二錢
金東煥著 半島山河 定價三十二錢
歌曲集 海棠花필때 定價五十錢

三千里社發行 先金以外注文謝絶

新幹會解消問題批判
●●階級聯盟의歷史的制限性의問題……洪陽明
●●全國的解消와時期……朴文熹
百五十支會、二萬有餘會員을擁한朝鮮最大의結社가된今日解消說에直面하게되엿다。果然우리의情勢는新幹會의解消를要求하는가? 拒斥하는가?



萬國에流轉하는亡命客群
上海法租界의孫逸仙……李光洙
露都의獨逸처녀도킨女史……金世鎔
巴里의아나系畵家……李晶燮
露西亞盲詩人……金東煥
世界를휩쓸고나선大萬中에 호르는一代風雲兒들은 다 어되잇는가?

三井王國과朝鮮(外來資本總觀)……洪性夏
○上海通信……林元根
天道教統一과大勢……心耕學人
民族代表選出問題
認識合致와代表……金炳魯
發言權과表決權……安在鴻
經費各團體負擔……崔麟

募集 懸賞百圓
選上運動 紙上擧
長 長 長 員 朝鮮日報社 中外日報社 東亞日報社
新幹會委員長 朝鮮日報社長 東亞日報社長

新幹會全體大會光景……金起林
代表選出과監視……鄭雲永
國際會議와代表……李晶燮
重要團體의協議……宋鎭禹

섹나가는大利權……金東進
●●露西亞의戀愛와賣淫……遠東學人
●●牙山의古戰場……파인
印度나이두女史……鄭寅燮
財閥總解剖 閔泳徽氏系千萬圓……申泰翊

定價廿錢
各處支社募集(內規進呈)
記代年中一圓十錢、一年二圓(先金注文以外代金引換謝絶)
京城仁寺洞十九 三千里社 振替京城四二八四番
發行所 總販賣 市內 以文堂

二月一日낫부터四日
유나이뎃도社超特作名畫
미나도座
리모아氏主演
내가만일王者엿더면
와나부르더스大傑作 륀도볼유氏主演
陸路百萬哩突破 全六卷
南海의血潮 全七卷

一月一日낫부터 四日밤外지는
스파벤타 八卷
黃金虫 七卷
一月五日낫부터
運幸王달마 十一卷
●○□△社超特作品
아리랑그후이약이 十二卷
羅雲奎 李鮮龍 尹逢春 柳新芳 南宮雲 李圭高諸氏主演
●○□△社特作品
鐵人道 八卷
羅雲奎 林容鶴 朴齊行 朴遠鶴 金 讓鶴諸氏主演

常設 團成社 電話光九五九番
廣告 注意해보시요 記事이오니
一月一日낫부터特別大公開 四日間晝夜興行
○파데社大突破로冒險活劇、스피드 週間을보시라!
謹賀新年
○파데인다나손녈社特作
猛進勝利 全七卷
監督……랄스 인스氏
大活劇
○파데인다나손녈社超特作
마카레드리쎈크스도뇌
監督 도날드크리스포氏 主演 루드라 롯크氏
大冒險 大突擊 全八卷
大活劇
○파데인다나손녈社超特作
男性의鐵拳은萬里에번쩍이다
雄壯無比의大映畫!
列車 熱車輪 全九卷
監督 알다 란 크氏 主演 윌리암보이드氏 죠비나랄스톤孃
料金 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어린이十錢
豫告
一月五日낫부터이저버렷든일골(七卷스포스劇)青春狂想曲(十卷探偵活劇)암호뭉―란(八卷戰爭活劇)異教徒、亞細亞의大動亂、산다볼드、火輪、叛逆者、暗黑街의女子、크럭크將軍
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一二八一

一九三〇年의朝鮮經濟

恐慌과豐作受難 (四)

金解禁과米價暴落의二大事實

裵成龍

그런데年의 一千三百七十九萬에比하면五百五十萬石의增收이오平年作千五百萬石에 比할지라도 四百三十萬石의增收이다 거긔에다가 日本의豐作도 六千六百八十萬石이다 平年作에比하야서 約七百萬石의 增收이라 이는 朝鮮과 日本에서난 未曾有의 數字일뿐아니라 大量의 生產過剩을 免치못하게되얏스니 그豐穰前부터 暴落이든米價는急落하게되얏다 이로부터米市場은恐怖的人氣에싸이게되야日本의期米가十二圓臺를出하얏슴을따라서仁川도十二圓臺외지에떠러젓다 이로부터反騰하야 十三圓九十錢에까지 이르럿스나正米市勢는 더욱軟弱할뿐이엿고다시日本米穀委員會의對策에對한失望은

▽…다시急落 을告하게되야 大阪에서는 最低價十一圓五十錢에까지 이르럿다 이는戰前의 市勢그대로 이엇스나이러한米價慘落의 深刻한影響은곳經濟界全面에 遍滿하게되것이다 그第二回의收穫豫想도極小量의減小를表示하는 一千九百二十四萬石이라 以來小幅의騰落으로十三四圓臺에서 버서나지못한것이니 이와가티그原價를支拂할수업슴에 이르러서農家經濟를 大破綻에로誘引하게된것이다 今年의產米過剩은큰것도事實이지마는 農耕方法의集約化 施設의漸備에큰關聯이잇는것이다 水利組合의施設肥料의增施 機械使用의增加는必然的으로 農家의支出을 膨大하는것임에 不拘하고米價의慘落은 農家로하야금그入費를크게하고도

▽…支拂力을 減殺하는것이다 그가勿論 金解禁과셔아서 通貨의收縮에도 만히關聯되는바 이지마는 그가他諸物價以上으로 暴落한것은 農業에 그獨特한恐慌을 招來하는바이다『세존』한갑을 사라면베세근값으로도 오히려 不足한形勢이니 農家의慘落한不利를可히알수가잇는것이다

今年의 그러한現象은 朝鮮의農民들에 무엇을 提示하얏는가 豐作의飢饉 第一回米收穫豫想을 發表한影響은 일게된사람은 누구나 第二回豫想高의 依然함에서不安을늣기게된것이다 그多收의悲哀를말하게된것이어니와 이에對한各方面의 不安은 當局의말과는米價對策으로는 一部分의治途도 엇지못하얏다 從來에朝鮮米의 日本移出을 統制하라는바가 昨年보다 더욱囂囂하야지서

▽…倉庫施設 에波及하는데다가 이제想像以上의 豐作豫想에서 그應急的對策으로一千萬石의 低資融通을 策하게되얏지마는 그效果라고는 別로나타나지안는다 무엇보다그로서 米價의低落을 防止하지못하는까닭이다 特히米穀低資融通이나 租貯藏의모든것이米穀商人이나 또는大地主에게는米資融通의 便宜가잇기도할것이며 또한秋收後에 一時에洪出하는 日本移出米의 統制上에는 效果가잇슬 것이지마는그가中小農民에게는 조고마한便宜도 주지못하는것이 儼然한 事實이다 무엇보다도 決濟期에 換金의 必要가時急한그들에게는 米價가回復하는것밧게는엇더한 影響도밋치지못한다 그리고도이對策의效果如何가農村의

▽…中小農을 相對로하는資本家 大地主의 投機的機會가 되는터이라 農民의不利를비록局部的으로나마助長하고잇다 또비록正租의貯藏으로서低資의 融通을밧는다할지라도그今後의米價低落에對한損失을保障할수가업고 또事實에잇서低落의步調를取하고잇스니各種對策은말하는가운데에서도 豐作의受難은 그대로農民들이입고잇스니 이가아르는바農業恐慌의侵襲이다

이와가튼農業恐慌은 一般決濟와在來를不活潑케하고商工界의製品需要를 減退케하얏스며金融界로하야금 貸出의警戒를極度로嚴重케하얏다 輸移入額의減退率보다輸移出額의減退率을더욱甚하게하얏스니무엇으로써朝鮮財界의安穩을말할수잇스랴 要컨대今年의 朝鮮經濟界는金解禁과米價暴落의巨大한變動을맛 보게한것이다

▽…二大事實 에依하야負債의負擔이貨幣價値의變動에依하야 增大되얏고그러하야金融資本을集中한 諸機關은오히려充實化할機會가되얏다 產業各部門의 中小經營은 困窮化한攻勢는 劇烈하야特히商工業에잇서 顯然하얏다 다음에豐作의飢饉은 現下資本主義經濟組織下에잇는 農民으로하야금價格生活의 巧妙한機構를더욱밝게하얏다 그多收의가을은 憂愁로써맛게되고 秋收後의 決濟의換金期에는米價의暴落으로 粒粒勞苦의結晶인生產品을 그저주다십히 引渡하지아니할수업는것이 그들의

▽…눈물겨운 事情이아닐수업는 것이다 이제新年을맛지하고舊曆의 決濟期를넘기면豐作恐慌의農村에는 多收한生產도 갈곳이업서지고飢饉은激甚할것이다 朝鮮農村의資本主義化하는過程은 必然的으로農產을商品化케하야그價格生活의本質을如實히 나타내게되는것이니 一九三〇年의 朝鮮經濟事實이 아말로 그理論그대로의發展을 劃期的으로表現한것이다 二個年을繼續하야 豐來한凶作의惡影響以上으로 甚酷한바가잇스니 이大打擊의一年을繼續하는 一九三一年도依然히多難을覺悟하지아니치못한다

生產과消費의均衡調節이必要

商銀頭取 和田一郎

昭和五年의財界는實로多事多難하얏다其間에日本의經濟는國難에直面하얏든것이다 年初에는劃期的事業으로 金解禁이實行되야日本財界의經濟는 漸次其常道에復歸하면서 財界의基調는正準에回復되면서 解禁의影響은漸次具體的으로深刻을表示하얏다 더욱世界的不況의影響을受하야 財界는二重의打擊을受하게되고 一層不況은深刻하얏다 政局은安定되얏스나公私經濟의緊縮은더욱透徹하야人心을萎縮케하고購買力은減退되여物價의低落은顯著하얏다 生絲는未曾有의低價를出現하야絲價補償法의發動을避치못하엿나綿絲布其他重要商品의値下도顯著하야米穀는日本朝鮮에서 稀有의大豐作으로 比較的超然高를繼續하든米價도 九月頃부터激落을演하야 農村經濟의疲弊를一層深刻케하고 中小商工業者가亦困窮의度를增하야各種生產工業은모다利益率을減하고又採算難에陷하얏다失業者는續出하야重大한社會問題로化하얏스니此等事相은證券界에反映하야諸株는一齊히齊落하고外國貿易도右等의事情에다銀塊의暴落、印綿關稅의 引上等惡材料輻輳로十一月末日외지에日本의輸出入總額은前年에比하야十二億四千萬圓、三割强의減少를與하얏다 그러나國際經濟의現狀과 國民經濟의實狀으로는 此程度가도리여相當할것이다 朝鮮의財界가日本의大勢外에立치못할은分明하다 最注意할것은產業의大宗인米의大豐作과 値下의影響이다 第二回收穫豫想은 一千九百二十四萬石이니 前年의實收에比하야五百五十萬石、四割五分의增收를豫想한다 九月부터米價는急落하야 仁三期米는一時先限十二圓臺를割하는慘狀이엿다 積年의疲弊에加하야 農價도慘落하야 農家經濟의困窮은顯著하얏다 豐作의凶年이라는 奇現象을呈하게되얏다 政府에서는 鈴置그對策에 努力하고 外米輸入의調節、農業及商業者倉庫의設置低資의受取等을施設하야 移出統制를圖하는同時에 農家經濟의振興에資하고저한바이다 米價低落과對策期待로年末외지에는出가激減하엿고價格도幾分回復되얏것다 購買力은減退할뿐이여商去來도萎靡不振을極하고 移出入貿易도十一月末외지의合計로前年에比하면 一億一千九百萬圓의減少이다 또金融手形交換高가枚數三萬三千四百 金額三千六百餘萬圓의減少를示한것을들지라도充分히此間의 消息을窺知할수가잇다◇

金融界方面에서는 解禁後金의流出額은 三億圓을超過하야通貨의收縮을招來하얏다 最近日本銀行의民間預金及正貨準備을모다二億圓以上의減少를示하얏스니 此로因하야金融의緩慢的狀勢는相當히 緩和된것이다 그러나地方銀行은依然히資金의固定으로 地方銀行方面에만잇다 이가티正貨收縮으로自然金利의昂騰을招來할것인데極度의不況으로資金需要減과世界的低金利의大勢는그리金利를 刺戟하지못하얏나十月에는郵便貯金利下에次하야日銀의利下가잇섯고 뒤아서此等關係資金의低下를伴한바金利의反騰을緩和하야 相當히財界의安定에資하엿다 또日本에서는事業金融의淡滯을緩和하고자一流銀行이 融資聯盟을組織하야事業의合理的金融이進出하게된것은 時代의生한新現象이다

◇

叙上한財界에處하야政府는國產品愛用 產業合理化其他種種의對策施設을講究하야財界의整理改善은相當히進捗된듯하야年末에至하야는 綿絲生絲의反撥을先驅로各種商品價格도小康을得하고 株價도次第로安定狀態를보엿다 不安人氣도엄버서서財界는漸次前途의曙光가밝아지려는基調가나타나는듯하다 그러나此를轉機로하야好轉하리라는것은早計이다 財界가好轉할에는그에 適應한事情의隨伴이必要하다 旣往의 例를봄도不況의絕頂에서好況으로 轉하기外지에는 相當한 整理期間은有하는바 그整理改善의一般的不況에對하야 人心의安定한바가最適당하야그實行을한에잇서는 아직前途에幾多한困難과試鍊을 嘗하는것인데 今日의不況은昭時好況時代에無謀하게擴張한企業에適當한 收縮調整이不充分함에起因한것도不尠하다 從來와가튼無統制한經營은今後의財界에서容認치안홀것이다 此際에斷然事業經濟上의合理化가잇고 生產의原價를引下하야採算의基礎를確立함이必要하고 또從來閑却하얏든資本關係의整理調節을圖할도 高調하고십다 固定資金과借入資本의整理調和의必要한것은 採算이可能한事業이金融上으로萎靡하는것의만흠을보아서도 首肯할수잇다 이갓치生產組織이改善되고 다시生產과消費의均衡調節을圖할方法을講하여야할것이다 金融界에對하야도 金融의分野를보아信用基礎의擴大를圖하는等 아직改善合理化를圖할餘地가잇다 一般物價에對하야서도 生活의關係가 깁흔特殊商品의小賣市勢는아직 低下의必要를感하는것도만타 其他各種의事情이改善調整되야 世界經濟의轉機에對하야 善應할用意를整備하고財界의根基를確立할이現下에改善한길이나그리고國際貿易의伸張改善이잇다하면財界에비로소恢復의黎明을볼수잇슬것이나 財界의自覺과努力에依하야 一日이라도일즉이그曙光에接하기를希望한다

過去一年間의朝鮮財務一般 (一)

總督府財務局長 林繁藏

(前略)回顧하면우리財務에從事하는者로서는 昭和五年은多事多端한一年이엇다 첫재財政方面으로 보아서昨年은衆議院의解散이잇섯다 昭和五年度朝鮮總督府特別會計豫算도不成立하얏슴으로 實行豫算에計上할수가엄섯다 米穀倉庫에對한補助輸入豐管理 及親學綱關의充實等必要한新規事項의施設는會後의特別議會에 全部追加豫算으로提出하고 그協贊을經하야서야비로소新規施設은遺憾업시遂行하게되얏다

그러나金解禁直後의財界不況에當面하야 自然事業官廳等의收入에도多大한影響을及하게되엿다 一面公私經濟의緊縮에關한中央政府의政策에順應하고 또一般物價의下落도考慮하야年度中途에서도 다시節約緊縮、實行豫算을編成하야收支의均衡을維持하고 總督府財政의基礎를確保하기를期하얏다 그리고來四月一日부터施行할昭和六年度豫算에對하야는 中央政府의方針에適應하는同時總督府財政의現況에鑑하야 依然

緊縮方針에 依하야編成하게된狀勢에이르럿다 朝鮮의特殊事情에對하야는깁히考慮하야可及的財源을按配하야 新規事項의 施設를圖하얏다 金解禁은 昨年初頭에斷行하얏든바此로因하야 金融界의基調에根本的變化가起한것은否認할수업는事實이다 金解禁의善後施設로의政府의緊縮政策及民間의整理節約은一般的으로도 需要의減止를招致하고 又他方으로또輸來하는世界的不況의影響을밧어서物價는下落할뿐으로 生產도亦減少하야朝鮮의

財界도萎縮 不振하든狀態이엇다 金融界亦蒙漫치아니할수업섯다 財界不況의一徵表도朝鮮內各種銀行의預金及貸出金의狀況을보건 預金總額은減域을示하고、銀 殖銀의特殊銀行의貸出金增加를除하면 普通銀行의貸出은總體로모다減少하는勢이엇다 다시昨年十月一日부터實施된 郵便貯金利率의引下며同十一月의鮮銀同業者貸出金利의引下等은一般의事情을語하는것이다 昨年米作은日本及朝鮮을通하야未曾有의豐作이다 一

謹賀新年

珍島

珍島郡鳥島面 職員一同

珍島郡智山面長 曺秉井

珍島郡義新面長 朴泰洙

珍島郡鳥島面長 金鏞杜

珍島海苔漁業組合

道評議員 許淼

鳥島漁業組合

鳥島漁業組合 理事 李秉延

珍島邑內 官鹽在來鹽海苔養殖販賣業 朴胤奎

珍島郵便所長 福島二一郎

珍島鄉校直員 韓明履

珍島郡古郡面石峴里 金馨瑀

珍島邑內 蘇鎭春

珍島邑內南門通 和洋雜貨店 蘇井奎商店

珍島邑內 中華料理 忠順館

珍島邑南門通 和洋雜貨日用食料品 康連瑞商店

珍島邑內 雜貨商 大橋一雄

珍島邑內 東雲旅館

珍島邑內 旅人宿簡易中食魚物商 村屋旅館 主 タミコ

珍島郡海倉 海陸運送業 近藤彌三郎

珍島邑內 車商 永興和商店

珍島邑南門通 雜貨商 河野兵四郎

珍島邑城內 南星堂藥房 柳尙熙

珍島邑內 濟衆堂鍼灸院 張志遠

珍島邑內 許橉

珍島邑內 鄭冀昱

珍島邑內 司法代書人 梁正源

珍島邑內 司法代書人 朴恒洙

珍島郡義新面松亭里 張鎬文

珍島郡義新面敎地里 許孟龍

珍島郡義新面金甲里 黃必成

珍島郡義新面巨龍里 光興商店主 朴福乘

珍島郡義新面晩吉里 許璡淯

珍島海倉土木建築請負業 井手口辰次

珍島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李奇任

珍島十日市場 棉花買受員 曺胤煥

珍島邑內校洞里 無名氏

珍島公立小學校長 塚越太三治

珍島公立普通學校長 安井順平

古城公立普通學校長 宮野暉一

義新公立普通學校長 河野英一

石橋公立普通學校長 落合唯一

鳥島公立普通學校長 盧樟

珍島公立普通學校 河尙稷 同 朴炯夆 同 中里修一郎 同 金貞模 同 朴鍾柱 同 金士彩 同 許英順

珍島古城公立普通學校 金楨龜 同 吳安根 同 木內正心 同 金永九 同 金永泰

珍島義新公立普通學校 梁仁默 同 尹炳熙 同 朴秉玹 同 朴龍源 同 鄭季源

石橋公立普通學校 孫周泰 同 郭承魯 同 李誠雨 同 申琮湜

珍島警察署長 上野不二夫 外職員一同

珍島金融組合

珍島十日市金融組合 理事 李性珪

珍島運輸株式會社

珍島自動車部 主 曺秉洙

珍島醫院 公醫 李心鍾 (入院隨時)

珍島邑內 明月館 主 郭鳳奎

珍島郡廳職員

珍島各產業團體職員

珍島郡珍島面職員一同

珍島郡郡內面職員一同

珍島郡古郡面職員一同

珍島郡義新面職員一同

珍島郡臨淮面職員一同

珍島郡智山面職員一同

梁山

敎科書指定販賣 揮發油類食料品諸雜貨 金榮商店 主 金武榮 振替釜山四九七

梁山郡邑內 妓生 高彩鳳 妓生 高山月

梁山郡邑內 道評議員 權穆

梁山郡邑內 三上熊太郎

梁山邑內上北面大石 李圭漢

梁山邑社衛支部 委員長 林柏浩

梁山邑南部洞 農會評員 李鍾性

梁山郡上北面上森里 金正河

梁山郡上面北上森里 金正鉉

梁山郡上北面大石里 朴琨洵

梁山郡上西面凡魚里 弘益農場 秋川勘次郎

梁山郡上西面華川里 面協議員 [illegible]正雄

梁山郡上西面勿禁金融組合 理事 立石久米一

勿禁驛前國際運送株式會社 取引店 ㊣ 丸正運送店

梁山郡下北面新坪里 麵子商 金相守

梁山郡下北面新坪里 醫生 辛鍾奎

梁山郡下北面新坪里 金泉旅館 金作文

梁山郡下北面新坪里 綢緞布木雜貨商 李福萬

梁山郡下北面新里 司法代書人 鄭斗永

梁山郡熊上面西倉 醫生 許錘

梁山東面法基里 李坤寧

梁山郡東面法基里 土木請負業 朴相九

梁山郡東面藝川里 李士化

梁山郡東面藝川里 雜貨店 朴守萬

梁山邑內明信理髮館 主 金基澤

梁山郡上北面石溪里 鄭禹謨

梁山郡熊上面德溪里 島原旅館 閔希先

梁山郡熊上面周南里 穀物商 朴庚德

梁山郡熊上面西倉 雜貨商 金千洙

梁山郡熊上面德溪里 學務委員 鄭寅達

梁山郡熊上面龍[illegible]里 成相默

梁山郡下西面[illegible]里 司法代書人 林基台

梁山郡農會 梁山郡畜產同業組合 梁山郡山林會 郡守 李玫河 庶務主任 財務主任 朴聖祚

梁山警察署 署長 閑野作次郎 職員一同 下北面駐在所職員一同 東面駐在所職員一同

梁山郡各面職員一同 梁山面長 李世鍾 東面長 李信雨 上西面長 金正圭 下西面長 孫振瓘 上北面長 金奎壽 下北面長 安永嵒 熊上面長 金爽基

梁山金融組合 組合長 安永嵒 理事 水內日出高

梁山公立普通學校 東面公立普通學校 上北面公立普通學校 下北面私立普通學校

梁山水利組合長 高松節治 梁山郵便所長 吉岡晨 梁山學校組合管理者 須藤茂美

梁山邑酒造場主 金藍岡 山幕酒造場主 安永遠 大石酒造場主 金錫洙 白鹿酒造場主 李會璘 新坪酒造場主 金基京 芝山酒造場主 李義昊 石山酒造場主 李貞澤 靈川酒造場主 鄭敎奎 새버든酒造場主 金泌

梁山郡邑內 壽元商店主 李敬謨 寺戶百貨店主 寺戶正人 東星商店主 裵斗星 回生堂藥房 煙草會社出張所主任 高斗東 梁山入齒院主 朴再顚

梁山邑內 純朝鮮料理明月館主 高敬伯 中國料理永樂亭主 吳貴牙 中國料理鄒樂亭主 朴根華 東成旅館主 金桂順

梁山郡東面法基里 尹濟儀 朴鎭海 尹東圭 許漢寧 朴鎭祥 李炯寧 崔昌珉

梁山郡上北面 精米所 梁柄華

梁山郡上北面 荷物自動車部主 鄭成謨

朝鮮日報
其二

辛未年의史的考察 (三)

文一平

辛未에 發生된 모든事件중에 洋擾와 洪亂밧게 重要한史實이 또하나잇스니 그는곳泰西文物의 傳來이다
洪亂으로부터 三週甲前인仁祖九年辛未에 明國北京에 使臣으로갓든 鄭斗源이 西洋圖書와器物을가지고돌아오니 이는곳 史籍에나타난 泰西文物의 最初輸入이다
이보다二十八年은 압서서宣祖三十六年 벌우壬亂以後 얼마아니되여 李光庭이 明國에서 가저온 歐羅巴輿地圖란것이 잇섯지마는 이러케 一時好奇心을 滿足키爲해서 사사로이 가저온 西洋의玩好品가튼것으로 말하면 오히려 이前에도 잇섯슬것이다
커泰西文物이 漢土에 傳來한것은 元朝부터이엇스니 元朝와 交涉이 가장頻繁하든高麗時代에 밝서 그네의珍奇한器物이라든지圖書이라든지流入되엇슬는지 모른다
다만 國命을띄고간 使臣이國防의必要로 그네의圖書器物을가지고와서 朝廷에바친것은 이에鄭斗源의 輸入한것으로써 嚆矢를삼을것이다
그의圖書中에는 天文圖 千里鏡說 및 西洋風俗記가튼것이 잇섯고 器物中에는 西洋火砲 千里鏡 및自鳴鐘等이잇섯는데 鄭斗源의 上啓에……「陸若漢은……그나라에서 火砲를지여 紅夷毛夷의作梗者를 滅하엿나이다……廣東에이르러 紅夷砲로써虜師를討伐함을 請하매帝(明毅宗)ㅣ그를 嘉尙히역여 掌教官을삼아 登州軍門에 보내엿나이다……一日에 若漢이 臣을 來見함으로 臣이火砲를어더 歸獻함을 願한대 若漢이 이를許하고 아울너그他모든書器를 주더이다」云云
鄭斗源은 다시千里鏡과 自鳴鐘및 火砲에對하야 說明하되 「千里鏡一部는 天文을窺測하야能히 百里밧게서 敵陣의微細한物을 볼수잇스며……自鳴鐘一部는 十二時만되면스스로울며 火砲一部는 火繩을쓰지아니하고 火石으로치면불이ㆍ저절로發하야 我鳥銃의 두방노흘사이에四五放을 노흘수잇서 빠르기神가튼다」云云하엿다
다만 이에가저온 紅夷砲의說明은업스나 星湖僿說에紅夷砲는「丸大如斗 可及八十里」云이라함에 依하야그것이 오늘날大砲임을알것이다
아아! 그가가저온 望遠鏡과自鳴火의小銃과 밋大砲가튼精銳한器物은 軍事上必要品으로서 그뜻이敵을 防禦함에잇다하야 仁祖께서 鄭斗源에게特히一加資를 내리시엿다
그러나 臺諫의 反對가일어나 畢竟그加資를 도루거두게되엇다 어찌하야 反對하얏는지그곡절을 보지못하얏슴으로內容은 알수업지마는 想像컨대 오즉承襲으로 非大의要禮를삼고 修德으로禦敵의眞詮를삼는 그네의流의 遐國眼에는 遠方珍器를 奉獻함이 決코事君의 正道가아니라하야 危險視한때문에 이가티彈劾함에이른것인가한다 그때最高國憲인經典에 依據하야 한번反對만하면 넘검이라도 어길수업섯슴으로 주엇든 加資를도루거둔것이다
우리는 泰西文物의最初輸入에對하야 國防에뜻을둔 鄭斗源가튼 有心人이잇슨것을 깃버하는同時에 그를彈劾하야그를妨害한 臺諫이잇슨것을 슬퍼하지 아니할수업다
이때 는바로丁卯胡亂五年後이오 丙子胡亂五年前인박 다닥처오는 國難을 압헤두고國防에 反對하든臺諫이 잇슴은일즉壬辰倭亂을 압헤두고栗谷李珥의 養兵에 反對하든宰相이잇든것과 彷彿히 相似하다 그러나언제든지 反對意見이得勝하야 國防에 虛疎하게굴다가 失敗하게되는것은前後一轍이다
軍士하나 養成하지아니하엿다가 文[illegible]이、물어악소리를 지르며 몰려드는바람에 그만全國이 土崩瓦解하야 敵이兩京을犯한지 二十日이되지도못하야 首都가陷落되고 넘검이 播遷하야 一隅의國命이 鴨綠江頭에서 가물거릴때 李舜臣과 明兵이아니드면어떠게되엇슬는지모른다
壬亂에 알경을 처고난朝鮮人이 창자가잇다면 國防에對하야 크게注意할것이어늘 일이어 禦敵에뜻을둔鄭斗源을 彈劾함은 무슨까닭인가
그리다가 또다시大國難을맛나서 勝擊胡騎에게 에워사인南漢山城은 紅夷砲의猛攻下에 지탕할수업서 『호란시』汗의 軍門압혜 君臣이 무릅을꿀는 恥辱을보게되엿스니 만일鄭斗源의輸入한 날카로운武器를 잘利用하야 國防에資하엿슬진대 아무리胡亂이잇드라도이러트시 臆脆하게敗北하지는아니하엿슬것이다
아아! 번번이國防에留意하지못함으로말미암아 失敗를거듭하게된것을보면 우리네自衛性이 先天的으로缺陷한것이아닌가하고 疑訝한다
鳥銃이朝鮮에傳來한것은 壬亂二年前이지마는 이것을軍器庫에 버려두엇다가 倭亂이일어난뒤에야 비로소케케묵어녹슨것을 내여보게되엇스니저日本人이 이鳥銃을西洋人에게서 어더올때射擊과아울러製造의方法까지곳學得하야 數年동안에各國的으로傳播되여 日本의戰術을一變케하엿슬뿐아니라 다시이것을가지고 朝鮮에侵入하게된것을보라 同一한鳥銃이지마는 彼我사이에엇지이러케도活用手段의 差異가큰가
大砲가 朝鮮에輸入된것은丙亂五年前임은 上述한비어니와 이역시軍器庫에버려두엇스니저明天子가 若漢을賓師로써禮遇하야 登州軍門에보내인것에對照하야보면 비록戰時에關係가잇다하드라도 同一한大砲로되 어찌하면 이러트시 彼我사이에徑庭이 잇는가
朝鮮人이 國際的安慮者가된原因은 반드시 強隣사이에서여잇는 地理的關係뿐만이아니오 또貧弱한國家임으로 그리되는것만도 아니다 이自衛性의缺陷으로 말미암아 생기는國防上虛疎에 基因한바적지안흔것을 알어야하겟다
辛未年에對한 史的考察이적만치만도 우리네 現生心에切實한關係를가진 近世史實을떼개추어말할에不過하다(完)

北海苦節(靜齋吳一英氏筆)

間島의史的考察

高句麗、渤海、高麗、李朝의變遷 (四)

柳光烈

우리나라의疆土와人民은곳高麗에부터내려오든것인故로每隸先春嶺으로써北界의標柱를삼앗섯다 그런데萬曆年間에淸人이建州에서이러낫스니松花江以北이그들의基本地이다 그런데康熙壬辰年에發祥之地를찻는다고떠들며 穆極登을식혀白頭定界를와서 審查하게하엿스니누루兩國의 天作한界限으로본다면 山嶺으로는先春嶺을넘을수업고江派로는天池에서내려가는 北流水만가를것이업다 그러나이嶺과이江으로界限을삼는다면彼의發祥地라는것이우리나라에屬할가두려워하야穆極登은 그北流를가르지며말하기를어대로向하엿는지모르겟다하고 드듸어白頭山東麓을자저 새로分水嶺이라일홈짓고任意自斷으로 石을세워記케하엿다 슬푸다우리나라重臣이老劫하야 自蹲하고다만微官에게부치어傍觀하고한마되도苦爭치아니하야 안저서東方千年先春嶺의녯境界를일허버리게되엿스니 志士의公憤을어찌禁할수잇스랴(中略)지금에 北流水는아즉次置한다할지라도定界碑로보드래도土門江으로決定되엇는데 近年勝判에彼等은억지로豆滿江을가르치어土門江이라하니 大體土門江으界가이미낫낫을[illegible]에바자스러운故의 號令으로우리의疆土와端少하엿는데또土門江南便으로 더수리러하니만일明白히査覈하는것이업스면後人의疑惑이滋甚할것이다」

世界의動搖 朝鮮의鎖國

우에도[illegible]엿거니와 露西亞人은 次次로中國國境에오게되엿고 淸國은康熙 乾隆等의盛世를한마두로漸漸衰弱하게되엿다 道光十九年(朝鮮憲宗五年‖西紀一八三九)에 저有名한廣東總督林則徐의 손으로불질러노흔英淸阿片戰爭은 淸國의空前한慘敗로道光二十二年에南京條約을맷게 香港을英國에割讓하고 不得已五港을開港하게되엿스며 咸豐六年(朝鮮哲宗七年‖西紀一八五六)에 英國艦아ㅣ로號侮辱事件과 佛國宣敎師殺害事件으로 英佛二國과戰端을作하고 咸豐八年(朝鮮哲宗九年‖西紀一八五八)에 露西亞는瑷琿條約으로淸國에서黑龍江以北의地를割取하고 咸豐十年에는淸國對英佛戰爭의調停者로나서서 北京條約을맷게하고 그報酬로烏蘇里江以北沿海州地方을어덧슴으로 朝鮮과露國도接境하게되엿다 이와가티世界를흔드는資本主義의大砲소리가 殷殷하되 朝鮮은如前히鎖國事大로生存을維持하려하엿다 強暴者가티와서억지로세워노흔穆極登의定界碑를名門互族의祠堂位牌가치나所重히알앗든지 남은機會잇는대로 더倒取하야 自家의榮榮을圖하려는이風雲中에도定界碑를죽은호랑이가치 무서워하고 豆滿江건너間島地帶에건너가기를嚴禁하고萬一越江하는사람이잇스면 銃殺한다하엿슴으로 건너가는사람이업섯고 淸國에서는間島를가르치어『神州以外는 塞外之地이니 不可居라하야』오지안앗스니 朝鮮人이나淸國人이모다살지아니하고 間島의沃野千里는마치 임자업는 空地가치되어 人烟이끈어지고 鷙禽走獸가自去自來하며 人跡업는曠野에는草木이自生하야太古的森林을이루엇섯다 그리고間或捕手採蔘者 亡命求生者가지낫슬뿐이니 實로荒凉한曠野이엇다

北方大凶으로 間島移任多數

天은朝鮮人에게어떠한試鍊을하려함이던지 距今六十年前己巳、庚午年間에 咸北六鎭地方에는前古에업는 큰凶年이들어서人民은모다굶어죽게되엿다 비록國法에依하야 銃殺을當하는限이잇슬지라고 아러서餓死하는것ㅂ다는낫겟다하고 無數한貧民이禁令을犯하면서江을건너게되엿다 當時咸鏡道觀察使로잇던魚允中은決河의勢가큰이形勢를보고『誅之則不可勝誅』라하야越江의禁令을풀고 咸北觀察使는公公然하게 地券을交付하야耕作케하니 이에男負女載하야間島로건너가는사람이 數萬으로써이계되고 百餘年間荒凉하든間島는다시녯主人의손으로歸屬하게되엿다

土門·豆滿의紛爭이始作

이에淸國에서도또間島에손을대이게되엿다 淸國光緖七年(西紀一八八一年)에淸國政府는豆滿江東北荒蕪地의開墾할計劃을세우고盛京將軍으로부터 그뜻을朝鮮에傳達하는同時에吉林將軍銘安이淸國欽差大臣吳大徵을따라서 間島一帶를視察한 結果벌서朝鮮人이多數히 開墾한土地가 잇는것이 發見되엿슴으로 銘安은勞를가지고 土地千餘晌을開墾하고 政府의指揮를仰하엿다 淸國政府는朝鮮國人民이 江을越하야 墾種한者는 既히中國의地에 種하엿슴에 中國民이라맛당히 租稅를納케하고 我版圖에 籍케하고 我政敎에遵케하는同時年限을定하야 我冠服으로易케할지요 目前은아즉寬貸하야 一例에照하야 各從便에從케하기를 命하엿다

比律賓人의運動과밋그將來

弱少民族運動의展望 【四】

李如星

米國의反對理由(續)

一、比島는『카피』(코피)와『석라질』과競爭하고 護謨로써英國을牽制하기爲하야 米國에엇지못할 屬領인同時에砂糖 麻『코코·넛츠』油等은米國內地에서多量으로 輸入하는重要生產物인바 萬一比島가獨立된다면米國國民은 國內生產者의獨占的暴利徵取에 堪耐하지안으면안될境遇에이를것이다 比島는米國의第十六位에該當하는 輸出國으로써米國輸出의一分四厘를 사주는곳이오또第十二位에 該當하는輸入國으로서 米國輸入의二分八厘를供給하는곳에지나지못하나 比島의獨立은米國貿易總額에 減少를意味하는것인만큼 米國產業界一部의重大한打擊이며 또그로말미암아 增加되고잇는失業者는더욱 激增될 憂慮가잇다그리고 比島에이미投資된一億五千萬弗의 資本은從來米國權力의 保護下에서 그巨額의 利潤을엇게된것이매比島가獨立이된다면 비록 兩國間에或種의協約이 成立된다할지라도 昔日의繁榮을그대로延長할수는업슬것이다

二、米國이 太平洋上의覇權을日 英其他諸國과 競爭하기爲하여는 布哇島、『구암』島比律賓諸島의 領有가絕對로必要하다 米國이 比島를占領할때는 비록大戰後國際聯盟에서 創案한 委任統治와가튼 意圖이엇다할지라도그政治的 또는그軍事的意欲은반드시布哇『구암』과가티比島의領有를 要求한다

三、米國은 比島獨立後 政治的自立은 可하다할지라도財政的 軍事的自立은 매우困難할것이라고 觀測한다 一九二七年度比島輸出入狀況을보면 輸入總額一二四、九四三、九四二弗中 七七、三二四、一九三弗은 米國에서 輸入하는것이오 輸出總額一五〇、〇〇九〇九弗中一一〇、八三二、七五弗은米國으로輸出하는것으로써比島外國貿易에거의七割以上이 米國과의貿易임으로 第一比島가獨立할境遇에는 比島商品의 最大한市場인 米國을일케되는關係上 比島產業은 甚한弱地에서 一般財政의 一大恐慌을일으킬이다 따라서軍備의充實을바라기어렵다

四、比島의獨立은日本의南進을誘導하고 英國의東方勢力을더욱興奮시켜太平洋資本의衝突을一層激化케하는同時에米國의對東方貿易에는甚大한不利를招來케할것이다

五、比島內에서도 南北比人이宗敎를 달리하고 言語風俗血統이 또한다르며 政治的感情이 統一되지안엇슴으로獨立後는 益益內亂가頻發되여治安을維持키困難할것이다 等理由로反對或은尙早를主張하는것인바 그가운데는 無理한誣測도만호나 第一第二의經濟的 政治的理由가큰것은米國自體로보아 반드시比島獨立承認을斷然치안을수업는 重大條件이엿다

比人運動의將來

그러면 米國은 어느때外지든지 比島의領有權을 主張하고잇슬것인가
比律賓問題에는 英國의埃及關係와가티 米國의自國的 背景的態度에따라 解決될問題가안이오比人自體의 運動이究覺解決을促進될것이다 米西役以後로比島人은 國內에서나 米本國에서나 米國의僞善을暴露하고米國人의視聽을 說伏하야一般米國人의 輿論을일으키는同時에여러번이 問題를 國會에提出케하엿다 比島議會에서는늘하야 獨立運動을 促進식히고 1그代議員을 華盛頓에駐在케잇는中比島上院議長『케손』氏가지病을무릅쓰고 出馬하엿스니昨年十一月頃『마닐라』通信에依하면米西 米比兩戰役의 老將『에리오·아기날도』氏까지 當時(米西戰爭)參戰한 二萬三千人同志의 一致한意見과『케손』氏等의 懇願으로써今年一月頃米國으로건너가 比島獨立促進運動에着手키로하는바이니米比의『圓桌會議』開催도 不火獨運이 蒸熟하고잇다

謹賀新年

安溪
安溪面職員一同
安溪官民有志一同
安溪市場 網緞布木 海產物 自轉車 農具 許鎬逸
安溪市場 加藤勝太郎
安溪市場 布帛 米穀 禹長東
安溪市場 廣昌醫院 朴昌根
義城郡丹北面 面長 金柱錫 會計 朴璟洛 書記 吳尙鳳 張師夒 金宗敎 韓基會 技手 黃英燮
丹北面魯淵洞 李亨植
比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義城郡比安面 面長 李晟漢 會計 朴宇杭 書記 李時雨 金英模 朴正鎭 全在鶴 朴大瀚 李泰仁
義城郡龜川面 面長 金斗河 會計 朴文國 書記 金道石 康海鎭 禹熙燮 朴準璇
義城郡多仁面 職員一同
義城郡丹密面 職員一同
安溪酒造組合 安溪酒造組合理事 李尙淳
安溪畜產組合出張所 金台炳 孫鼎鎬 禹夏璧
安溪市場 吉原貞雄

安溪酒造組合 李圭鉉
安溪市場 網緞布木 中[illegible]均
安溪市場 趙台衍
安溪市場 金相鎬
安溪市場 韓圭東
安溪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安溪市場 旅館 長崎屋
安溪市場 朴寅煥
丹北面魯淵洞 張在斗
丹北面井安洞 李韶榮
丹北面魯淵洞 張紀鎬
多仁面三汾洞 權炳斗
多仁面西陵洞 梁萬煥
義城郡新平面鯉湖洞 全在鳳
新平面鯉湖洞 全在瑢
丹密面陳岩洞 密城醫院 林雲烈
六邱府新町六四ノ一 辛在佑

榮州
榮州金融組合醋川支部 尹義重 姜昌渭
榮州郡丹山面事務所 職員一同
榮州郡醋川市 代書業 張師孝
榮州郡順興邑內 金昌徵
榮州邑內 米穀商 金炳烈
榮州邑內 潘東鎬
奉化郡物野面事務所 職員一同
奉化郡奉陽面 春陽醫院 醫 具觀會
奉化郡春陽市 代書業 李鍾震
奉化郡法田面 李完相
榮州郡丹山面玉帶里 金鉉圭
奉化郡物野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榮州郡邑內 榮州釀造株式會社
榮州郡醋川市 長壽釀造所
榮州郡順興邑內 米穀商 朴相實
榮州郡文殊面 面長 張斗奎
榮州郡平恩面水島 金孟鎭
榮州郡平恩面水島 金聖奎
榮州郡平恩面 面長 金輝稷
榮州郡平恩面 平恩公立普通學校
榮州郡伊山面 面長 李[illegible]
榮州郡邑內 金光堂主 金[illegible]
榮州郡丹山面沙川里 徐丙轍
榮州邑內 米穀商 徐聖德

全義
京釜線全義驛前 全義穀物商組合
京釜線全義驛前 郭武鍾
燕岐郡全義面 面長 職員一同
京釜線全義驛前 郭南鍾
京釜線全義驛前 朴鳳來
京釜線全義驛前 尹孝重
京釜線全義驛前 黃元春
京釜線全義驛前 黃在淵
京釜線小井里驛前 崔炳學
燕岐郡全東面 權五泳
京釜線全東驛前 金振爽

青陽
青陽面事務所職員一同
雲谷面事務所職員一同
大峙面事務所職員一同
定山面事務所職員一同
木面事務所職員一同
青場面事務所職員一同
赤谷面事務所職員一同
斜陽面事務所職員一同
化城面事務所職員一同
飛鳳面事務所職員一同
青陽郡公立普通學校 校長一同
青陽邑內博文酒造場 徐相吉
青陽邑內運成酒造場 朴在運
雲谷市青雲酒造場 裵錫夏
大峙面七甲酒造場 卜崔連圭
赤谷面冠峴里酒造場 任柄舜
美堂市美の酒造場 洪哲淳
化城市松月酒造場 李龍杓
飛鳳面龍川酒造場 李義載
飛鳳面飛鳳酒造場 俞俊儀 弼濬
青陽土曜會
青陽シンーガ機械會社 主任 鄭大永
青陽麴子組合
青陽郡大峙面炭井里 有志 卜祥圭
青陽郡雲谷面[illegible]里 有志 明浚植
青陽郡青陽面正坐里 有志 李秉文

朝鮮文壇에訴함(三)
『三〇年은「自殺未遂」』
鄭寅燮

二、主觀的力量

나는 以上第一의序論에잇서서 一九三〇年이란것이 現代人類文化의過程에잇서서 大書特書할만한 여러가지 國際情勢의『이ㅡ폭크·메이킹』을가지고잇는해라하엿스며 그것이歐洲大戰以後로는 처음되는「劃期的必然으로서의 一種의『自殺未遂犯』或은『死刑執行猶豫』을바든者」라는 代名詞로서代名하엿다

代名詞로서 直感할수잇는듯한 一種의『切迫的危急感』과 一九三〇年의問題의延長으로서의 一九三一年의問題에對하야 展望的誕生感과 그心的猶豫」가 發年感이요新年感이라할수잇다

……◇……

그런데 그와가티 複雜多端한 世界의客觀的情勢가 朝鮮에는 影響을주어 다른道體의社會와가티 輿論의徹底한現定을 볼수는업섯다 할지라도 國際的經濟 恐慌 民族的鑿生 軍縮的人道主義 鑛奮的享樂 放其他의그림자가 直接間接으로 社會現狀에 波紋을주엇시마는그러한現實的內容與文壇的內包 또는展延으로서 考察할때는寒心한程度의無爲라고하여도 過言이아닐것이다

勿論昨年(一九三〇年)一年間의朝鮮의文壇에잇서서 世界文壇에對한考察을爲하야 努力한바硏究的乃至消息的見界는 在來의어느해에比해서보담 훨신量에서나 質에서나 重大한程度에까지 이르럿섯다 이러한 世界文壇에對한 考慮의動向이 相當한程度에까지 認識되엿다는點으로보아서는 一九三〇年을 큰收穫의해로 볼수잇겟고 그具體的事實에對해서는 입이다른雜者가(世界文壇의一年間變動이란題目으로도 異河潤氏가執筆)指摘하엿슴으로 再示치는안는바이다

要컨댄 昨年으로부터 朝鮮의大新聞學藝欄(朝鮮日報,東亞日報,中外日報)에 海外文壇消息欄이란것이 一律로始作되엿든것은 特히注目할바로 생각할수잇고 이리하야世界文壇의動向의對한關心이 深刻하면할사록 朝鮮文壇의眼界가 넓어질것은勿論이요 또한깃버할일이다

……◇……

그러나 그러한現象이잇슴에도不拘하고 昨年동안의朝鮮의文壇에는 國際情勢의動向에對한 文學의作品行動이 稀薄하엿다는것이다 換言하면 國際情勢의餘波가 一般朝鮮社會層에는 만흔影響을주엇서도 朝鮮의文學의內容的創作에는 그러한波紋을發見하기에 어려웟다는一種의矛盾은 果然무엇에因原되엿슬가? 一部外國文學硏究者들에依한 世界文壇의硏究的見界와 新聞學藝欄의海外文壇消息의努力이 잇기는잇섯지마는 何故로一般朝鮮文壇全體로서는 在來批評家들이나또는創作家가『國際情勢』의朝鮮文壇의無爲』에 沈默되여잇슬가? 이러한疑問을가지고 생각해볼때 自他가더욱더反省하지안흐면안될 여러가지觀點이이러난다 그러하야 序論에서도말햇거니와 그러한理由를 主觀的力量과 客觀的情勢의兩方面으로서考察하고저하는바이다 勿論相互關連된問題임은 더말할것도업다

……◇……

(一)주순한努力(早熟、早老)

은現下國際的文作의逆飛能率에잇서서 可後悲的인萬味에잇다 歷史的으로보아 過去에單一體로서의 엇더한高說한時期를가젓다할지라도 그것은結局그『케네레이숀』의事實엽에不過하다 다만그러한『過去의觀念的自慢』으로서 現代文化에잇서서의後進인事實을 否定할수는업는것이다

더구나 朝鮮文字의近代的意味는 確히우리의『케네레이숀』에 가까운데에서 出發하엿다 即朝鮮의新文學의出現은 眞正한意味에잇서서 拾數年以來의일이요 아직貳拾年이란年限을넘지못햇다고볼수잇다 그年代의正確은 史家에미두어둘지라도 爲先春園의『無情』이 그다지오랜녯날의것이아니요其後雜誌와新聞을通하야 過程되여온바은 簡略하도『朝鮮의文壇의年少說을 說明하고잇다

그런때문에昨年의모든『평포』가을演을엇던만큼與會의一部는『早熟性』을가지고잇고 또그反面에는 지버간世代의남어지」가 만흔程度의『정잔性』을가지고잇다 그리하야 그『尖端的早熟性』과『退嬰的정잔性』가운데는 一種의解叛을 이루게하엿든것이다 그러나 이두現狀이 一見相反되는듯해보이면서도 그早熟性은 얼마안가『焦燥의막다른골목』에서 懷疑,煩悶,傍觀,等의『정잔性』과野合하고마는것이다

……◇……

이리하야『一蹴大家然』『各自天才然』『眼下無人然』『先驅的獨意然』하다 가얼마안가서『嗚呼老衰라는 口實下에 모든것을揚棄하고 卒業한듯하야 活力을消失하고잇스면서도 남을비웃고 욕하고暗暗이自己를자랑하고잇다

이러한現狀이 文壇에서濃厚해서 아침에躍跳하다가 저녁에正體를감추어 그러는가운데 協進動向는 보잘것업시되여바린다

世界文壇의 一年間變動(三)
異河潤

하릴ㄸ 그것이米國에서 이러난일임에 엇지여기다特記하지 안흔다 그러나 다만한가지遺憾으로역이여마지안는것은 一方英國에서는 저歐洲大戰으로 말미암아 愛惜하게도天折하고만 詩人『류머ㅡ듸브두ㅡ』크의紀念碑를建設하자는 議論이 일어나 『드렁크워ㅡ터』『더·라·메ㅡ어』『보ㅡ리스·브라운』等이發起人이되여 그基金의募集을開始하엿다는 미덤직한消息을들으며

獨逸 에서는 얼마前부터『하이네』銅像을세우고자 그基金을募集中이든바 都嶽逾定대로集合되지안홈으로 그發起人들이港照中에서 아직工事에도着手치못하고잇다하는것이니그理由는비록 그가世界의有名한大抒情詩人이긴하나 그血統이猶太族을 繼承하엿다는것과그가生時에佛蘭西만을사랑하야獨逸의모든것을바리고 佛蘭西에가서永住하엿다는것과 그리고敎會에서 異端視을當하게되엇든것等으로 故鄕사람의歡心을사지못하는데잇다고한다 何如든그가고흔抒情詩人이면서當時社會에對하야 不滿을품고잇섯든事實도그릇決코

故卽 사람들이조하할수입업섯든原因이 되엿슬것이라고 밋는다

佛蘭西에서는 今年이佛蘭西浪漫派運動이 이러난지百年이 된다고하야 여러方面에서그를紀念하기에奔忙하엿섯다 하기는約三年前에佛蘭西浪漫派의百年祭가擧行되지안흔것이아니다 그것은浪漫派의重明『에ㄹ나니』ㅡ고』가그의戲曲『크롬웰』(一八二七)序文 에 浪漫主義의宣言을發表한해부터 起算하야百年에該當함으로써開催되엿든것이며今年에擧行한紀念祭는『유ㅡ고』의戲曲『에르나니』가 巴里에잇는『테아트르프랑세ㅡ즈』에서

上演 된年代를表으로한것이라고한다 그러면『에르나니』는 一八二九年九月에脫稿된것으로서『크롬웰』보다는 뒤에온戲曲이나 『유ㅡ고』의第一次우으로 上演된作品이엿든바그것이 바로一八三〇年二月二十五日이엿든것이다 『유ㅡ고』가自己의戲曲『크롬웰』에序한一文은 古典主義에對하야 反旗를날리고 浪漫主義運動의새로운主張을내세운 皆로文藝史上重典主義에對한 浪漫主義運動의大勝利를 副칠수잇는것이며『에르나니』의上演은 在來의古勝利를 說明할만한 事實이엿승으로 文藝史家들이 이것으로서 浪漫主義運動의發端을삼아 거긔重要한意義를 認定하는것은 다시우다들의賞賛을받처아니하리라고밋는다

그러하야 지난一月부터 巴里의國民劇場에서는 盛大한紀念展覽會가 開催되엿다 거긔에는 『유ㅡ고』를비롯하야 浪漫派의

諸星 『와ㅡ보다앙』『라마르틔ㅡㄴ』『노되에』『더·뮤세』『고디에』『조르즈상』『듀ㅡ마』等의肖像과및 그들의作品의初版本、原稿、傳記 其他舞臺面漫畵等이 多數히出品되엿섯스며 또이佛蘭西浪漫派運動에크되큰影響을끼쳐준英國浪漫主義의詩聖『바이론』을爲始하로『스켓트』『쉘리』『킴리릿디』等의初版本도 參考品으로 展覽會場에陳列하야 觀覽에供하엿든것이다 여긔繼續하야 二月에는『코메듸프랑세즈』座에서 그紀念上演이잇는等 百年祭는實로그絶頂에達하엿다지 大盛況을이루엇스며 이밧게도

繪畫 나音樂方面에서는여러가지로紀念會를開催한것이勿論紀念號演會가튼것은여긔一一히例擧하기에 오히려煩를이업슬만하엿다고할것이다 이紀念事業은非但 佛蘭西國內에서만반드시意味깁흔 일이라고斷言할것이아니오이러한機會를어떠우리가한번나시 그時代思潮나個人의作品에 近親하여보는것이또한必要하리라 하는것이니갓가히그 例를들어中國의 文藝誌特別號을 爲主하는 雜誌社에서 浪漫主義 百年祭 紀念號를내이고『유ㅡ고』『쉐』『라마르틔ㅡ느』等의 詩文을紹介하며 當時의 思潮와 個人作品鑑賞의硏究를發表한것은實로뜻업는바 아닐것이라고생각한다

이제 우리의文藝界를瞥時바라보면 實로寒心할따름이니그寥廓氣에는 文藝的아모러한要素를차저볼수업는것은 다시말할것도안되는라이지마는 文藝雜誌하나업시 個人的으로나마이런紀念에留意하야 座談的會合하업는듯하니 엇지奬勵와向上이잇기를우리로서바라지안코바될것이냐 文科를設置한 學校가잇고 學藝部를눈 新聞社가잇스나 비록이런類의會合이 아니고라도 할일이하도만치나안흘것일뜻십흔데 外國의學校에서 그리고그들의 新聞社에서하고잇는일을 한번알어보고조흔것은본바들이엇던가한다 더구나 지난一年間에나는거긔關한一行의글도發見치못하엿스나所謂文藝에

從事 한다는사람들은 여긔나누래기에는 넘우나어리석은感이잇는것이다

그다음으로 나는昨年동안에 文藝的으로모寶文을밧게된 몃가자의事實을들어 그에關聯된人物을 暫時알어가고저한다

文字普及歌
三等 昇曉灘

一
세상에 제일큰힘 아는것이
힘
百千가지 근본이 배움에있
네
배우자 배우자 배워야산다
(後斂)
움집속에ㄱㄴ 돈뚝검에ㄷ
ㄹ
이소리 三千里에 떨치는
날에
그때에 새光明이 빛이리
로다
二
세상에 첫재읊음 안배운읊
음
안배우면 몸망치고 나라망
치네
배우자 배우자 배워야산다

한글紀念歌
三等 劉樹靜

一、빗나도다 우리한글
동반도에 솟은샛별
이천만의 넋이몸인
우리의자랑
(後斂)
쓰기좋은한글
읽기좋은한글
한글밧에더좋은글
동서고금다시 또있는가
二、우리글은 배달의글
그생명이영원하리
겨레의한글가짐
우리의자랑
三、배두산아동해물아
높이크게소리쳐서
온누리에한글빛을
널리퍼치자

三等 昇應順

一、거룩할사 오날이 한글긔
렴날
캄캄한 이나라에 조ㅅ불이
되고
荒蕪한 이땅의 여장이되려
半千年前 이날에 한글이낫
네
二、반갑도다 오날이 한글긔
렴날
뿌리잡인 우리문와 다시살
리고
밝아볏은 우리에게 옷을입
히려
半千年前 이날에 한글이낫
네

女職工(三)
兪鎭午

『쉬잡은 가 무엇하나』

옥순이는 피시기업는얼굴을『번뜻』듯으로 내리숙엿다 옥순이도 또한올해 열아홉살의 푸로레타리아의 딸임에 틀림업섯다

『하지만 우리도 잘살때가잇겟지』하고근주는 옥순이를여다보며『안그래? 우리도잘살때가잇겟지 엇던년놈은 이세상에 나올때 금은보배로장식하고나왓나 저의들은 관과히놀며 호의호식하고 우리들은 웬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해도 먹을것도 넉넉히 안주는거야 하지만그것도 우리들보이 달렷지 우리들이 일을안해봐저의들이 엇저나 돈더아주구는 못배길걸』

『그러지안어도 내쌋자못해하는데 일을안해?』

『내쫏칠테 내쫏치라지 일은누가해주구』

『우리가 나가도 딴사람이대신하지』

『글세 그러니까그건 우리한테 달렷단말야 한사람도 일을안허다면ㅡㅡ』

옥순이는 또근주가항용하든소리를시작한것이라고 짐작하자 입을닥으라버렷나 공연이그런소리는듯기도실혓다

두사람은 변또를 차가지고 자리를떳고 일어섯다 종세인식당으로 들어가 냉수를한곱부식마시엇다 직공들이덩어리덩어리저서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감독권중이며 김감시며 최감시며 그외회사무슨과장인가하는 양복쟁이 또엇던때는 배불뚝이 공장장까지 직공들롬으로 술술걸어돌아단엿다 엇던자는 얼골을악마가터 찌호리고엇던자는 능청스레 싱글싱글웃고 하지만 험그린자나 웃는자나갓가히 오는것이 실키는일반이엇다

이십분이면 작업예비종을친다말은예비지만 실상은이것이 오후작업을시작는시간이다녀직공들을 다시우리로몰려들어가는돼지떼모양으로 둥니가는집웅달린 꿍장속으로 몰려들어갓다

옥순는 또괴재로들나가는손 외롭을정신업시 울녹이러잇섯다 별안간엇개를 툭툭빠는사람이잇섯다 돼도라다보니 어느틈엔가 김감시가와서 그고양이가튼얼골을 야첫산케세루러트리고 처다보고서잇다

『잇다 파할때 잠간 감시고로와』

『에쿠!』하는 옥순이의가슴에서 떠러지는것이잇섯다『이자가 그전에도 애들을 엇지엇지햇다더니 이번엔 내한테로 오는것일까』

김감시는 옥순이가 잠잣코잇는것을보고 이번에는 얼골을엄숙하게 곳치가시고

『내가 맛나라는것이아니라권중감독이 맛나라는게야』

졈괴가 엇지되든 이당장에서 김감독의말을 거절할수는업것다 ㄷ구나 오라는것이권중감독인데야 더할말이업다사람을 들이고 내보내고하는권권이 권중이손에잇는것은 옥순이도 물론 잘알고잇섯다

『비 가지오』

옥순이는 억지로 목소리를짜내엇다

『웅 욱 잇다 여섯시에』

구두소리를 뚜벅어리며 저자리로가는 김감독의뒤人모양을 바라보며 옥순이의가슴은새가슴가터 두근두근하엿다

三代(3)
廉想涉 作
安夕影 畵

홍경애(一)

주인녀편네는 손님이심심해하는양을보고 갓가히교의를요려다노코 두사람을다서안즈며

『오늘두 주정하시랍니까 주정하시면 내쫏집니다』하고웃는다 일전에 병화가취중에여긔잇는녀자들 못듣고 시달리며쉬여안흥라고 버석을하얏기때문이다

『언제 내가그랫단말이요?』

병화는 놀란다 사실 그날도 점심 저녁 다ㅡ굶고 술을과히먹엇가햇든 그런생각이지금어렵푸도하지만은 혹시는 평시에 계집에게 당해하나만치 일시히롱햇는지도 모르겟다고 혼자생각을하야보앗다

『시집이 떠여고 면관을브치는군요 약주취만체하고!』

주부는 이약이거리를 만들라고 여전히 병화의주정이약이를 계속한다 그러나 병와는 자미업것다

『사실 그런게 아닌데……! 당신가튼면봇들고시달렷슬지모르시만ㅡ하하……』

『호ㅡ그랫드면 정날 큰일낫게!』

주부가 이런소리를하랴니까

『다다이마(지금옵니다)』하고 역시 일복한녀자가 드러오다가 손님이잇는것을보고 옷둑서버린다

이순간에 덕긔는어름人장을목덜미에 넛는듯이 전신에소름이 쭈치면서 목아지를움초랏드렷다

『경애!』

덕긔는속으로 이러케 부르즈지며 눈알멍이까지 어려부튼듯이 눈길을 돌리지못하고가만히 압만내다보고안젓다… 그뒤에는 두눈이화닥면서 떠운것이 흐르는것가라앗다 그러나 압해안진는친구와 주부가 아모말업는것을보면 자긔눈에서 눈물이나오는것이아닌가보다하고 안심이되엿다

다시 눈을커들때는 묘미테목욕재구를 들고것든미인은님서것다

덕긔는 눈을나리깔앗다 압해서는 칠홉옴남은 술곱보가우암에로 술홉추는것가타앗다 술욕아모리 못먹어도 그것쯤먹고서야 취할리가 만무한것은 덕긔자신도번연이 알면서머리가 엇질하고 안즌자리가휘휘돌리는것 가타앗다

『엇던가? 놀라 잡바지지는안켓나? 허허허!…… 내눈도자네눈보다는 놉흐지?』하며 남의마음은 몰라주고 취귀가붉은병화는 열업시웃는다

『그야 미인보고 입부다하지안흘사람이 어듸잇기에요!』

주부는 녀자의보농으로 지금그녀자에게 翁은디러를 눗기면서 병화에게 이런핀잔을주엇다

『오바상! 술을 또ㅡ그리고 해주슈』

고『아이상』더러 어서나오라

『아이상』이라는것은 이집에서경애(敬愛)라는 애스새(愛字)를일본발로 부르는 일홈이다 주부는 벌떡니러나서드러갓다

『여보게! 그것 누군줄 아나?』

주부가 안으로 들어간뒤에 병화가 우스며뭇는다

『군구런나?』

덕긔는 우알에人 어금니가 맛닷는 소리도 대ㅅ구를 하며 무엇에놀란 표정으로 친구의 얼골을 말똥히 처어다보앗다 이친구가 그녀자의 래력을 엔히아는가 십허서무서웟는것이다

『아ㅡ니 지금그녀자가일녀인줄아나?』 병화는 또다시 싱글싱글웃는다

『그럼소선녀자란말인가?』덕긔는 역시 자긔의눈이 틀리지안핫다는생각을하면서무럿다

『허허허……나도 처음왓슬때는 못아라보앗네만은 조선녀자ㅡ수원녀자라네! 일홈은 홍경애……』

덕긔는 가슴이 한층더두근거리엿다 아모말도못하얏다 병화는 덕긔가 깜짝놀라리라고 생각하얏든것과 달라서 아모대답도 업시 한목음술에빨개젓는얼골이파랏케죽는것을보고 부수의미인지 해석할수업다는듯이 멋숙한낫빗으로 친구를ㅇ참바라보다가

『자네 그녀자를 아나?』

하고 물어보앗다

『몰나!』

덕긔는 약간 떨리는듯하면서 침통한소리로 간단히대답을하면서도 자긔의낫빗이 친구에게 이상히 보일까바 술곱보를 선뜻 들어서 얼골을가리며 마시기시작하얏다 한숨에 켜엇다 이상이나

병화는 덕긔가 이러케 단김에 키는것을 켜올보앗다

(웬일일까?)

병화는 혼자 의아하얏다 손벽을 첫다 그러나『아이상』이 술을가지고 나오는게아니다 주부가

『미안합니다』人소리를치며나온다

謹賀新年

金海

金海郡金海面府院里 道評議員 許墩

金海郡守 黃德純 / 金海郡農會 / 金海畜産組合

迫間金海農場

迫間進永農場

慶南進永 衣食住商 高野山商會

金海城內 洪茲錫

茉山面美智里醸造場 主 安性權

金海面 職員一同

金海水利組合 職員一同

金海金融組合 職員一同

長有面 朝鮮酒醸造組合 主 裵上甲 李承秀

金海邑內 公醫 太田醫院 太田一陽次郎 電話一三番

金海醫院 李在善

金海駕洛面 職員一同

金海酒村面 職員一同

金海郡駕洛面竹林里 朝鮮酒造業 精米業 金成鶴

金海釜山間運送業 安正丸同漕店 主 安承 釜山府大廳町二丁目 電話一六〇〇番 荷扱所在

金海齒科醫院 金詰庸

金海合成學校 職員一同

金海南門通 三光洋靴店 主 楊瞍淑

曺達製造비누卸商 金□商店

金海城內 北京料理 群仙閣 電話十二番

金海南門通 醸造部 文治瓚

金海長有面柳下里 崔鈺翊

馬場自動車部

慶南進永 御料理 藝妓 昭和館 徐陳崔金孫 金菊鳳春蓮和 玉花仙仙

慶南進永 永昌醫院 諸吉允

昌原東面 具本石

慶尙南道道評議員 金慶鎭

昌原郡東面山南 黃在桓

昌原郡大山面牛岩里 文龍交

慶南進永 金潤爽

慶南進永 昭和旅館

昌原大山面長 文龍瀚

金海進禮面長 宋世允

慶南進永 進永合同酒造株式會社

金沙

金沙面栗浦里 雜貨商店 李昌鎬

金沙面栗浦里 金融組合 職員一同

金沙面栗浦里 漢藥局 朴元楨

金沙面栗浦里 雜貨商店 趙泰運

金沙面長 李建奎

金沙面事務所 鄭智植

介莊面 金基濟

黃州郡金沙面栗浦里 農同組合創立準備委員一同

大田

大田面長 齊藤安二

大田本町二丁目 洪禹疇支店 電話(本)又二(本) 洪宗二

大田榮町一丁目二五番地 兒玉革店 電話一三番 振替京城九七六八番 金

大田郡儒城面城北里 宋信用

大田本町二丁目 鮮南倉庫株式會社 電話二四八番

全州專賣局 大田出張所

ライオン自轉車 サンフラワ自轉車 代理店 海東商會 徐載穆 京釜線大田春日町二丁目 電話四〇六番(取次)

大田春日町二丁目 印刷川端 柳寅鍾 電話第三五番

大田春日町二丁目 錦南旅館 主 金永漢

大田本町二丁目 朝鮮料理 鷄龍館 主 方 電話四一〇番

大田本町二丁目 一〇堂印舖 柳福永

大田本町二丁目 中央醫院 金 電話四二四番

新都內 許德龍

衡平社大田支部

大田春日町一丁目 南昌洋靴店 主 金

大田春日町二丁目 南昌洋靴店 主 金

大田春日町二丁目 司法代書 崔旭

大田本町二丁目六一 司法代書 永大

大田郡東面新村里 李

大田本町一丁目四六 尹乙玉

大田土曜會

大田本町一丁目 東亞洋服店 主 宋英在

大田醫藥組合

論山郡新都內 淨土宗敎會 會長 林在性 布敎師 金說海

大田警察署

朝鮮大田本町二丁目四八 乾材局 合資會社 南昌堂大藥房 主務 金季斗 電話四七〇番

忠南沃川邑內 吳基億

學藝

中國短篇小說家 魯迅과 그의作品(一)

▼그의時代는지냇는가

丁來東

一、緒言

中國의文藝復興이라고하는文學革命、胡適、陳獨秀等諸氏가提唱하엿다고만나、文學革命을實行한사람은여긔에論하려하는魯迅(本名은周樹人)일것이다 곳文學革命의根本精神을簡單히말하자면 白話를一般으로쓰자는것이며 文言으로는새思想을담을수업단것이다 이運動이이러나자 成은이運動속에이어서

文 學作品 特히短篇小說을無關한白話로쓰고 그小說의內容이나形式에 조곰도中國舊思想을讚美한다든지 或은舊小說의形式을襲用한다든지한것이없이 처음으로새形式과 새內容과 새體裁를創用한사람은곳過去十數年間中國文壇에서 獨步하다싶이한魯迅일것이나 그럼으로筆者는이러한意味에서魯迅을中國文學革命의 實行者라고붙으고싶다

그는 그의短篇小說集『吶喊』에收集된短篇小說十六篇을『新靑年』及其他新出文藝刊物等에 發表하자 新思想을가진一般學者靑年及新思想을憧憬하야알려고하는靑年들에게 熱狂的歡迎과同情을받엇엇다

그 의作品이一般靑年에게歡迎을받엇다고 그의作品은決코男女의달콤한戀愛故事에關한것을 쓴것이아니요 말하자면乾燥無味한鄕村의回憶을쓴데過하엿다 그러나그의意識는다 不못絕村의描寫에근쳣다든지 또는感傷的追憶을하자는것도아니요 冷靜한筆鋒으로써 中國人民의普遍性格을暴露하야 一般革命的靑年에게自省할『힌트』를주는것과 深刻激刺諷刺로써讀者의印象을더깊이하자는데잇엇다 그의小說는 어느한篇을치고 諷刺가없는篇이없나 그러나그諷刺는어르갈이冷靜한것도아니요

칼 날이銳利이 흐르는것도아니요그文章의뒤에는 듯한溫情이흠어서더욱讀者로하여금魅力을느기게하며感服하게할뿐이다이와같이하야全中國文學靑年의眼線을一身에받고잇는魯迅이近二三年에와서는一部靑年間에그前『吶喊』時代와같이 歡迎을받지못하고 또한時代의精神에맞는무슨創作을 發表치안코거의沈默狀態에잇다 이것을一面으로 察한다면 밝서中國靑年이世界思潮의變遷과 中國의從革에影響을받어서 『吶喊』에잇는情緖及思想에는 滿足할수가없게된것과 一面으로는魯迅自身이中國의現在及將來에對하야서나

世 界人類의將來에及其行爲에對하야 確實한主見及把握이없는外닭인가한다 그럼으로이大作家의 一變遷期或은沈滯狀態에잇는時機를當하야 거진評價가된過去의作品을 評論及紹介하는것은 全혀無意味한일은아니라고생각한다

그의作品이 六七國語로飜譯된것은 筆者가中國文壇을紹介할때 거의當하엿지마는우리文壇에 飜譯된것만하드래도발서『狂人日記』『頭髮의故事』『阿Q正傳』『傷逝』等四篇을들수잇나 이와같이 그作品이世界的으로傳播된것은如實하게 世界의순키잡기로되여잇는

中 國의事情을如實하게描寫表現한것과 또는歐洲大戰을前後하야東方의文明이 世界의研究거리가된것과 그의作品에藝術的價値가잇는까닭으로볼수잇나 그의作品의內容의大部分은淸末民初의中國農民思想 生活을作品속에 描寫한것으로볼수잇고 그의『吶喊』하는소리는全部가中國古來의 傳說的思想과風俗 習慣에 羈絆되든中國人에게警鐘이되엿으며 啓蒙이되엿다 魯迅의過去功績을一言으로 말하자면 傳統的封建的思想에對하야挑戰 戰鬪한것이라하겟으며 新興中國에게自省自己認識을하게한것으로볼수잇다 中國뿐만아니라

近 來世界各國을勿論하고自省 自己認識이不足함으로써無益의犧牲과革命其他一切文化에얼마나만흔失敗를하고 흰新을보엿는가 辛亥革命 五四運動當時에는 中國에있어서무엇보다도自省自己認識이必要하엿다 이일을當時에魯迅은하엿엇다 그러나魯迅이只今에잇어서思想의權威이니 靑年의先驅이나하게되지못한것은 確實히辛亥革命當時와『吶喊』이처음出版될때와같이 明快하고 感激하게中國現代靑年에게 認識할것인가를 指示하지못하고잇는까닭이라고나는믿는다

文壇側面觀【四】

‖左右派諸家에게質問‖

梁柱東

◇

大盜春園처럼 무슨한이도드물거니와 春園처럼 固執잇는이도 稀罕하다할것이다 固執은써로 牢乎不變의定見을 보이는수도잇스나 大概는進步가업고글사머로沈滯이다 春園에게는近者에進步가업다 氏가個人으로서多少의變形을加한人道主義 轉化한뒤로무려는그의文藝觀이나 乃至思想이나다시何等의進展이업다 더구나그가써로宗教를論하고『人生觀』을說하야 『窮極原理』만을瞑想하고잇는反面에 朝鮮의現下情勢에對한科學的觀察一特히社會科學的認識이 全然히缺如한것은그에잇서서 一大短處이다 그리하야그의理論은언제나『이러되엇스면조켓다』의理論다시말하면『希望』의假說信仰의原理이오 決코『必然』의理論 科學의立場이아니다 그리면서노氏는獨善的態度로一切의批判에귀를막고批評이업슴을스사로歎息한다春園만Storg-teller로서외奇才가 아즉나기때문에그로하여금 드대여夢老케한탓이가 氏는『中國小說史』『革命家의안해』等作品에對하야 어지간한自信을그옥이가지는모양이다

◇

일즉이 春園과나와는 一九二六年頃에 朝鮮文學의將來에對하야 論爭한적이잇섯다 氏는그때에도 그『希望』式論法으로도써『밥과가른中庸의文學』을『論』하엿고 나는朝鮮의現實로부터推論하야『革命文學、階級文學』의必然性을 論하고잇섯다 그때에는그만하고말앗거니와 氏는그後至今도든든언제나 그理想家然한一따라서非科學者然한一態度를固守하야 언제나그의文藝觀은 客觀的社會性에서부터遊離되는듯시 안코 主觀的個人性에서出發하고 잇다 이것이나로서보건대 氏의文藝思想의根本的錯誤의 基點이다 氏가언제나藝術을個人的、自然發生的으로보고 社會的必然으로보지안는點 藝術의무슨『칸트』式으로『遊戲』와『必要』의中間王國一所謂遊戲本能에서 나왓다는說에執着되야 實은그것이모조리社會的『實用』에서起因된것을無視하고 一따라서그것의功利的價値를過小評價하는點 그러나功利的價値를無視치는안는다하야 畢竟은自家의根本立脚地가自然發生論的藝術至上主義이면서도 한편으로는民族主義思想 人道主義思想을鼓吹함과가른目的意識的發揮로말미암아自體矛盾을惹起하는點等은 그者의甚히理解하기어려운點이다 母論나는 春園의『사랑』과그의作品에親熟하여왓슴으로 그의思想的、雰圍氣만은딱딱히斟酌할수잇지마는 一步進하야나는淸等問題에對한 氏의文藝理論이 한個의分明한哲學的乃至科學的立脚地에서우러出發하야統一的組實을 보이는一다시말하면 한『體系的理論』으로形成되기를바라는者이다

◇

그의把持하는 人道主義思想一氏의私淑한杜翁부터原來그러하엿거니와一또그時代的意義에잇서서 何等科學的必然의根據를가진것이아니오더구나부는社會情勢의客觀的適應性을것도아니다 杜翁의思想과作品은 오히려當時露西亞의社會情勢에잇서서 幾多의適應性이잇섯다할것이나 春園의人道主義는 全혀現實的條件을無視하고아말로純粹理想論에不過하니만치 內容이確히空疎하다 春園은『人道主義의作品化하기前에 몬저『人道主義』一九三〇年代朝鮮現實社會에잇서서의必然的適應性』을 論證하얏어야하엿슬것이다 몬저그러한論證을 大衆앞에明示하기前에 덤허놋코그것을至大至上의眞理이거의無能한노릇이오 또한正이一個의『夢夢』이다할것이다 나는누구보다도 몬저 이一件에對하야氏도말미암아啓蒙되기를要望하는者이다

吳水香(三)

宋影

『며사람이죽고 만사람이죽어도 자긔들의 참고만이 늘어가면 그만이다』하는것이그들이처럼 더신망이놉흔 유지신사가 되여가는까닭의전부가되엿다

수향이는 이가튼 손님들도 실혓든것이다 입을한번찌자고해도한손으로지견한장을줘여주고 자긔들의 회시의직공들의 상여금을 엇더케하면 안주나하는 걱정들을하는 그러한 유지신사는 보기도실혓다

그러나 역시 아모런케나단가(短歌)나면마되하고 그렇게러 지내가고 말엇든것이다

四

한 잇해동안이나 이가티지냇다

지내갈사록 수향이의 일홈은 놉하가고 따라서지내는것은이중(二重)으로 판이배혀졋든것이다

이사람을맛나면 이러케변하고 저손님을맛나면 저러케변하여서 언케든지 그럴뜻한 환영을바다내려왓다

이러는동안 몸갑도감혓다

몸갑을 갑기컨에 몸갑반갑고나면 무슨노릇을하드래도 그생노릇은 그만두려하엿다

그러나 몸갑을 갑고나니까 역시 할것이업섯나 자긔의진심으로 웃는것이아니요 자긔본심으로 손님에게 안기는것이아니다 언케든지 나는나다 이것이 직업이다 손을 놀려서 버리하든 너직공이나 노레들 파라서 지내가는 괴생이나 버리해서 사라가는것은 맛찬가지다

얼마동안까지 상당한남편이 나슬써까지 이것을 그냥가지고잇자

이가튼 생각때문으로 수향이는 그저그생노릇을하고지내엿다

그러나 언케든지 방이면은 신문과 잡지들을보고 공책을서내노코 일긔도 써보왓나

세상사람들은 내가이노릇이 조화서하는줄알지어듸 나의남편이 될사람이잇슬가?

사실이지 수향이와가티 살자는사람은 아모철모르는누자집 서방님들이나 그러치안흐면 회사나 은행의 중역나부렁이들 밧기엇다

시간살림을 네맘대로 채장주마

우리마누라는 그러케강왓 아니다

나고가티살면 공부를 식혀주마!

모다이가튼 구호조건이잇섯스나 하나도마음이쏠리지가안혓다

각금 공부를더식혀주마하는 남자들이 말이 귀에솔깃은하엿스나 다시몃출지내고보면그 남자들은 트레머리한 녀자와 연애들하느라고 눈이뒤집힌놈이보혓든것이다

時調入選(一)

【三等】 新春 高蘊

三角山第一峰에 봄기운이이노매라
커기운빌리뻗어 이江山에덥혀지다
곳진지오렌등걸에 새움돋게하소서

【三 等】 滿洲살림 定州 石抱影

鴨綠江눈물배질 헤여보니十年일네
가슴을두드리며 痛哭하기몃번인고

【選外佳作】 고향신문 金廷漢

지금에南天을바라며 마음을끌없어라

백번 들여다봐야 애닯는고향신문 차라리 안본다면이속이리 안아플걸 그래도안보진못하고 매양가슴 뜰노라

◇

들엇는 고향신문 휘찢어서 내던지고 武藏野 저터들로 미친듯 뛰어나가 요보의분한가슴을 치며돌아 단엿네

폰、파스톨 羅馬라트란博物館所藏

新春文藝……【1】

懸賞作品選後感

小說……想涉

이번短篇은百五十餘篇이應募된모양이다 規定期限以後에接受한것과 合算하면 近二百篇이나 되엇슬것이다 紛忙中이요庶務的으로 도으는사람이닙기때문에 正確한數字는 알수닙다 그러나 或時無責任한刊行物에서 懸賞應募나讀者의數爻를 呼呼萬萬하듯하는 販賣政策的 假定數字를 公開치는안는다 新聞事業이 아모리所謂人氣商業이라할지라도 文藝만에限하야서는 그러商賈性質을 떠난것임으로이다 또日本의一流新聞가 든변 그十倍나되는경우도잇스나 朝鮮에서는『文學年鑑』이 아즉업는것과 國民一般의 文學乃至文化의普及程度人口의多寡等事情으로 생각한제百七八十篇乃至二百篇이라는應募가 決코少數일리업슬뿐아니라 본다리는아니러도從來朝鮮內의 各新聞雜誌社의募集하는短篇의應募數로서 破記錄이되리라고確信한다

昨年本社의 新春文藝의應募數(小說만에限하야)로보드라도 不過四五十篇이엇스니 비록今年에는同業一紙가업섯든關係라고보드라도 實로四五倍의多數에達한것은朝鮮의文運을爲하야慶賀할일이라고아니할수닙다 그러나 遺憾인것은募集期限이 不過二十日未滿이엇든것이니 따라서前記한바 日本의一流紙가募集하는期限이數三個朔或은半年間의餘裕가잇슴에比면 또한그應募數가만타고볼것이다

何如間그中四篇을 뽑앗다그러나 所謂一等에갈만한것이업승은 유감이다

『犧牲』을二等首位로奪기는하얏스나 實相二等갑세가는는좀不足한作이다 上半는조흐나下半一더구나終結에가서는大端히幼稚한結構이엇다 다만上半에잇서서 그內容이取할點이잇섯슬다름이다 그뿐아니라地方사투리가 만키때문에 더욱히 苦澁한것이 큰缺點이다結局에自己地方人에게만읽키게되는것이요 他地方사람은읽을수도업고 또理解한다하야도 語感에對한不快와沒理解를 늣길것이니 亦是效果에不充分을難免할것이다 標準語一京語를써야한다는 理由가 여긔에잇는것이다

終篇은創案하얏스나그래도좀더創案하고 여러곳에加筆을하여야할作品이다 오즉그內容으로보아서二等을주엇다 그러나實感이過審치안흐니만큼 後半은未熟한表相의所産이다

『비오는날밤』은內容은且置하고形式에잇서서一表現手法에잇서서 比較的整頓되고將來를期할만큼 完成되어갈作品이다 完成된作品이아니라 되어갈作品이라는말이다 長篇은바랄수는스나 短篇作家로서는 임의格을이누엇다고도할수잇다 그러나『想』이 脆弱치못하얏고 또범어나東洋的趣味에 어그러진點으로써二等의首位로 노치는못한것이다 父親에게合怨한다는것도 不美한것이거니와 召상하야밥을먹다가 父親은입살밥이요 自己에게는조밥이엇것다고 繼母에게 不滿을늣긴다면 그것은 到底히 容恕할수업는 속알머지업고 배호지못한者의탈이다 評者는 그表現手法을 앗가워하야父親을 異腹아오로고치고그外數個所를 修正하얏거니와그러치안흐면 落選하는수밧게업는作品이엇다 이러한欠點만업섯드면 一等은어려워도『犧牲』보다는훨신 나흔作品이엇다

또親의 집에서 나올때에 無奈者를爲하야 차우겟다고써노흔것은 넘우나 槪念的으로 時代意識을 表現하라는데 지나지안흔것이엇다 거듭말하거니와作에表現된作者의人格이좁다

『누님을못는날』이作品은스타일 氣分 作에表現된作者의人格과個性、原稿錯寫 居住地等이모나『비오는날밤』과 恰似또同一한『비오는날밤』의作者朱耀淳君과이作의筆者玄鎭君이同一人인가 別個의實在人物인가틀기社友員을通하야 調査하야본結果 玄鎭이란人物은업고 金玄鴻이란 學生이잇다함은確探하얏는데 兩者는親交가잇다한다果是同一人의作이지그러타면 그야말로『컨닝』이니 學校試驗의『컨닝』도 容許치못하겟거든 人格的所産인 貴重한文藝作品에잇서서 이러한 戲弄을하얏나면 到底히容納치못할일이다 이것이나의速斷이엇다면 나도다시 謝意를表할날이잇슬것이다

엇잿든 確證을 엇지못한일이기로 二等으로推選發表한러이거니와 이作도 內容은貧弱하나마 그表現의 纖細曲盡한點으로 確實히二等의價値는잇다 『비오는날밤』에서도 그러하지만 이作에잇서서 더욱히實感을주는데에만은效果를 엇게하얏다 그러나 그『시타일』이隨筆비슷한點에잇서서 二等第三位로推選되엇슴을附言하야둔다

『髮』 은龍頭蛇尾의作이다 前半의想은 엉히고 後半의構想은 完結치못하고 執筆하얏기때문에 실약은 作品이 되고만것이다 今後의 一層努力을 바란다

都是 이作者에限하야하는말이아니라한번當入選되었다고傲心이생겨서는아니될것이다 作家도 나서라번 얼만한修養과努力과 整斷가엇서야할外를어機會에 自省하고 굿게決心하여야하리라는 忠告를하야둔다

또한 이들作品도 그標準을低下하여서考選한것이지 萬一外國作品과 比肩할程度로보다면이 네(四)作品이 모다選一等式은하여야할것이요 그中에도『犧牲』과『髮』은 落選될것이다 그러면서도 前者를 二等首位로하얏슴은 그主題와 및主題에對한觀察에價値를 重視하기때문이다 거듭말하거니와『犧牲』의作者는 그『리얼』의幼稚에서 벗어나야 後日 그릇다운作家가되리라는것이다

……

그다음에 添言하야둘것은作品에 나타난 今時 靑年의思想이 (一)時代思想(맑시슴)인것 (二)絶望或은 彷徨的으로『니힐리스틱』한것 (三)藝術的表想에만主力한것 (四)氣分안은早熟하고 全然 無主義 無主張 無修養한것 (五)文學或은藝術에對한何等理解도업시虛榮的衝動으로 덤비는新等으로區分할수잇다는것이다 是非는내가 여긔에서 長提치안는다 다만時代風潮의 如實한表白임을여긔에서도 發見할수잇는것이답답한愉快라할外……

(一月一日夜)

新刊紹介

◇三千里(新年號) 朝鮮民族的代表의選出問題 新幹會解消問批判 新幹會全體大會光景 外來資本總觀其他文藝趣味記事滿載 定價貳拾錢 發行所京城府仁寺洞十九三千里社振替京城四二八四番

◇別乾坤(新年號)內容『一九三一年世界新展望』『學博士하야『年頭 書翰集』數篇을爲始論文集』數十篇外의『詩、小說、戲曲』附錄으로『家庭治療法大全』一冊定價五十錢發行所京城慶雲洞八八開闢社 振替京城八一〇六

◇新生(辛未新年號)內容『朝鮮學說에關한一考』를爲始하야『評論』『歷史叫考』『文藝』等數十篇滿載 定價十錢 發行所京城府西大門町一ノ七七新生社 振替京城三九八

◇靑年(新年號特大號) 定價拾錢 發行所京城鍾路二丁目九靑年雜誌社振替京城一〇三八番

謹賀新年

000028

盈德

慶北盈德邑內 時計眼鏡 平和堂時計店 朴○雨
盈德邑內 醫師 白行謹
盈德文化寫眞館 盧炳柱 劉銓壽
盈德幼稚園 園長 吳桂弘
盈德寫眞館 林炳甲
自動車部前新築落成 花笑旅館
盈德邑內 洋服專門 野城洋服店 吳浩根
司法代書 鄭桂滿
慶北盈德邑 姜孝允
盈德旅館組合長 鄭鳳岐 盈德旅館組合
盈德邑內 山岡旅館部 山岡自轉車部
盈德郡守 吳在淳
盈德 土曜會
江口 烏保 丑山 寧海 漁業組合
知品面長 金炯瓚 丑山面長 李炳喆 烏保面長 盧東植 蒼水面會計 權燦宗
寧海面事務所職員一同
盈德面事務所職員一同
達山面事務所職員一同
盈德邑內 眼科內科 一善醫院 公醫 金東喆 江口分院
盈德邑內 道協議員 文明琦
丑山港 金禎漢
蒼水面仁良洞 金相洛

盈德面三思洞 協議員 金灌培
江口港 株式會社 盈德運送店
江口港 韓圭烈
達山面大枝洞 李○長
丑山港 金重煥
丑山漁港期成會 會長 金武漢 副會長 田安秋
丑山面上元洞 李宗漢
丑山市場 定置漁業 海產物商 金井謙
丑山面景汀洞 朴福相
丑山港 趙永珏
知品面院前市 文德壹 林應桂
知品面新安洞 醫生 郭鍾國
知品面納谷洞 金柄澤 金在烈
南亭面長沙市 郭致泳
南亭面阜境洞 金道一
長亭洞酒釀造元
南亭酒造株式會社

彦陽

蒼水面仁良洞 釀造場 李尙鉉
彦陽面元町 全日順
彦陽市場通 文化商店
彦陽郵便所
彦陽金融組合
彦陽金融組合 理事 尹泳規
彦陽面 面長 金奎煥
上北警察官駐在所 部長 中山春三郎
上北釀造會社 文○煥
上北面德峴里 ○○所
上北弓根亭 金正洪
上北弓根亭 朴達元
上北鳴村里 鄭敦哲
上北面楊等里 金澄漢
彦陽警察官駐在所 淺原茂三 中道雄次 石塚百一 宋從夏 金同淑
蔚山郡上北面事務所 職員一同

上北面吉川公普校 宋錦 金敏
上北面登億里 金敬鎭 金敬洪
上北面池內里 醫生 朴芳佑
上北面川前里 朴萬千
蔚山郡三同面事務所 職員一同
禹進東
三同公普校 校長 朴誠烈
三同面保隱里一商店 辛仁
三同面荷岑里 勤業組合
三同面荷岑釀造場 辛東煥
蔚山郡斗西面仁甫里 張德根
斗西面九良里 金正學
斗西面事務所
斗西警察官駐在所
蔚山郡中南面新華里 中南釀造場
中南公普校
蔚山郡中南面 中南水利組合
中南面加川里 金寬伊

茂山

咸北茂山郡漁下面 面長 李冲夏
咸北茂山郡東面新站 金河龍
咸北茂山郡西下面 面長 蔡奎岳
咸北茂山郡延社面 面長 李昌昱
咸北茂山邑內 皮敏鎬
咸北茂山郡邑內明倫學院 太明
咸北茂山郡東面 新站學校
新站下丁場製材所 楊春先
咸北茂山郡三長市 蔡洙資
咸北茂山郡三長市 林春吉
咸北茂山郡三長市 崔東龍
咸北茂山郡三長市 崔國男
咸北茂山郡三長市 馬長云
咸北茂山邑內 李在鉉商店
咸北茂山 茂山製材工場
咸北茂山郡東面新站驛前 原木、電柱、枕木、製材品一切 製材工場 裵貞基 新站商店

咸北茂山三長市 金盛商店主 金浩楨
咸北茂山邑內 南漢壽
咸北茂山邑內 崔鎔德
咸北茂山郡邑內 崔敬奎
咸北茂山邑內 韓聖稷
咸北茂山邑內 崔大剛
咸北茂山邑內 崔壽德
咸北茂山邑內 崔明寶
咸北茂山郡邑 金漢榮
咸北茂山郡邑 許德
咸北茂山邑內 崔松鶴
咸北茂山 白山商會 運送部本店 支店新站、古茂山
咸北茂山邑 蔡奎漢
咸北茂山邑內 綢緞布木 各種雜貨 市場通 申君三本店 分店南山洞 主 申明熙 分店庫山 主 申成熙

謹賀新年

馬山

馬山府午東洞 全晟燉
馬山府午東洞 崔仁守
馬山殖産銀行支店 徐丙武
馬山府元町 精米所 電話二六六番 金周龍
馬山府俵町 明道奭
馬山府萬町 鶴南醸造場 電話二六八番 閔泳鶴
馬山府俵町 李壽勳
馬山府俵町 洛東醸造所 電話五一五番
馬山府萬町 金炯壽
馬山府俵町 全秉煥
馬山府午東洞 李三雨
馬山府午東洞 辯護士 林志泳 電話四二九番
馬山府午東洞 金宗錫
馬山府午東洞 李吉浩
昌原邑 赤城醸造所 謝澁鉉
馬山府石町 綢緞布木 朴成實 電話四二〇番
馬山府富町市場 海陸物産委托販賣都散業 在德商會 主 沈在德 專務 金斗植
昌原金融組合 金具景 尹昌鳳 益芝壽
馬山府午東洞 東洋精米所 主 李玄榮 讚玉
馬山府午東洞 東一貯蓄組合 組合長 金器榮
馬山倉庫會社 支配人 鄭永在

馬山府元町 內外雜貨商 永泰昌 電話四三二番 田正
馬山府元町 馬山獸肉販賣組合
馬山府石町 合資會社 進興帽子製造部 曹敬化
馬山府元町 和洋菓子 酒類 都散賣 振興製菓所 李昌熙
馬山府元町 海陸物産委托及貿易販賣 金成七
馬元府元町 海陸物産委托賣買 羅在善
馬山府俵町 永信堂眼鏡店 主 郭六志
馬山府俵町 司法代書 宣澈觀
馬山府元町 綢緞布木 金大容
馬山府富町 綢緞布木 慶一商店 禹道洪
馬山府元町 海陸物産委托賣買 李振萬
馬山府石町 金轍斗
馬山府元町 海陸物産委托賣買 明道洪 電話三三九番
馬山府萬町 貝付漆器 粧籠木器 木物各種 李泰雨
馬山府萬町 玉麒煥
馬山府壽町 米穀商 朴圭誠
馬山府石町 高級洋服 學生各種 附屬品 鷄林洋服店
馬山漁市場仲商組合
馬山商工協會
內西面檜原里 檜山酒造場

馬山府壽町 西洋洗濯及帽子部 貨泉屋 電話三〇九番 主 崔炳喆
馬山府午東洞 蓬萊館 電話二〇六番
馬山府通町 司法代書 金會守
馬山府萬町 東國齒科醫院 尹顯學
馬山府元町魚市場 李周一
馬山府元町 司法代書 辛容植
馬山府萬町 三省精米所 主 申三錫
馬山府萬町 李順弼
馬山府俵町 宋錫守
馬山府萬町 南昌醫院 院長 彭在業
馬山府元町 南士彖商店
昌原邑 司法代書 鄭旭宙
昌原邑 穀物商店 自轉車部 金鍾碩
昌原公立普通學校 校長 佐藤嘉十郞
馬山府元町 海陸物産委托及貿易業 金根守
馬山府元町 尹致斗
馬山府元町 綢緞布木 金琪銖
馬山府元町 海陸物産委托販賣 信正商會
馬山府元町 綢緞布木 朴千守
馬山府元町 各種帽子製造卸賣 洪普製帽店 主 陳洪普
馬山府元町 壽生堂藥局 高在有
馬山府元町 米穀商 李裕完
馬山府元町 靴 雜貨 山文商店 羅玉
馬山府元町 綢緞布木 劉性集
馬山府元町 海産物 木炭委托 乾物 黃又石
馬山府俵町 各國時計附屬品一式販賣修理 太陽堂時計店
馬山府俵町 人蔘 生芚 雜貨 紙物 大成商店 主 金泳禄
馬山府石町 永美理髮館 林奉基
馬山府元町 海陸物産委托賣買 李命坤
馬山府元町 洋靴店 電話三四二番 全萬 朴淳直
馬山府元町 綢緞布木 千鶴植

馬山府元町 金性範
馬山自動車部 電話三三三番 金
馬山府元町 丸金貨物自動車部 電話五〇四番 金斗卜
馬山南鮮券番 電話三三三番
馬山府壽町 米穀商 朴順明
馬山府富町市場入口 馬山婦人商會 主 朴敎完
昌原穀物檢査出張所 職員一同
內西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馬山府通町四丁目 司法代書 諸葛植
馬山府上南洞 合名會社 日新商店 代表社員 朴斗成 電話二六〇
內西面山湖里 林枝春
馬山府俵町 牛皮貿易 朴有善 電話三二五番
鎭東面事務所 職員一同
馬山府俵町 漢陽館 電話四二五番
馬山元町 內外國藥種 賣藥 化粧品 百和堂藥房 主 南佑祜 電話七〇番
馬山府元町 商業貯蓄組合
馬山府石町 永順昌商店 主 徐順正 電話三二五番
馬山府元町 海陸物産委托 金漢榮 電話七番
內西面山湖里 區長 李起萬
成安郡山仁面雲谷里 趙鏞吉
馬山府元町 革新堂藥局 主 徐奇碩
馬山警察署 田村署長
馬山府萬町 李活
馬山府新町 醬酒 酒 玉昌醸造所 主 玉千福 電話三一三番
馬山府石町 蔘茸 唐草 新藥各種 廉價販賣 朴相采乾材局 電話四〇五番
馬山 元東貿易株式會社 南璣祜

馬山府元町 兄弟商店 電話三〇六番
馬山府萬町 具然八
馬山府俵町 曹潤鎬
馬山府石町 朴成則
馬山府俵町 辛雨植
馬山府元町 海陸物産委托賣買 金尙基
南鮮券番 金玉桃
馬山府元町 米穀商 金斗鎬 電話二七六番
馬山府石町 朴周鳳 印男
馬山府俵町 朴正學
馬山府石町 金銀細工各種 佩物各種 化粧品 開元商店 金相晉
昌原郡熊南面月林里 李相百
馬山理髮組合
馬山府石町 工商貯蓄組合
南鮮券番 金菊姬
馬山府 綢緞布木 洋品雜貨 우리布木商店 主 李廷榮
昌原鍼灸治療院 鄭鳳燮
昌原中和醫院 鄭志薰
昌原城內中洞里 金弘均
昌原公立普通學校 趙鏞材
馬山府元町 丸武商店 電話四七〇番
馬山府本町二丁目 金德五
馬山明太仲商組合
馬山府壽町 壽樓
馬山府石町 藥種貿易商 五行堂藥店 電話三二一番
馬山府元町 海仁商店 主 申鉉敎
馬山府萬町 文化印刷所
馬山府萬町 和信工業所 主 河桂柱
內西面檜城里馬 李壽建
合山貯蓄組合
馬山府石町 有名賣藥製造 保生堂藥房本舖 康仲袞
馬山府俵町 府協議員 徐光遠

馬山殖産銀行支店 李起漢
馬山府俵町 安承運
馬山府萬町 正宗醸造 和酒 食料品 都散賣 三榮商會 電話取次四〇九番 主 崔泰勳
馬山府元町 和洋菓子 酒類 馬山三星製菓商會 本店 馬山午東洞 支店 馬山元町 主 朴尙淑
馬山府元町 馬山洋服店 電話三四二番 主 李元煥
馬山倉庫株式會社 電話三三一番
馬山府上南洞 金達憲
馬山公立普通學校 上原榮、川上三喜惠、李遂榮、久保省一、福田鶴周、正文、嚴基澤、李小守、李敎徵、蔡用源、今福康、惡久奕、金有奎、魂在健、河受源、李源侯、東川方、田邊奕、貢明奎、李蕃基、李貫南、松尾ツノ、甲守、沈ト文、秋守仁、上野榮、成栗淑
馬山繰棉工場 電話一三七番
高級旅館 馬山萬町 昌原溫泉所 馬山萬町 昭和タクシー 電話二二二番 主 金季鷹
馬山府俵町 李祐植
馬山府元町 元東貿易株式會社 電話二〇七番 二〇八番
馬山府午東洞 水山醫院 院長 崔益根
馬山府萬町 道評議員 金泰鎬
馬山府元町 合浦社
馬山府萬町 産業金融株式會社 電話四〇九番
馬山府萬町 紙文具壽南商店 主 曺京錫 電話四二二番
馬山府俵町 酒類雜貨 文具紙物 三角商店 電話五二番
馬山午東洞 各種酒類 食料品雜貨 文德賛商店 電話取次二〇六番
昌原郡廳
馬山府通町 辯護士 徐基弘 電話二七〇番

昌原郡朝鮮酒酒造組合
馬山府朝鮮酒酒造組合
馬山商工貯蓄組合 組合長 金轍斗 理事 金九炫
馬山府石町 穀物貿易 禹龍浩
馬山府富町 綢緞布木及洋品類都散賣 三元商會 主 李晉九
馬山相信貯蓄組合
馬山農工貯蓄組合
馬山公立商業學校 職員一同
馬山府萬町 三角醫院 院長 金炯轍 電話三〇一番
馬山府萬町 三山貯蓄組合
昌寧邑 道評議員 河駿錫
馬山府新町 府協議員 具麟旭
馬山府元町 綢緞布木 李基一 電話一四一番
馬山府俵町 和洋菓子カス テラウヰスキ ビールプラン テカンズメ 金星堂製菓所 主 朴三祚 電話取次百番

高靈

高靈警察署 職員一同
高靈郵便所長 久野逸三
高靈邑內 李正根
高靈邑內 佐井猛夫
高靈酒造株式會社
高靈郡延詔洞 鄭雲漢
高靈邑內 道評議員 鄭雲奭
高靈大正精米所 李正毅 李小坤
高靈延詔洞 李正圭
高靈邑內 穀物商 金元賢
高靈邑內 綢緞布木商 榮甲

高靈邑內 金星理髮館 張錫祚
高靈邑內 高陽理髮館 兪鳳植
高靈邑 司法代書人 林聖軾 森澄松 兪百植 文佑兌
高靈邑內 周源
高靈邑內 兪炳植
高靈邑內 穀物貿易商 都永燮
高靈邑內 車轍
高靈邑內 公醫 閔丙禹
高靈砂防事業所 高木直一
高靈郡本館洞 李侄
高靈郡新洞 沈錫敎
高靈郡池山洞 卞瓊天 朴順凞

高靈印刷所 李相鳳
雙洞面 職員一同
高靈面 職員一同
德谷面 職員一同
雲水面職員一同 外面長 金在烈
星山面職員一同 外面長 朴萬熙
開津面職員一同 外面長 朴根煥
茶山面長 李根泰
牛谷面職員一同 外面長 朴在永
林泉面職員一同 外面長 白雲成

高靈邑內 京城洋服店
星山面於谷洞 龍山醫院 朴濟億
星山面午谷洞 文在天
茶山面上谷洞 李潤世
茶山面上谷洞 李基淳
德谷面玉溪洞 朴命術
德谷面良山 圭且
雲水面鳳坪洞 洪鍾徹
林泉面酒造場 兪昌植

高靈郡廳 職員一同
高靈營路 慶尙自動車部 生部又一
高靈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星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雙林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開浦酒造場 直洞酒造場 加倫洞酒造場 得成酒造場 中化洞酒造場 丁朴都事 李根鎬 甲

平海

寧海武田支店 金聖九
平海面事務所 職員一同
平海曲子製造組合 組合長 黃浩一 理事 李圭信 技術員 黃且東
平海酒造株式會社 役員一同
平海市 朴無名氏
平海砂防事務所 池龍成 朴德孫 南容燮
平海市 華商同興和
平海市 司法代書 崔俊煥

寧海酒造組合
寧海面邱谷洞 田容茂
慶北寧海市 金盛理髮館 金孝道
寧海甕器販賣 金學汶 金基守 金孝鉉
慶北寧海市 自轉車 時計 特約店 大成商店
慶北寧海市 綿布雜貨 各種食料品 石油 文房具 姜翰秀商店

寧海有志 二六會

朝鮮日報

其三

過去一年間의 運動競技界 (三)

李源容

野球篇

朝鮮에野球가드러온지近三十年에 純全한同胞野球團으로서 海外에進出한일까지잇섯고 또는在京日本人野球團의勢力을壓倒하야 新紀錄을作成한일도잇섯스나 庚午年野球界로말하면 一般으로不振된狀態에서終하엿섯다 對內對外의活動에 何等特記할만한事項이업는중다만 斯界先覺徐相國氏等의發起로 高麗野球團을組織하야 立敎大學과 對戰한것과野球審判協會를 創立하야異論만든 問題를統制할만한 機關이成立된것으로써 不振되든斯界의 一異彩를放할뿐이엿다 序幕戰은三月下旬에來京한鹿兒島商業對京電의試合을들으로삼어서 八幡製鐵所野球團이四月中에來京하야快技를示하고 春季實業聯盟戰이開始되여 京電 鐵道 遞信 殖銀四團이混戰亂鬪를演하다가 殖銀이優勢하엿스며 專門學校野球聯盟戰에는 醫專 法專 高農 高商 高工等이出戰하야醫專이高工을이겨서優勝하는等日本人側에는相當한旗幟를呈하엿스나우리朝鮮人側에는 寂寥不振하야 活躍을볼수업섯더니 五月에드러서中央高普와徽文高普가相對하야 徽文高普가快勝한것으로써開幕하엿다

朝鮮體育會主催 全朝鮮大會

朝鮮體育會에서는 年例에依하야 第十一回全朝鮮野球大會를 六月十六日부터 京城運動場에서開催한바小學部에四團體 中學部에四團體 青年團에六團體가參加하야자못盛況을呈하엿다

小學團優勝은 攻玉普通校

小學團에는 校洞公普 徽新公普 惠化公普 攻玉普校가出戰하야 攻玉은六對五로校洞을打破하고 惠化公普는棄權하야最後로 攻玉과校洞이決勝戰에相對하야十五對二의記錄으로攻玉이優勝하얏다

中學團優勝은 中央高普校

中學團에는 徽新學校 中央高普 徽文高普 松都高普가出戰하야 中央은十七對三으로徽新을 屈服시키고 松都高普가棄權하야 中央과徽文이 優勝戰에相對한바 兩軍烈火가튼接戰을演出한後四對三으로 中央高普가優勝權을차지하엿다

青年團優勝은 京電電車課

青年團에는 全徽文 開城商事 京電電車課 群山拓友 延專럭비團等 往年에보지못하든多數團이出戰하야 第一回豫選에 全徽文對開城商事는 八對六 延專對群山拓友는 十七對二의記錄으로 全徽文과延專이得勝하야 準決勝戰에 電車課對全徽文은十四對四 延專對럭비는十七對二로 電車課와延專이各其得勝하야 優勝戰에電車課는 五對四의記錄으로延專을물니치고優勝하야 覇權을掌握하엿다

本社主催 中學리ー그戰

全朝鮮野球大會가 終了한後바로十六日부터 本社主催第四回中等學校리ー그戰이 開幕되엿다 今回의出場校는 徽新中央徽文의三校로서 第一日徽文對中央은 兩軍激烈한打擊戰을演하다가 畢竟에는十三對七의記錄으로 徽文高普快勝하엿스며 第二日 徽新對徽文은 徽新善鬪하야强敵徽文을苦戰에陷케하엿다가不及되여 七對六으로 徽新惜敗하엿스며 第三日中央對徽新은 中央이猛襲을開始하야 二十對七로 大勝하야 中央과徽文의 對戰은 非常한人氣를集中하엿다 第四日中央對徽新 第二回戰은 中央의追及도効用을奏치못하고 十對七로 徽新이快勝한後第五日徽新對徽文 第二回戰에徽文은十七對六의大差로徽新을再次屈服시켜서徽文이優勢를示하면서第六日中央과의第二回戰은本리ー그의優勝을左右할重要한試合으로서 野球界有史以來空前의大盛況裡에兩軍戰鬪의幕을開始한바 二對一의記錄으로中央이優勢를示하면서 第四回裡에 中央打者賓永福君의「번트」한選이打者身體에마저서 主審과徽文監督李鍾九君의見解가相異하야紛糾를一時間餘나거듭하다가審判의辭任과徽文軍의讓步로試合은續行하다가三壘走者李鍾君과徽文捕手安鍾岩君의衝突로試合은「노ー게임」이宣告되며 流會가되엿슴은斯界를爲하야遺憾스러운일이엿다

延醫定期試合

年例에依하야擧行하는延禧專門對醫學專門定期戰은六月十六日 第一回戰에十四對六으로醫專이得勝한다음에 十七日第二回戰에는九對五로延專이雪辱하야그 決勝戰을二十七日擧行한바十對一의記錄으로醫專이優勝하엿다

名星들을網羅한 高麗野球團

斯界를代表할만한朝鮮人側團體가업슴을恒常遺憾으로 여기든차에先覺中의 一人徐相國氏가 東奔西走로努力한結果六月二十六日午後八時半에有志諸氏들이 金剛軒에會合하야高麗野球團을組織하고 멤버ー外지決定한後 七月二十一日夜에 在京各野球團과新聞社代表者들을明月館으로 招請하여다가 發會式을擧行하엿다

慶大軍來京

東京六大學野球界의覇者慶應大學野球團은 京城日報社의招聘으로來京하야 京城運動場에서 七月十二日對鐵道戰에는六對○ 十三日對遞信戰에는六對一 十五日對殖銀戰에는十一對三으로在京野球團을總히打破하엿스나遞信의金永爽 咸龍華雙러리ー와 殖銀投手李榮敏君의奮鬪는一頭地를拔한中李榮敏軍은中堅欄越大本壘打를켜서萬丈의氣焰을吐하엿다

野球審判協會 發起總會

우리野球界에서 審判問題로因하야 여러가지問題가發生되여 球技進步上一大障碍가됨을遺憾으로生覺한先覺徐相國氏外二十餘人의發起로朝鮮野球審判協會를設立코저 그發起總會를七月二十四日午後八時半本社樓上에서開催하야 諸般準備를着着進行하다가九月十三日午後七時에本社樓上에서 創立總會를開催하고 任員을選擧하야 완全히誕生하기에이르럿다

實業野球決勝

朝鮮各地에서代表팀을選拔하야 全朝鮮實業野球界의優勝者를決定하는一方 東京에서開催하는都市對抗野球戰에朝鮮代表로出戰할資格을付與하는實業野球優勝戰은 七月二十五日京城運動場에서擧行한바 優勝候補도自他가共히認定하든 殖銀은平鐵에게 三對二로屈服한後 大邱는殖銀에게十二對四로 參降하고나서 平鐵에게도七對零으로 大敗한結果 平鐵이 優勝하엿다 이에出戰한殖銀李榮敏投手 平鐵의趙龍能捕手 大邱의金貞鎬捕手 崔世元外野手의攻守兩方의活躍은稀有한戰績을남기엿다

立敎大學來京

東京六大學리ー그의 花形立敎大學野球團은 京城日報社招聘으로 來京하야八月五日京城運動場에서 高麗野球團과對戰한바 高麗軍은組織以來日淺한關係로練習이 不足하고「팀워ー크」이 整備되지못하야 六對零으로敗戰한後 立敎軍은 鐵道와遞信에連勝한餘勢를驅하야 殖銀과對戰한結果 李榮敏投手의奮鬪로서二對一의 白兵戰으로凱歌는殖銀이高唱하얏다

全鮮野球爭覇 中央豫選大會

京日主催全朝鮮野球爭覇戰中央豫選大會에는 純全한朝鮮人野球團電車課가 決勝戰에慶熙와相對하야 奮鬪하엿스나最後의逆襲을當하야 八對七의記錄으로써惜敗하엿다 그後八月中旬에 長崎高商과名古屋商業이來京하야 殖銀遞信鐵道京電과 相爭하엿스나敗戰을當하고退京하엿다

大阪朝日主催 中等野球豫選

大阪朝日新聞社主催第十六回日本全國中等學校野球大會에出場할資格을付與하는第十回朝鮮豫選大會는 七月二十八日부터京城 龍山兩球場에서擧行한바參加二十六個學校가 六日동안을連續亂鬪하야 最後決勝에大邱商業이二對○으로龍山中學을打破하고優勝하엿다 그런데이大會에出戰한朝鮮人側學校로는培材高普釜山二商東萊高普 滿州高普 大邱高普 徽文 南浦商工等으로서 優勝候補의一로指目되는 培材高普는第一回豫選戰에仇敵京城中學을十一對五로打破하야 氣勢大振한中一勝者戰에서 仁川南商業과對戰하야 優勢를支續하다가最終回의連失로서 八對六으로惜敗하야萬事는水泡에도라가버렷다 그럿치마는 優勝한大邱商業軍의同胞選手揚一得 片潤順 吳命五 崔達壽諸君의攻守의活躍은恒常同軍의 主要한勝因을作成하엿다

全朝鮮野球爭覇 遞信優勝

全朝鮮各地에서 豫選을擧行하야代表團을 決定한結果釜山 平壤 全州 大邱 新義州 咸興 京城의各團이參會하야最後決勝戰에中央推薦遞信은 咸興代表新義州를十對二로打破하야 優勝의榮冠을차지한바遞信에잇서리ー永爽 咸龍華君의活躍과中成龍華君은左越大本壘打를打하야 萬丈의氣焰을吐하엿다

日本中學招聘戰

朝鮮新聞社主催로 日本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에奪覇한松山商業과 大連商業을招聘하야 龍山中學 京城商業을加入하야 리ー그戰을擧行한바松山商業이 鮮拔의成績을示하엿다

秋季實業野球 殖銀優勝

秋季實業聯盟戰은 九月十四日부터開始하야 京電은依然히不振하여最下位를甘受하지아니하면 아니될狀態에잇고 鐵道 殖銀은互相龍虎를爭하야 觀衆을熱狂케하다가 殖銀은最後로鐵道를三對○의記錄으로打破하야優勝하엿다

四俱樂部聯盟戰 全徽文優勝

例年에比하야더욱不振하는同胞野球界의唯一의輿戰制인四俱樂部聯盟戰은 培材와徽新이參加치안코中央徽文兩軍이九月二十五日徽文球場에서 相對하야第一回戰에는六對三으로 徽文이 第二回戰에는五對二로中央이各其一勝한結果 그決勝戰은多大한興味를集中한 盛況裡에二十七日開戰하야 中央의善戰도不及되여 九對五의記錄으로 徽文軍凱歌를高唱하다

奉天滿俱來襲

滿洲野球界의覇를唱하는奉天鐵道軍은大擧來京하야 九月二十八日龍山鐵道를七對一 翌日殖銀을八對零으로打破하야覇者의貫祿을發揮하다가 龍山鐵道와第二回戰에六對二로屈服하고退京하엿다

神競專門部에 醫專優勝

朝鮮神宮競技專門學校對抗戰은 十月十二日부터開始하야大豫對齒專은十六對一 醫專對高商은六對二로大豫와醫專이各其一勝하야兩者間에決勝戰을擧行한結果九對零으로醫專優勝하다

中等學校에는 大邱商優勝

中等學校對抗戰은十月十四日부터開始한바 豫選戰에京師對釜山一商은 八對六 培材對大邱商業은六對一로 朝人側出場校培材와釜山二商은落한後平中對仁商은三對二 京商對龍中은七對一로平中과京商이各其一勝하야準決勝에서京商對京師는六對五 平中對大商은六對一로大商과平中이이겨하야最後로兩者間의決勝戰은三對一로大邱商業이優勝한바商業揚一得外三選手의活躍은依然히一頭地를拔하엿다

實業團對抗은 平鐵優勝

實業團對抗戰은 豫選戰에殖銀對衆二浦三菱은三對○平鐵對新義州는四對三으로殖銀과平鐵이各其一勝한後準決戰에平鐵對全州는六對五 殖銀對釜山은七對六으로殖銀과平鐵이又勝하야 兩者가優勝戰에相對한結果 四對一로平鐵優勝한 殖銀投手李榮敏君과平鐵捕手趙龍能君의殊勳은賞讚할價値가充分하엿다

兒童野球大 校洞普校優勝

中央高普主催와 某日報後援의第三回兒童野球大會는 十月十一日부터 徃洞高普運動場에서開幕한바 一回豫選戰에 渼洞對孝昌은五對五로渼洞이得勝하고 第二回豫選戰에貞洞對昌淼은十三對三으로貞洞 校洞對攻玉은四對三으로校洞 惠化對齊洞은五對一로各其得勝하야 準決勝에 渼洞對貞洞은三對二로渼洞 校洞對惠化는十二對八로 校洞이各其이겨서決勝戰은十一月一日 校洞과渼洞사이에열린바 十對一의記錄으로校洞公普優勝하엿다 上記한經過로써 庚午年界의大勢는一般으로不振沽躍의度나 進步의跡이업는遺憾이어니와 野球界의大李榮敏君의對慶大時의痛中越大壘打와 咸龍華君의朝鮮爭覇戰時의 左越大本壘는 賞讚할價値가充分하며 野球團의創立으로써 만흔斯界를 뭇칠셈이다 辛未부터는 各中等學校에서奮鬪하야 斯界의士氣를作成하야 慾境에빠진野球界를復興시킬셈이다

庭球篇 (一)

朝鮮에輸入된運技中 가장發達의程度가 普遍化되여 男女選活躍하는範圍가廣濶하야 內에서 日本人側을壓倒하는優勢를支持하는것은「팀이」로서는 庭球밧게업슬것이다 庚午年中에 地方細胞團서主催한對抗競技와 或等은 그數를헤아릴수업슬만치 多數에達하엿거니와 京城에서는體育會主催全朝鮮庭球大會가 庚午年「씨ー슨」의開幕을裝飾하엿다

朝鮮體育會主催 全朝鮮大會

朝鮮體育會主催第十回全朝鮮庭球大會는 五月九 十兩日間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擧行한바出場團體는 小學部에는攻玉과啓星兩校가出하엿슬뿐이고 中學部에는 中東 中央 實修 徽文 儆新 普成 鑑正等七校와 青年團에는延專A B 普專A B 法專 世專等四校가出戰하야 자못激烈한接戰을演하엿다

少學團優勝 啓星普通校

小學團에는다만啓星攻玉兩校가出戰하야바優勝戰을擧行한結果로啓星의活躍이猛烈하야李理學 朴益淼組가優退한外에敗戰組는업시快히優勝하엿다

中學團優勝은 儆新學校

中學團第一日豫選戰에 中東對實修는 中東의氣勢大振하야優退一組와 不敗一組의成績으로中東이이기고 儆新對徽文은兩校互角의勢를支續하다가 儆新後衛 李鍾馹의 巧妙한「플레이」로 最後에優退同志의對戰에드러가儆新快勝하고 鑑正對中央B는鑑正이優退一組와不敗一組의勢로快勝하고普成對中央A는 中央邑成九組가 優退한다음에 普成李榮信組가奮鬪하야 頹勢를挽回하려하엿스나 不及되여 普成惜敗하고나서 準決勝에드러가中東對儆新은 儆新李鍾馹의善鬪로中東은 零敗하고鑑正對中央A는 兩軍伯仲의勢로優退同志對戰에서 激戰을演하다가中央이惜敗한後 儆新對鑑正優勝戰은 最後優退同志對戰에 鑑正惜敗하야 儆新學校에 第二年優勝하엿다

青年團優勝은 普成專門

青年團豫選戰에延專A對普專A는普專優退一組와 不敗一組를남기여得勝하고 延專B對法專은試合中途에 日沒로因하야延期하엿다가 翌十日에續行하야延專B가得勝하고 準決勝에드러가世專對延專B는 雙方優退一組式出하야普戰하다가世專得勝하고普專A B의對戰은至極平凡하게A가得勝하야 普專A對世專의優勝戰은世專零敗하야 普專은連三年間優勝하엿슴으로同大會優勝旗를永久히獲得하엿다

全鮮實業庭球 張元珍優勝

第十三回 全朝鮮實業庭球大會는五月十一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開催한바 參加五十二組中 最後決勝戰에 鐵道張元珍組對殖銀洪承武組가相對하야 四對一로張元珍組가優勝하다

本社主催로 女子個人庭球 千奉順組優勝

全朝鮮女子庭球界의 選手權을決定키爲하야 本社가主催한第一回全朝鮮女子個人庭球選手權大會京畿豫選은 六月七日京城運動場에서開催한바 參加組가二十八組에達하야 자못盛況裡에서千奉順 林光子는最後決勝戰에 女子商業與英淑金順禮組를五對三으로打破하야京畿選手權을獲得하엿다

少年庭球大會 徽文優勝

朝鮮新聞社主催少年庭球大會는 六月八日京城運動場에서開催한바參加六十九組中 最後決勝戰에 徽文高普趙金組는培材高普金李組를四對二로이겨서優勝旗를차지하엿다

開城中央會主催 庭球大會

開城中央會館體育部主催와開城體育會及本社開城支局後援의 第一回全朝鮮庭球大會는 六月七日松岳俱樂部「코ー트」에서開催한바 參加十個團體中에서最後에普成專門對漢陽俱樂部決勝戰은 兩軍激戰을演하다가普專部仁珍組는 漢陽俱樂部李鍾規組에게敗戰을當하야 漢陽俱樂部가優勝하다

中央校優勝 六中等聯盟戰

市內六中等學校春季庭球聯盟戰은六月十日開幕하야 鑑正 普成 中央 儆新 徽文이出戰한바中央高普一戰四勝의記錄으로써優勝하엿다

個人庭球 咸炳文組優勝

法學專門學校主催第五回全朝鮮中等學校個人庭球大會는 六月二十一二兩日間 法專코ー트에서開催한바參加二十四校選手六十組가奮鬪하야最後로中央高普對鑑正高普決勝戰은鑑正咸炳文金昌德組가二年優勝하엿다

元山體育會優勝

元山體育協會主催元山庭球리ー그戰은 六月二十九日元山郵便局코ー트에서開催하야決勝戰에元山體育會는海關俱樂部를打破하고優勝하엿다

謹賀新年

000029

安邊

安邊公人俱樂部

安邊支局 朴在順 李啓文 李鍾馨

安邊支局顧問 金元燮

培花消費組合 組合長 崔時煥 副組合長 李賢圭 理事長 金洪錫 監査 朴熙斌 監査 李大錸 理事 韓炳稷 理事 李璡浩 書記 金景集 書記 宋昌鎬 書記 金弘相

安邊邑內 外科産婦人科 濟惠醫院 醫師 金李鎬

瑞谷中里 元山特酒 元山釀酒所 瑞谷出張所 主任 金鳳麟 外交 金基洙

朴季鉉

培花面所 面長 張河根 書記 柳商烈 書記 金溶琳 技手 張炳郁

安邊森林組合 衛生文山面駐在 瑞谷面駐在 培花面駐在 崔完道 周洛楨

文山學校 校長 崔達龍 敎員 裴瞬南 敎員 朴金

新興學校 校長 韓河 敎員 李重林 會計 陳基業

安邊農業補習學校 敎諭 金錫信

安邊驛職員一同

京元線安邊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安邊代行營業所 代表 金元燮

東海北部線梧溪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代行營業所 代表 金自能

安道面職員一同

安邊郡新茅面公須田里二〇八 內外雜貨 各種布木 恒元商店 主 李炳恒

金利集

龍岱支部代表 全朴文集

安邊瑞谷中里 大成全興釀酒所瑞谷出張所 主 外交

安邊邑內 城釀酒所

有志 金庾浩

尹濟善

宋在根 金秉律

培花雲川 崔東直外二人

有志 元鵬喜 有志 金大欽 青年 梁在明 有志青年 文錫進

新茅面東明醫院 徐尙弘

同志 金鵬振

安邊邑內 黃鋼欣

劉道烈 金鍾裕 金澈幸 面書記 金澈永 金鍾斌 金澈鶴 金秉默 金義集 李峻榮 嚴大元 黃萬吉 禹英俊 柳教鋼 姜允昊

有志青年 劉丁晳

新茅面公須田里 永信商店主 金永坤

文昌醫院 全潤郁

有志 金達千 崔文弘 崔達斌 李奎三 李錫柱 周晃鎬 朴晉鉉 金尙潤 金道彬 朴秉潾 朴爽勳 李京鶴

陰城

陰城郡孟洞公立普通學校長 高島達 外六人

陰城郡陰城面碩八里 韓相八

陰城郡遠南面長 宋淳永

陰城郡遠南面南川里 潘采璜

陰城郡大所面長 柳升秀

陰城郡大所面公普校長 沈鍾燮

陰城郡金旺面無極里 大成精米所 閔庚承

陰城郡金旺面無極里 永成理髮館 金允玉

陰城郡金旺面新陽里 鄭壽鎮

陰城郡金旺面新陽里 日新釀造場

陰城郡金旺面新陽里 李鍾洙

陰城郡笙極面新陽里 金甲

陰城郡笙極面梧岩里 李容

陰城郡蘇伊面中洞里 任達須

陰城郡蘇伊面大長里 申轅均

忠北線蘇伊驛前 米穀肥料 滿洲粟 委托販賣 倉庫業 朴珍陽商店 振替口座京城三九一一 電話〇又

忠北線蘇伊 共立物産倉庫會社出張所 取引店 朴珍陽運送部 振替口座京城三九一一 電話〇又

忠北線蘇伊驛前 三友商店 主 朴勝元

陰城郡蘇伊面事務所 趙憲昌 申惠鉉 李炳昌 崔太石 南範熙 李丙德

陰城郡蘇伊驛前 大長釀造所

陰城郡邑內里 自信洋靴店

大所公立普通學校長 沈鍾燮

長湖醫院無極出張所 文永

陰城邑月華館 妓 崔錦花

陰城邑月華館 妓 山紅

三成海一釀造所

陰城郡無極濟生醫院 李良圭

陰城郡陰城面邑內里 實一釀造所

陰城面所 書記 鄭致永

陰城郡三成面 面長 權寓

陰城郡大所面 面長 柳升秀

陰城郡遠南面 面長 宋淳永

陰城邑 李鳳榮商店

陰城邑開城旅館 崔弘烈

陰城郡大所面城本里 崔基鴻

陰城郡邑內月華館 李桂月

陰城醫院 林在觀

에로·그로·넌센스 亂舞한 諸尖端相 【三】

一九三○年尖端職業 마니큐어껄

『노ー』라고거절할사내가누구? 부드러운솜길이리발소에서기다려
손톱깍는삯은녀로히바더

본정(本町)이정목이구에잇는명치정(明治町)골목의 리발소(理髮所)의자에 걸터안젓다 리발사가머리를 다깍근뒤에 부드러운녀자의 손가락이 솜그머니 손님의 손에부다친다 감촉한것 커럼깜작놀라 손님이도라보니 삼키고십흘만치어롬다운녀자가쌩긋웃지안는가?

『손톱을 깍거드릴가요!』옥소리와지구슬을굴리는것갓다 무어라고 대답할지모르는 사이에『녀자는』손님의저테의자를쓰러다놋코 안저서 손님의팔을쓰러다가 무릅우헤올려놋코 일을시작한다

고래로 녀자에게실업슨 소리를거렷다가 창피를 당한사나히는흔이잇서도 녀자가 요러케까지 달려붓는데 『그만두어』하고손을꽤색리칠사나히는잇기드물것이다

대개의손님은『노ー』라고할용긔가업서서 그냥 버려둔다그레구서『다되엿슴니다』고할때에자긔의 손길을 구버보면그모양이 고양이발톱처럼 뾰죽한것이 좀망칙하나 맑숙한것이 그러케 흉하지도안타ー

그러나『마니큐어껄』(美爪師)이잇는 리발소에 좀멋세하시려면리발료외에 손톱깍는삯을『포켓트』에작만할필요가잇는것은물론이다 썻내가 무릅무릅나는작업복옷을 몸에걸채 리발소에드러가시면아마『마니큐어』의코웃흔 셀죽도라질것이다 지나간 일천구백 삼십년에조선도왜 노라난모양이다 어쩌게 사지는 활동사진에서나 구경하고 중학교선생님들은 머리를 휘휘내젓는『마니큐어』가거짓이아니라 서울진고개에 정말나타나고 평양(平壤)부산(釜山)에와지도『마니큐어』는그들의무긔(武器)인『마니큐어·세트』를 가지고진출하야 데야머리의 신사들까지 수연만장(氣焰萬丈)의희비극적뜬정을 짓게한다고하니 지나간 일천구백삼십년의첨단상(尖端相)의하나이여다

算術能한 學者犬

◇갈채가비상햇다

◇작년십월 삼일 경성시내『미나도』좌에는학자견(學者犬)이라는개한머리가 낫타낫섯는데 엇지하야 학자견이냐하면 개가사람모양으로 지리(地理)력사(歷史)산술(算術)가튼것을능난히한다고 하는것이다 악인제안이라 개가사람모양으로 산술도하고 력사도알도 지리도안다고하면참말 히한한일이며 세계적으로굉장한 선전을 하는것도무괴한일이다 그리하야 그날부터미나도좌에는 련일대만원의 성황을 이루어 이개를가지고왓는자는착실한 돈버리가 되엇는데 그실지광경이 엇더하얏드냐하면 관중가운데서 단상에서개에게대하야 『돌에셋을승하면얼마냐?』하고누르면개는『육·시』『륙』이란글자를 입에물고 나와서관중에게보혓다 또『미국긔사발이어느것이냐?』하고누르면개는각국긔사발이걸니어잇는가운데미국긔사발만 입에물고 관중압헤나선다 이와가티 이학자견이라는개는 사람의말을 알우듯는것은물론이요산술(二三六)이라는승법을 해득하는것 갓치보혓다그러나 개가엇지 사람모양으로감승제의 산술을 농란히하며사람의말을 알아듯고 력사지리에대한 대답을할수 잇겟는가?말하자면개의청각(聽覺)이발달된것을 리유하야 사람등뒤에서암호로써 식히는것이다 그럿치만청각이그만큼발달되고사람의식힘을 어김업시 실행하는것만이라도 신긔하다고 안니할수업는데 이개는 일본(日本)『도ー미』라고부르며 경찰견군용견(軍用犬)이상의령리한두뇌를가젓다고한다

맨발에구두신기와 두겹양말유행

학대밧는녀자의다리

일천구백삼십년 녀자의미(美)는『레뷰껄』의 밋근한다리로집중하엿다 그래서 도처에서녀자는 그다리에란숙한『이트』와 일천구백삼십년형(型)의 미(美)를 발산식히기에 전력을다햇스며 사나희들의 추군추군한시선은 녀자의얼골로부터 차층차층 아래로향하야 각선미(脚線美)에서 연소한다 『때이쓰밸류』보다도 『떼쓰、밸류』가존중된다

그래서 지난여름에는 벌어숭이다리에 구두만신고 도라다니는녀자가잇기에 처음에는 아마건망증만흔눈이 양말을 니저버렷나 하엿드니 현결차츰아려보니 한두눈이아니다

그들의 설에의하면 양말우버서버림으로써 녀자의각선미(脚線美)는『너ー센트』도 발휘할수잇스며 따라서 자외선(紫外線)에의하야 다리의건강도 증진할수잇다는것이다 『오ー양말을 니저버렷어가씨여』이다

그러나『듀로ー 어쓰』따러니커버리시는마려요』 이러한 벌거숭이다리를도 날세가추어오니 할수업시 양말을신더니 겨울에와서는 긴양말우헤 짧은양말까지 겹신어서 살작발목에 접어놋는것이 대류행이다 엇젯든말숙하게 벗기웟다가 두겹식감것다가 하며밧는것은 녀자의다리의 가입슨신세다 중국의 전족(纏足)까지 생각하면 녀자의다리(脚)의 력사야말로 눈물에저즌 애사(哀史)일것이다

을겸손(謙遜)일

新綴字法採用 朝鮮語讀本改正

一年間새로히생긴일 (其二)

◇작년 사월일일부터는 권조선보통학교의 조선어독본이 개정되엇다 그개정된 리유는종래보통학교의 조선어독본이 『조선문』의 내정을알지못하는사람의손으로편찬이된이만큼그철자법(綴字法)은 괴괴망측하야 력사가잇는『조선문』으로하야곰 수습할수업는 혼란을 닐으키게하얏다 이것은조선이라도 생각잇는조선사람의 견딜수업는 고통임으로 재작년부터 유지들이조선어철자법에 대한연구를 하엿섯다 그러나우리의손으로 우리의말을 켜리할수가업게된 켜지에잇는 우리는이를 됨히부르지지는동시에 철저한 운동을한질끼(물논조선문이란것을 권멸일도업슨연아니라 당국자의 립장으로 그필요를 인정한것이겟지만은)당국자도그필요를 인정하야 작년사월일일부터 조선어독본을 개정하게된것이다 당국자의결정하는일이어케든지격화소양(隔靴騷痒)의 감을늣기지아흘수업지만은 신철자법은 그팔분가량까지가 민간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것임을 조서문을 위하야 흔하할일이라할것이다 이새로된 철자법을대강만설명하면

첫재자음(子音)을 종성(終聲)으로사용한일(ㄷ,ㅋ,ㅎ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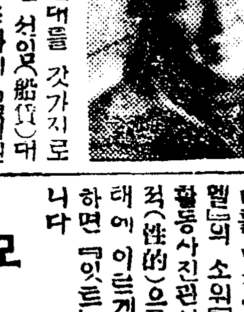
둘재한문자와 조선어를 모다표음식(表音式)으로귀착한일

셋재 종래된 시옷이라고 쓰든것을 페지하고 자유(子音)

歐亞征空한 靑鳥婦人

◇朝鮮도다녀가

◇작년십일월 십팔일 오후세시『색루쓰』라고부르는 영국녀자는청조(靑鳥)라는 비행긔를타고청여의도(汝矣島)에날너왓섯다 이녀의도에 날너왓것다이녀비행사는 작년 구월십오일에자귀본국을떠나서 창망한 구아(歐亞)상공에 흠히떠 진세인간(塵世人間)을나려다보며새와가티활활날아 약두달만에 조선경성까지 왓든것이다 이녀비행사가 경성에도착되든날 경성시내각방면사람들이 『공중의녀용사!』라고칭찬을하며열렬한환영을하엿지만은 이녀자가 지나간어느곳에서든지 그곳의 사람들도모다 열렬한환영을하며 칭찬을하얏다 그의미는물론 구아정공의축복! 남자로서감히 못하는벌이어든 약한녀자로서 이러한장쾌한일을 하얏스즉 칭찬안다는것이다 그것보다도 이즈음엣그럽게 떠드는 부ー문케녀자해방이라는 것을입으로만떠드는것보다 녀자도 남자하지못하는것을 실지로 실행한다는것에 부이문제에대한착실미(着實味)가잇다고나는직감(直感)하얏다



◇사진은『색루쓰』부인

蛟龍丸通航

대판에잇는동포힘으로 濟州島民의赤誠

◇작년십일월 일일 일본대판항구에는 조선사람승객만을 만재한 교룡환(蛟龍丸)이란 긔선이아력찬 긔적(汽笛)을 울니며제주도를 향하야출범하얏다 이긔선이엇지하야 생겻느냐하면 다년간 무리한압박과 착취밋테비참한 진음을하여오든 제주도민이그다년간의 울분을 풀기위하야 십만명의 대동단결(大同團結)로 동아통항조합(東亞通航組合)이란것을 조직하고『우리도우리의 손으로통항을하자』는 표어아레 닐어난것이 이배가생기게된 리유이다 물론사면환해(四面環海)의 제주도민은 통항이란것이 그사활문제이오 또그근본문제이지만은 세력잇고자본잇는 조선우선회사(朝鮮郵船會社)나 니긔상선회사(尼崎商船會社)록아도우선회사(鹿兒島郵船會社)등에대하야 감히상지할생의도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오직그의천대를 갓가지로 보드며 또부리한 선임(船賃)대판으로부터 제주도까지 십이원오십전이란것을 내이지 안으면아되엇다 그러나 작년십월부일쳐음으로 대판항구에서 울년교룡환의 긔적소리는 비단제주도민의 장쾌한긔운을 뽑내는호령이될뿐안이라 실로 전조선의민중에게 대하야 단결의위력을 왈니는 계명성(鷄鳴聲)이라 할수잇섯다 우리는 모든방면에곤난을 무릅쓰고 오직단결하야자긔(自衣)하여야만 될것을 알수잇는 교훈은것은 오직이교룡환의출범이다

飛行機로 妓生을運搬

아츰에서울떠나저녁에는동경 오천원주고기생과비행긔산보

三○年은스피ー드時代

일천구백 삼십년 경성시민의달콤한 유혹의하나는비행긔(飛行機)노리엿다 인천(仁川)까지단칠분동안 류람비행을 하는데십원이다 사람들은 십원자리지페를던지고는『죽어도말업다』는서약서에 도장을 쐭고다시도라올는지 말는지도 모르는위태한길을떠난다유서도 업시그래서단오분동안 서울의 상공을주제넘게떠도라다니고는 유쾌하게 떠들며 서울로 도라온다 엿판에서사람들의 틈에만 써어기어만다니던사람이 구름속에 싸혀하계(下界)를 한번 나려다보는것도 영웅적소풍일것이다

◇지난십월 우리사서부지국(西部支局) 주최의명창대회(名唱大會)에는평양기생들이비행긔를타고와서수심가(愁心歌)를한가락하더니 젊은 모중등학교교원은 남의안해를 실고비행긔로한숨에대련(大連)으로도망질첫다 그리고 또일본의 엇던실업가는구는 평양와서 모기생에반하야 오천원을 던지고 그를다리고비행긔로 동경으로 날려가버렷다 기생어미는 오천원을 손에감아쥐고 먼하니 하늘만처다보앗다

그작자의 목적은 어데하다기생을다리고『강부라』(銀座散步)를 한다는것이다

◇『스피ー드』시대ー아니초『스피ー드』시대의축복바든종아는비행긔다 이옥고일천구백삼십일년에는『나도나도』붙고십니고 여의도도 붐벼가는모다종굴새이야와기하다가도더울본지도몰은다

(사진은평양기생비행긔운반)

尖端的流行語

解說―片石村

「그로」Grotesque

협기적(獵奇的)의미에서 백『퍼ー센트』의기괴미(奇怪味)를 가르쳐하는말이다『아라비아』의천일야(千一夜)혹은『데카메론』이야기가튼것은 고래의전형적(典型的)『그로』다 근래에와서는백오십국명의안해를가진미국의벌난봉은이 거이집부귀(金富貴)등모다『그로』의레에서빠지지안는다그러나근일에항용씨여지는『그로』는레를들면여기에한녀자가잇서서『에로』미(味)만한쌀는복숭아빗투명한양장을입엇스나몰생히다리기우불고엉덩이가처부른뉘에몸둥이는너무살이쩌대커서굽놉흔구두우헤서그모양이단위태해보히는『저녀자는『그로』야하하』하고 허리를 붓잡고우슬수잇다

넌센쓰 Nonsense

『에로 그로 넌쎈쓰』는 일련(一聯)의주문(呪文)이나 현대라고하는 불가사의한 마국(魔國)으로드러가라면 위선첨연의 주문을 리해치아니하면안된다 그래서 이주문은 동시에현대의말기적퇴페상의 일면을 여실히표현한말이기도하다 다말의정당한의미로는『넌쎈쓰』라함은 무의미(無意味)를 가르친말이다 그런데 근녀적『넌쎈쓰』는 현금『로서아』사조와 대항하야세계를풍미하는 이데조류의하나인『아메리캐니즘』의 한측면이다『하롤드·로이드』는『아메리캔넌쎈쓰』의대표자 일것이다 그래서그나라에는 가벼운부의미를 취급하는일군의『넌쎈쓰』문사(文士)가잇스니『스테관리ー콕크』는그대표자다 일본문단에서도 소위『모더니스트』의 일파가『넌쎈쓰』문학을 제창하엿스나 조선문단에는미수업상태에잇나는것이다?

잇 트 (上)

중학교의 일년생 계군까지라도『잇』이라면『그것』이것의의미를가진대명사(代名詞)인것은알것이다 어떤시골중학생이 일본잡지에서『그여자는 쌔『잇』이잇서』하는말을 발견하고 영어선생에게『잇』는『그것이것』밧게무슨의미가 잇느냐고 무럿더니 이정작선생님이 자전을아모리 차저보앗스나 그밧게는딴의미를 발견하지못하야 큰곤난을당하엿다한다 그선생님은 아마이『신류행첨단어전람회』를구경못하신모양이다그런데이『잇』이자전이외의 뜻을가지게된것은『엘리너·글린』녀사의소설『잇』에서 시작된것이다그후아메리카의『파람운트』『허리우ー드』의여우『클라라·보ー』가주연한영화『잇』에서그새의미가완전히 결정된것이다 이영화속에서『보ー』는 그천생의『에로』미를 남김업시발산하야 『듀아헬』의 소위『막난이들의모험』인활동사진계의 커럼한관중을 성적(性的)으로 자극하야 흥분상태에 이르게한것이다 간단이말하면『잇트』란 성적매력을이름니다

모 풀

적색구제회(赤色救濟會)다즉사회운동을하다가 흉한법망에걸러 혹은처형된 희생자들의유족은 엇더한나라에서도 처참한지경에 빠지는것이다 그래서감옥밧게잇는 친지들이 가지각수단으로 대게는로동자들이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굴거모아서희생자들의 유족을 구제하는것이다당(黨)이라는것이 잠행적인나라에서는이『모풀』도역시개는잠행적으로 경찰의 날가로운눈을피해가며 괴민하게 활동하

사보타ー쥬 Sabotage

『사보타ー쥬』는로동자가자본가에게대항하는항쟁수단의하나다즉『스트라익』과『사보타ー쥬』는로동자가가지고잇는유력한무긔다 권자는 비합법적 적극적수단이고후자는 합법적소극적 전술이다로동자가자본가의『녹크아옷』(工場閉鎖)을피하기위하야여전히작업은 하면서 일을생상시보다겨으르게 한다든지 그러치아니하면 자본가에게 손을써치기위하야 원료품이나 긔계를함부로막써 버리는것이다 그럼으로『사보타ー주』는반듯이태업(怠業)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가생집에 잘가는 동부가늦게출근한유래를드려보족그부인에서남편의버릇을가르치기위하야아츰에자는머로안깨워주고아츰밥와지늣게해서저우먹여 보낸까닭이라한다이런것도물론『짜보라ー쥬』다 그러나만천하의부인들은삼가이런 전술을피하는 것이조태하니와

流行界調査

―尖口生―

부인들의頭외투

작년겨울에 들어서 일반부인들의 파랑빗자지빗외투의『에리』에는 검은털 자색털부지는것이 청하게유행하기 시작하엿다 쳐남짓한키다리서양부인의목에걸린여호나물개의털리에류리로맨든 눈가지해바힌 것으로보면 몸에소름이쌔쳐 첫지아라비아니맹수부리는 사람을맛난것가튼데 부인들의 외투의털을자세히보면 여호털, 약털, 수달피털로부터 심지어 토기털까지잇다 그것을무치는분은 아모조도업시만 천잔은 부인들의외투에호기털을 부처서 항부로투매하는 양복점일이 펏십하다

뒤서러진볼므

『녀자여너히는 맛당히너의머리를 잘를것이다 그것『하ー렘』속에서자란것이다 발에걸리는현신적가는 케케묵은 안쉽과도덕을 버서버리는것처럼 너의머리의 구속에서 버서나기위하야 어서머리를잘너라 이것은심오한『쌉브』(新髮)찬미이다 그것만아니라『쌉브』에는『호리존탈』『씽글』『덧취』『섀이쉬쌉브』등 각각독특한미(美)가잇섯다그런데 一九三○년에와서는녀자들의머리는 또다시『쌉브』와『웨이부』는 니저버린듯이 도라보지도안코 말하자면 단발과결발(結髮)의 중용을가는것이라할론지『단발트리』(斷髮卷)으도변하엿다 머리를 양쪽으로갈라서 얌전하게빗처서 양귀밋헤서모양꼽게 뼈어올리는것이다 한동안써맛치 귀를막어버려던『미미가꾸시』도옴에는 다지나가고고사리가튼귀를 뵐수잇는때로해에또인다 머리를이러케 해노흐니 자연는선도 와오리로가는게세워야 모양이잘맛다

『히가사』의進出

그우헤 지난여름에는 우헤일본『무스메』들이잘쓰는『히가사』를바커쓴것이 그야말로 일쪽의동양화와 만물이다 이것결관코우아해보히다 어전보나는황신흘양코ー튼의 냄새가 나려가버리고동양적인 정취가도하다 동양東洋의녀자는 이제야다시(東洋)으로 도라오는지도모른다 그러나 아직은조선으로 도라오지는안엇다(續)

謹賀新年

錦山

郡北面 朴盛來

錦山郡郡北面內谷里 吉秉琪

郡北面 朴勝[illegible]

郡北面 朴冀圭

錦山郡郡北面杜斗里 金孟述

錦山郡富利面 吉秉浩

富利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富利面佛村里 吉相穆

富利面事務所職員一同

南一面職員一同

南一公立普通學校 黃錫[illegible]

南一學務委員 朴贊學

南一公立普通學校 閔癸植

馬田 李敬儀

秋富公立普通學校長 朴茂市

秋 秋富面

秋 崔富相鎬

秋 崔富成根

秋 崔富泰根

福壽面長 趙熙壽

福壽面谷南里 鄭浩潘

錦 李城昱善

錦山邑 錦山醫院 李輔順

錦山邑 錦溪醫院 公醫 李錫善

錦山面事務所職員一同

錦山邑 元央理髮館 金錫元

錦山邑內 天野時計支店 宋錫球

錦山邑內 錦山蔘業組合

錦山面中島里 鄭懸鍾

錦山市場 丁祺宗

錦山面下玉里 李吉周

錦山面中島里 金鋪仁

錦山面中島里 [illegible]仲根

錦山 南山印刷所

錦山面中島里 朴[illegible]根

錦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錦山邑中島里 白昌基

濟原 鄭國來 裵中久

濟原面 朴鵬儁

濟原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濟原振興會

濟原面 鄭泰衡

濟原恒產組合

濟原 金根成

濟 金原永根

濟 羅原泰潤

濟 崔原準浩

濟 安原相熙

濟 羅原成述

濟原面 金判植

濟原面 柳童烈

濟 金原平局

郡北面 李太成

郡北面 宋武鎬

大浦

東草市場市民一同

大浦釀酒所 主任 金德雲

道川面漁業組合長 鄭珠碧

襄陽郡大浦港 三星釀酒所 主任 柳時永

襄陽郡大浦港 朴士集

大浦東海醫院 金榮澤

襄陽郡物淄市場 金精釀酒所 張基淵

襄陽郡大浦港 [illegible] 高東煥

襄陽郡大浦港 [illegible]理髮館 主任 任奉根

大浦金融組合職員一同

道川面職員一同

襄陽郡東草里 [illegible]寫眞館

土城面鳳浦里 朴義慶

竹旺面職員一同

竹旺面漁業組合 理事 朱[illegible]

襄陽郡俗岩市 起成釀酒所 主任 金振瑗

襄陽郡俗岩里 金成運

襄陽郡我也津里 東一釀酒所 主任 全昌鉉

土城面漁業組合 組合長 崔鉉昇 理事 李範圭 書記 金丙用 書記 李道永

土城面職員一同

襄陽郡天津里 天津釀酒所 主任 張弘俊

襄陽郡扶月里 朴昌周

襄陽郡東草里 秘仙釀酒組合 主任 金兩圭

成川

成川郡九龍面[illegible]里 醫生 盧用洙

成川郡廳

成川郡陵中面[illegible]陽里 博愛醫院 公醫 金永傑

成川郡陵中面[illegible]陽里 醫生 張元用

成川警察署警友會

長林金融組合 理事 朴範洙

成川公立普通學校 同農業補習學校 職員一同

成川邑內下部里 醫生 韓命富

成川面事務所職員一同

成川邑內 順安醫院 公醫 韓洛奎

成川產業組合

成川邑內 成川旅館 司法代書 李秉祚

陵中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陵中面事務所職員一同

成川郡陵中面南陽里 新豐燒酎合資會社

慶山

慈仁面事務所職員一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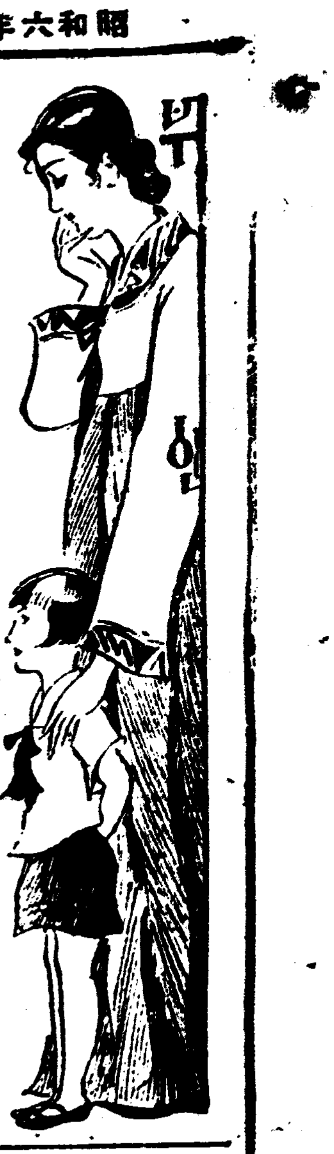
慈仁公立尋常小學校

龍城面事務所職員一同

南山面事務所職員一同

慈仁市場 海陸物產 仲買 支店 崔仁淑商店 慶山市場 河陽市場 永川市場

朝鮮日報慶山支局長 吳在東



先進으로서 後進에게 보내는 말 (4)

우리녀성은어써케살어야할가 새해의새포부, 희망

淑明女高普 吳慶喜

모든일에잇서 리론과실제는 넘어나다르다는것을우리는때때로늣김니다 현실의 실사회의모든것은책상에서생각든바와안에서늣기든바와는넘어나 다른것입니다 이러한의미에서임니다 사회에발을내놋코 사회의일원으로 활동하고잇는우리의선진들의귀중한 체험으로부터엇는만흔포부와희망을 새해의새출동의한낫참고로듯는것도 또한뜻깁흔일일것입니다……

저가학교를마치고교편생활을 시작한것은 발서십육칠년전 넷날일입니다 그동안혹은 이곳혹은저곳으로 아이들을 동무삼아 하로가러 지내왓습니다만 돌라보면참으로

여러가지

변천이 만습니다 그와동시에 이런일저런일 닥칠때마다 여러가지 유감되는 바혹은바라는바가만햇습니다우선가정에서 살림사리하나를 례로보드라도 저는 직업을갓고잇는관계로 살림을들 남에게부탁하는편이만케됨니다 물론 남의손을비는 이만큼 목맘에들도록해달라는것은 너머 무리한일이겟지요만 너머나 몰상식한일너머나무지하나는것을들듯기게됨니다 더욱아이하나를 길러볼때에 절실히늣겻습니다 그것도

어렷슬때

에는시골할머니에서 길른셈으로 별로모르고지냇슴니다만금년봄부터는 유치원에 단니게됨으로 저가다리고잇서보니 여러가지 불편이 적지안습니다아츰에는제가학교가는길에 다려다두고 저녁에는 집사람이다려감니다만늦게에나 그밧게여러가지로보아아이를맛겨둘만한사람하나를갓나기가어렵습니다다음살림사리를보드라도 모든것이너머복잡하고시간만걸여좀더간편히해볼려고밥그릇이니무어이니다집어치우고밥통을써보앗습니다만 다함께식사를 못하게될때에는 음식이 식어지게됨으로 비권 우리살림대로밥그릇에당어서 뭇뭇한데 뭇어게됩니다 이것도 한사람 쯤이라면 모르거니와 두사람쯤만되면 발서살림이

두가지로

되게되니 결국 이중생활이되고 말어버립니다 이런것은한두가지 례에서지나지안습니다만 이에따라 모다알고도 실행하기 가장어려운때입니다 말하면 신구(新舊)가두석진이때임으로 이러케도 하기어렵고 저러케도 하기어려운때임으로 좋부엇을 안다는우리에게는 한낫수난시대(受難時代)입니다 그럼으로저는 아는그대로 하고십흔그대로 모든것을개선하며실행할때는다음시대즉우리의 후진들의 시대라고봅니다 물론아는데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잇슬것입니다만 참나운실현은후진여러분의손에 달렷것이니 여러분의 책임은 실로무겁고도 중입니다 즉우리의 모든살림은

뒤따라오

는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달렷것임이니 다한께이책임의 중함을 잇지말고충실과 근검중에서 각각자긔의할바를 꾸순히해나가기를 바라는바입니다

(사진은오희씨와그의애기)

一九三〇年에자최를남긴그들의業績 (四)

한평생을조선에밧친 『홀』婦人의一生

◇……고아와환자위해희생 醫學講習所까지設立

홀부인이라하면 누구나 모를이가업스리만큼 그는 우리조선과가장갓가운이다

홀『그는우리와 다른백색인종이아닌가』할는지도모르나그는그리우고국과 정다운친지를멀리버리고단지자긔의초지(初志)를의하여 이역풍토(異域風土)에서 가진파란과싸호면서 사십여년이란 긴세월간 우리를위해희생한 우리의은인 우리의사랑할동무엿다 우리를 위해일하는자 곳우리의벗이니 그를위하에 엇지주커함이 잇스랴!

◇

물론 그의사업은 一九三〇年에만 남은것이아니엿다 십년이십년 사십년이란긴동안 하로의 눈침업시 계속되엿든 것이엿다 그러나그사업 그의초지가 사십년이란 긴세월로써 열매를매진것은 一九三〇年이엿스니 이러한의미에서 우리는 그의사업의자최를 다시한번 차저보랴는바이다

◇

그가처음 우리조선땅을 밟기는바로 스물다섯살되는해 가을──一八九〇년──십일월이엿다한다

『내가부산에오니 바로십날이엿섯는데 인천에십삼일 서울에오니 십사일이엿지요 그리고바로십오일부터 집도풀기전에 일을시작햇습니다 그때 조선에는전차도업고 인력거도 업서 보교를타고 단엿습니다』 하는부인의말을듯드라도그는과연우리의 녯벗이다

그는 첫사업에착수로 곳지금리화학교안에 잇는 유치원자리에보구려관(普救旅館)이라는것을세우고 한편으로 환자를치료하는 동시에 녀학생교육에전력을다햇다한다 그러나 치마쓰고가마타던 그때라 학생이라고는그아일로 고아나다름업는 조선녀자비명과 일본녀자한명이 잇섯다고한다 약삼년간 칠천여명의환자를 손수만첫스며 그중에는 당시벼각대신의 귀부인들의 왕진도잇섯다한다

◇

그후一八九二년 그는현재 동대문 부인병원압헤잇는 조고마한조선제집을 치료실로 지엿고 미국에서는 그의사업에대한 보조금을 보내게되엿스니 이것이 실로선교의 목적으로 조선에송금하게된시작이라 한다

◇

一八九二년 뉴─욕 태생인그는 홀이란이와결혼을 하게되엿스니 그의홀이란 지금의성은바로결혼후의 성이다 동시에지금 동대문 부인병원을 시작하엿다가 一八九四년에는 평양으로가게되엿다한다

평양으로 내려가면서도 그의사업은 무순하엿든것이엿다 그는곳치료에 착수하는한편 역시불상한아이들을 가르키고 잇섯든바 벼마침평양감사로 잇든모씨의부인의병을 치료한일이 잇다한다 그부인은 완쾌된후사례로만흔선물을 보냇든바 부인은 구지사양하고 돌려보냇드니 이를안 당시관아에서는 은혜를 닑힌다는의미로 광혜(廣惠)병원이란 일홈을지여서의 경영난 병원에주엇다한다

◇

이럿든중 벼마침일청전쟁(日清戰爭)이 시작되여(一八九四년)평양성은 일청량군의 전전지가되여 대수라장을 이르키게 되여할수업시 당분간 피신하야 서울도 도로와라오게 되엿스나 역시그두부부의 신념는 불상한이들을 잇지안엇든것이엿다 남편되는이는 또다시 평양으로내려가 전쟁으로 부상된청국병정들의간호와 치료에 동분서주하다가 이개월후에는그만 병을어더불귀의객이되고말엇다한다

◇

결혼생활불과 몃해에 사랑하는남편싸지 여인그는 모든외롬보다도 여전히 그의전뜻을관철하기에 여념이업섯스니 一八九七년에는 맹아학교싸지 설립하고 불상한아이들을 손수길럿든것이엿다 이에대하여서도 당시의지이들은 척한사람도 다가르칠수업는데 어쩌병신싸지 도라보느냐고 만흔반대가 잇섯나한다 그러나그의굿은결심은 그것을실현하기싸지에이르럿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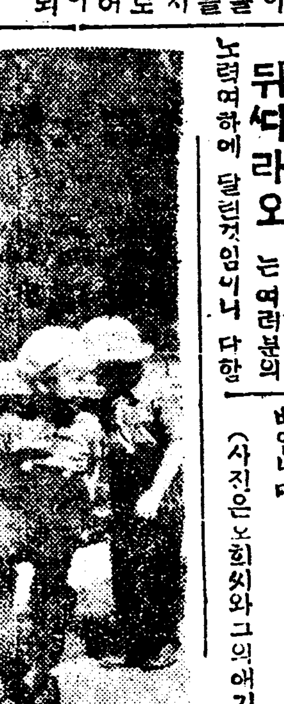
그후一九一七년 또다시 동대문부인병원에 부임하게되여 이래십년간 수업는환자의 어진의사로써 하로가리 보내엿다한다 그러나 그에게는아직도 남는한가지일이잇섯다 그것은 부ㄴ과아이를 위해반드시 잇서야할녀의사의 양성이엿다 그는이꼬부아래에서 처음부터자긔가 교육하는 사람은최다 의학방면으로나가게하여 동경 미국등지에서 임을낫치고 현재활약하는 사람도만흐나 그는그보다도 그를위한어떤긔관을 바라고 잇섯든것이엿다

이에그는一九二八년바로지금 그가경영하고잇는 조선녀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하고 현재그초지에매진하고 잇는중이다

(사진은홀부인)

어린이소설 행복을찾어서 (三)

金哲洙



헤영이는 아버지가 찬도로 이사해가자는 밤을붙은뒤옥희를 리별할일이참으로쓰렷습니다 그러나엇지는수업시세칠후에는얼마안되는세간들을팔아서 여비를 만들어가지고 북쪽에는 아직백설이 펄펄날리는이월에 헤영이는 옥희의밧을밤을 흘리는 눈물을 뒤에남겨두고 아버지와 어머니를딸어 멀리 길을떠난것입니다

×

세식구는 걸도몰으고 강을것니기는 햇스나 컴컴어두워가는 거츠른 눈차들에 어대갈테가 업섯습니다 아모리 삶혀보아도 사람사는 집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안엇습니다 그러나 그럿타고 이치운 겨울저녁 찬바람을 안고 눈우에 그냥섯슬수는 업습니다 그리하야 엇쨋든작고걸어서 조고마한 고개마루에 올라섯드니 뜻밧게 그아래에초막가른집들이 두서넛 보엿습니다 헤영이는 무삼큰발견이나한듯이

『아버지 저게집이 보혀요저집에가면 오늘밤재워주겟지』

하엿스나다시생각하여보니그집은우리조선사람의집은아니엿습니다그집이중국사람의 집이라고해닷게된쌔에는헤영이 등에서는 찬섭이주루루 흘넛습니다 철도공사장에서 저이써리뜻고치며 싸우는험상구진 중국사람들 모양이 눈압헤 얼는얼는 낫하나며 무서운생각만직고 납니다

그러나 엇저는수업는 사정이엿슴으로 그중에 갓가운집에들어가 오늘밤 재워달나고 말을햇드니 주인은 말을붙어듯지못하고 무어라고 중얼중얼 하고만잇습니다 헤영이는 도모지말로는 사정을알녈수업슴을알고 손으로 배를가르치며 배곱흐단 표정을하고 두손바닥을 마조합하야 귀에다 대이고 머리를 가웃하야 재워달라는표정을 햇습니다

그제야 주인은 들어오라고 손짓을함으로 드러갓드니 뜻밧게 화로와더운차를 내여주며 옥수수 여러송이를 내여놋코 먹으라고 손짓합니다 그집아히들은 이상 하다는듯이 처나보며 알어듯지 못할소리로 중얼중얼 합니다 더운차를마시고옥수수를 먹고나니 그제야좀 정신이 나며몹시피곤함을 늣겻습니다 그리하야 그자리에맥업시쓰러저서 잠을자게되니 주인은저의 식구들다리고 연방으로 가버렷스나 그러나헤영이는 잠한잠잘수업섯습니다

밧게서 바람이옥수수말은 남사귀를 흔드는 소리가들려도깜작깜작 놀라고놀라고 햇습니다 공연히 무시무시하야 잠은오지안코젓해서 세상몰으고 코를드렁드렁골며 잠자는 아버지와어머니를 물그러미 바라보며이밤을엇지 밝히리하는 근심과걱정으로잠이 다고 한잠도 자지못하고 날이차차 환하게 밝아올쌔에야 헤영이는 죽엄에서 다시살아나는사람의 깃븜보다 더한깃붐을늣겻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다잠을 깨엿슬때 헤영이가

『아버지 제는 엇덧케하려니가? 오늘도 그농장싸지가서 길을떠나야 되겟지요 얼마나 먼곳에 잇는지』

하며 이약이하누데 주인이나와 무어라고 중얼거립니다 암아밤을 잘잣느냐고 뭇는말갓햇스나 도모지 알어들수 업섯습니다

헤영이는 보통이를 풀너놋고 고향을떠날쌔 옥희가 눈물을방울방울 흘니며 책보에싸두든과자를꺼내여 그집아해들에게 나노하주며 먹으라고햇드니 아해들은 그과자를맛나게 먹으며깃버합니다 그러니 주인도벙글벙글 우스며 차와옥수수를 내여노코 먹으라고합니다

세식구는 그옥수수를 맛나게아칩으로먹고 감사한인사를 햇드니 주인도마조감사하게 인사를밧습니다 헤영이만엔 조곰식중국사람도 우리 조선사람과가티 인정이 잇고나하는생각이 생겨지며 그럿케두렵든 중국사람이 차차친하게생각되엿습니다

국경을넘은 첫날밤을 이럿케 밝이고 아버지는 주인하고여기서 농장싸지 가랴면몃칠이나걸니느냐고 한문글자를써서 물엇드니 주인은아직 잇흘는걸여야 농장으로 간다고합니다

三等當選 칠판의노래

尹泰泳

─一─

나는요 날쌔부터 새깜한얼굴
눈노코도 다 업는 새깜한얼굴
학교동무 다도라간 어둔밤이면
쓸쓸한 이교실을 혼자직히죠

─二─

십년전 녯날에는 올망졸망 학교동무 집도새롭고
이날의 학교집은 무허저가고
달달이 빈책상이 늘어만가요

─三─

고개넘어 착한동무 인연이도요
오날부터 벤또쎄고 공장간대요
월사금이 업서서 공장간네요
몹시도 그넷날이 그립습니다

三等當選 구름배

張永命

반달님과 애기별 구름배타고
어엿브신 독기님 배사공되여
한울바다 뭇까지 저어갑니다
밤이깁허 삭경이 지나게되면
한울바다 지나서 서해바다로
샛별등불 밝히고 저어갑니다

라듸오

一月四日

午後〇時卅分氣象概況各地天氣實況 ▲〇時四〇分三曲、尺八本曲 ▲一時三〇分 西道雜歌 一、愁心歌 二、船唄 三、難逢歌 四、巫女歌 金玉葉 ▲二時〇分뉴─쓰 ▲六時〇分 童話劇(東京)童話村同人 ▲六時三〇分連續口演(朝鮮語)春香傳(三)名唱金昌龍 鼓手韓成俊 ▲七時〇分뉴─쓰順序發表 ▲七時二五分 라듸오風景(東京)一九三一年의방漫遊十二個月 ▲九時三〇分氣象概況時報

今春에上映될두名画

사진은 신춘에서울에상영될 세계적걸작중이니『上』의두장면은로농로서아의영화아세아의며동란(亞細亞의大動亂)『下』의두장면은레마르괵원작의 서부전선이상업다(西部戰線異狀なし)의장면들

謹賀新年 000030

溫陽

京南線溫陽溫泉 忠南勸業株式會社 電話一五番

京南線溫陽溫泉驛前 溫陽印刷所 張在鳳 張翼煥

京南線溫陽溫泉 靈泉醫院療養所 醫師 楊在植

牙山郡廳

京南線溫陽溫泉驛前 綢緞紬緞 布木雜貨 雜貨御商 新昌商會

溫陽水利組合職員一同

官選忠南道議員 靈仁金融組合長 柳冀暎

忠南道評議員 李悳相

京南線溫陽溫泉驛前 南鮮旅館

京南線溫陽溫泉驛前 朝鮮料理 富世館

無名氏

牙山金融組合 職員一同

仙掌金融組合 職員一同

京南線溫陽溫泉 朝鮮料理 六松館

京南線溫陽溫泉里四五ノ一號 南成館

牙山郡溫泉里 閔泳逑고무靴商店

牙山郡仙掌面君德里 曹秉烈

京南線溫陽溫泉驛前 沈□商店

牙山郡溫陽面邑內里 尹□□

平和釀造所

牙山郡溫陽面溫泉里 三宰商會 姜鳳玉

長湖院

長湖院 泰華釀造場

京畿道長湖院里 崔鍾碩

長湖院 劉重植

京畿道長湖院市場 吳永模商店 振替京城一六八七〇番

長湖院 金希奭

淸渼面 會計

太田立身

金鍾旭

金榮國

湖西銀行長湖院支店 尹時榮

趙洪周

李圭泰

權寧直

長春館

得鼎商店

東西洋服店 朴英臣

大成社

興產組合

京南線長湖院驛前 泰華酒造場 主 趙□ 振替口座京城三二九二番 電話一五番

京畿道長湖院里 中島寫眞館 主 崔鍾碩 技師 李渼宇

長湖院 劉重植商店 電話七番

長湖院里 吳永模商店 振替京城一六八七〇番

各種 金物 夕刊 勤□商店 電話二六番

利川郡淸渼面 職員一同

長湖院 太田立身

綿布商 金鍾旭 電話四四番

利川長湖院 材木商店

株式會社湖西銀行長湖院支店 職員一同

長湖院驛前 穀物商 趙洪周 電話四〇番

穀物肥料商 主 李圭泰 電話二三番

公醫師 權寧直

朝鮮料理 長春館

得鼎商店 電話一九番

京畿道利川郡長湖院 長湖院消費組合 理事長 趙聖達 專務理事 黃永秀 常務理事 黃義秀 電話一六番

長湖院 東亞洋服店 主 朴英培

金融業 大成社 員一同

興產組合 電話二五番

京南線長湖院 長湖醫院 尹基東

長湖院 趙在新

消費組合 黃永秀

京南線長湖院 長湖醫院 京專醫學士 尹基東 助手 尹基南 金仁術 電話一七番

京南鐵道京畿線長湖院驛前 穀物肥料 官鹽精米 鐵道運送 泰華商會 電話 事務室三三番 精米部二一番 電略(ナ)又八(ㅂ) 振替京城一〇〇六九番 仝 運送部 主 趙在新

吉林

吉林西門外朝道砌 恰泰號

吉林城裡 無名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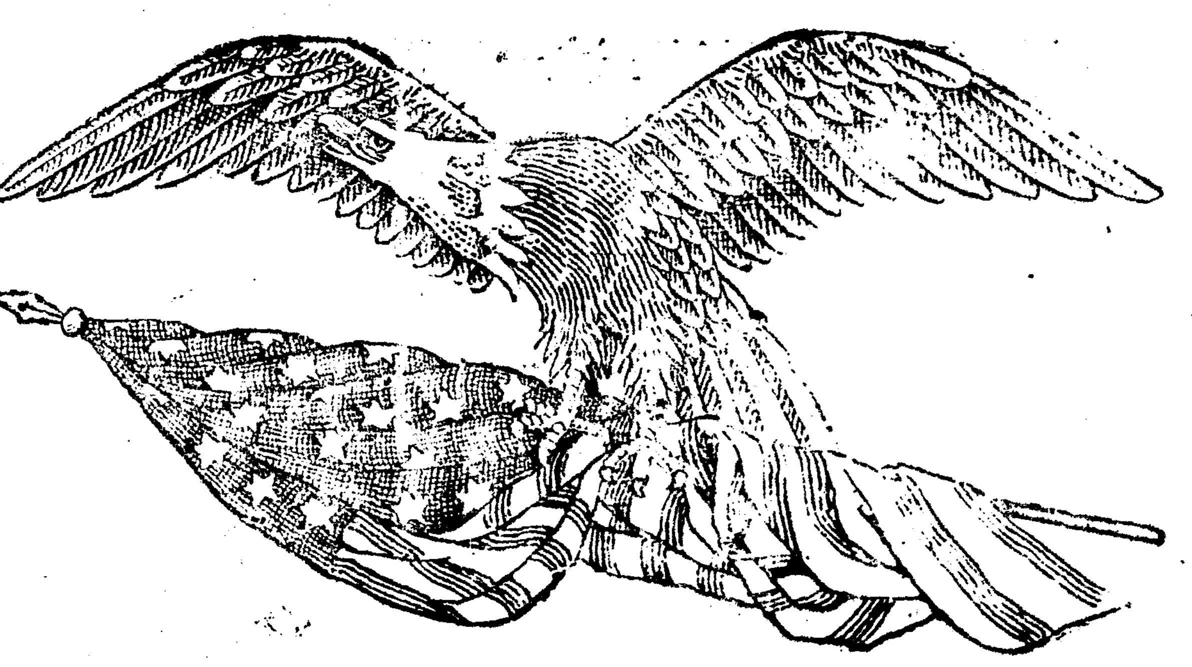
吉林城裡尙儀街 復興泰粮棧

吉林商埠地吉鮮醫院 韓尙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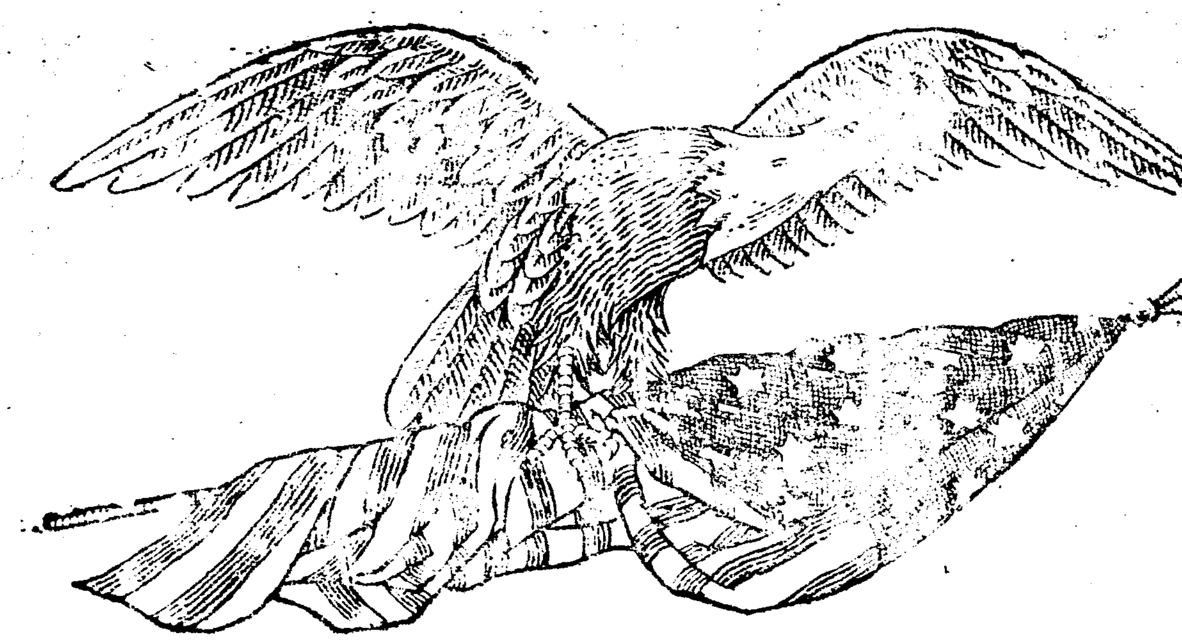
吉林大東外 大豐合

農產物共同販賣組合 共益糧棧 吉林省城東大馬路 電話九百五十七番

위조약주의



미국의학박사어을빈
창제한미국극상픔
만병수와보제약광고



僞造藥注意

미국의학박사어을빈제조만병수와보제약

美國醫學博士 魚乙彬製造美國極上品萬病水
미국의학박사 어을빈제조미국극상픔만병수

定價金 壹瓶 壹圓九拾錢

모든병에 합당한약을쓰면 이세상에아니낫는병과 효험아니나는병이 별노업슬지라 심히어려운병과 매우고생하는병이잇스니 죽고병신되는것은 합당한약을 쓰지아니함이라 악한병이잇슬때는 즉시합당한약을구하야 병근이업슬때까지먹을지니 만일병근이조곰이라도잇스면 경발함이맛처밧헤 기심을호미로매여 그뿌리를빼지못함으로 다시나는것과갓흔지라 미국의학박사어을빈제조 미국극상픔만병수는 병을낫게하고 또병뿌리까지 영히업게하나니 찬란한옷을닙지아니하야도 능히몸을덥게할수잇고 흰밥을먹지아니하야도 긔운을능히 건강케하는지라 압흔사람이합당한약을먹지안코는 병을낫게못하고 그몸을건강케할수업스니 대저 의식주가 아모리풍족하다할지라도 신체가 건강치못하면 무삼소용이잇스리오 인생의제일큰세가지는 나(生)는것과 혼인하는것과 죽는것이라 나는것은 천한곳에서나도 살수잇고 혼인은 비록마음에합당치못하야도 죽을경우는업거니와 병으로압흘때 약을아니먹어도 죽지아니하겟다고 말할수업나니라 내가조선에잇서서 근사십년동안에 해마다수만명조선사람의병을 진찰하야 엇은경험과 연구한결과 미국극상픔의 고귀한약픔을배합하야 여러가지병에 가장합당하도록 제조한것이 미국의학박사 어을빈제조미국극상픔만병수라 연구에연구를더하야도 이약밧긔는 더할수업는지라 이약을만들때 맛도생각지안코 모양도생각지안코 갑도생각지안코 오직이한가지약으로 여러가지병에 합당하도록만생각함이니 약의효력은 다말할바업거니와 먹어본사람의게 무러보와가히알것이라 이약의합당한병일홈을 다들어말할수업스나 대강긔록하면

本病 본병	痰痛 담통	疳瘡 감창
咳喘 해천	骨痛 골통	瘰癧 나력
菜毒 채독	濕氣 습긔	積病 적병
黃疸 황달	瘇氣 종긔	浮腫 부종
大瘡 대창	皮風 피풍	滯症 체증
脚氣 각긔	腎熱 신열	痼疾 고질
水脹 슈슈	腹脹 복창	喘慢症 천만증
吐痰 토담	神經痛 신경통	連珠瘡 연쥬창
遺病 유병	陰戶熱 음호열	失音 목쉰병
楊梅瘡 양매창	骨節痛 골절통	咽喉 인후
數溺症 삭요증	睪丸炎 산증	腰痛症 요통증
乾嗽 마른기침	膀胱濕熱 방광습열	魚口瘡 가래도시
半身不遂 반신불수	肝臟症 간장증	慢性淋疾 만셩림질
急性梅毒 급성매독	久嗽 오랜기침	動脈硬化症 동맥경화증
氣管枝炎 긔관지염	諸筋肉痛 모든근육통	肺溢血 폐에피어린병
遺毒瘡 부모의밧은창	其他內外慢性病 기타내외만성병	

이런병에는 어룬이나 아희나 적은병이나 오래된병에 다유의한약이니 오래되지아니한병에도 유의하거니와 병근이엄의깁히든병에 특별히 효험이잇나니라 만일병이잇거든 부당한약으로 고질되게마시고 이약은 수만명사람이먹어 나흠을본약이라 또한이세상에 원수가만하도 사람의게 질병이제일큰원수라 사람도 그원수와 한동리에못살거든 하믈며 긔운과 질병이원수가되여 엇지한몸에잇스리오 질병이긔운을이기면 몸이죽을것이오 긔운이질병을이기면 건강할지니 미국의학박사어을빈제조미국극상픔만병수는 곳질병의원수라 다른약으로써 효험보지못한여러가지병을 다만이약으로 곳처나니라

美國醫學博士 魚乙彬製造美國極上品補材藥
미국의학박사 어을빈제조미국극상픔보재약

定價金 壹瓶 貳圓

이세상에 제일귀중한것은 사람의생명이라 사람마다 자긔만오래살고 병업기를원할뿐아니라 부모처자와 형데의오래살고 병업기도원하는지라 무엇이죽는것보다더섭섭하며 무엇이죽는것을면지는것보다 더반가운것이 잇스리오 압흘때에 약이비록더럽고 독할지라도 먹는것은 사람의본정이라 그런고로 자긔의생명을위하야난 조하하는 모든전장과 물건을방매하며 혹은친구의게 취대도하야 약을사서먹나니이것이무삼연고뇨 결코약을조하함이아니라 진실노자긔생명의귀중함을 앎이니 재산과 의복과 음식이 산사람의게는 귀중하나 죽은이의게는 무용한지라 사람이안심하기를원하면 반다시선한일을행할것이오 조흔선배가되랴면 반다시공부를부저런이할것이오 친구를사괴랴면 반다시교제를잘할것이오 장수하고건강하기를원하면 반다시몸을조심하야 잘가질것이라 도적이오기전에 미리문을잘단속함과갓치 몸에병이들기전에 미리생각하여야할지니 약먹고건강한것이 병들어고생하며 약을먹는것에엇지비교하리요 이것이농사와토지갓흐니 농사는실시하면 조흔곡식을 거둘수업고 토지는거름아니하면 바리게되거든 하믈며 피와살노된사람의몸이랴。

무엇보다 귀중한이몸이 항상위태한가온데사나니 대저병이란것은 공긔와식수와 음식가온데잇고 또자연히나는병과 부지전에잇는병도허다하나 몸이건강할때에야 병이들지아니하되 약할때에는 병이드러오기쉬운지라 방은암만써러도 러러워짐으로 반다시닥가 정하게할것이오 옷은암만조심히넙어도더러워지고 써러지나니 반다시씻고곳칠것이오 또한몸은조심하야 병든모양이업슬지라도 방과갓치닥고 옷과갓치씻처야 모양도잇고 건강할지라 외면은물로씻치려니와 대개위태한병뿌리는안에서시작하고 밧그로나오는지라 만일이악한긔운이몸에잇스면강건한긔운이자라날수업고 점점쇠약할수밧긔업슬지라 미국의학박사어을빈의보재약은 악한긔운을능히빼고 새긔운을도와 안정을하게하는것이 맛치물노써방글씻는것과갓흐니 만일몸에숨은병과 더러운긔운이잇스면 이미국보재약으로 그긔운을빼고 새몸을만들자니 이약은 약한이를건강케하고 건강한이를더욱건강케하고 녀자가먹으면 건강한아희를낫코 또특별히잉모가먹으면 잉모와아희가 모다충실하여지고 남녀간하초긔운을돕고 어린아희는강약을물론하고 건강케하며 남녀학생들의 뇌를건전케하며 압흘때와압흔뒤에 몸을건강케하며 음식을잘소화식혀 구미잇게하며 보혈강장(補血强壯)케하야 신체조직발달을완셩(身體組織發達完成)식히며 신경을건미(神經健美)케하야 두뇌를명민(頭腦明敏)케하며 보음보양(補陰補陽)하고장위를충실(腸胃充實)케하는지라 병잇는이와업는이의게 다보의하며 이보재약이로인을더장수케하나니 조선은백년사는사람이드물고 또팔구십사는이도드문지라 그부모가무삼병으로죽은것을무르면 흑대답하기를 별병은업고 로쇠하야죽엇다하니 참밋지못할말이라 구름업는하날에 엇지비가오며 병업는몸이엇지죽으리요 리치업난말이라 흑숨은병과적은병을로인의긔운으로 당쳐치못하야죽나니 이것이큰병으로죽는것보다 더가긍한일이라 미국의학박사어을빈제조미국극상픔보재약은 로인의몸에새힘을주고 또그만년에몸을정수케하고장수케하나니 열심을귀여 맛당히병근을발거할것이라

代金引換(대금인환)으로 어나곳에던지보내옵고
廣告冊子(광고책자)는누구씨의게던지보내옵내다

朝鮮釜山(조선부산) 美國醫學博士(미국의학박사) 魚乙彬(어을빈)

電話 一九三九
振替釜山 五〇〇
振替京城 七九八八

美國極上品金鷄納
미국극상픔금게랍

壹瓶定價 金貳圓四拾錢 (三十五粒入)
半瓶定價 金壹圓貳拾五錢 (十五粒入)

본원의판매하는금게랍은 선밥매품으로 재료(材料)를정선(精選)하엿인고로 모든금게랍보다정력이대상부동하오며 좌과의병에는특효(特效)한약이외다

절후(節候)가밧고이는때는물논이옵고 가정에반다시상비(常備)할약인고로조선가정에는진실노업지못할양약(良藥)이외다

一、약의특효(特效)

感冒 감긔 毒感氣 독감긔 瘧疾 학질 膽腸症 병복 腸疾 장질 寒熱症 한열증 食慾不進 식욕 身熱頭痛 신열두통 虛弱症 허약증

보재고약 補材膏藥

壹瓶定價 金五拾錢 (六十瓦入)

이고약은 미국극상픔이오 약병을빗처 보재약과 만병수병빗과 갓고약은보재약과 만병수를먹는이가종처나신열이잇스면바를것이오 태열이나 피풍이나 또모든종처에 바르되그종처를처음에 비누(사분)로정하게씻고 매일두번식 엷게 바르고정하고 흰헌겁으로 매여두시오이고약은반다시집집마다상비(常備)하야둘가정약이외다

美國極上品疥瘡膏
미국극상픔옴약

定價金 五十錢也 (八〇구람入)

쓰기에편리하고 무삼옴이라도옴병에는 제일효력이조흔약이외다

注意 주의

옴약(疥瘡膏)과 고약(補材膏藥)은 선금을보내여주시오、
이두가지약만우비(送料)를본원에서담당합니다
그런고로대금인환(代金引換)으로보내지안코선금이오면귀하의댁에까지바로배달되도록붓처드립니다

魚乙彬 어을빈